통일염원 55년 『통권 2호』

역 사 사 랑

- 달리는 청춘, 실천하는 청소년의 삶···역사사랑 -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122번지 간디학교
E-mail : tongiljoguk@hanmail.net
Tel. (055)973-1049

- 차 례 -

▶여는 시 / 직녀에게 - 문병란 3
▶회장 글 / 후회없는 청춘을 - 이지선 4
▶회장 임기를 마치고 / - 이영석 5
▶편집부장 글/ 회지와 나 - 성연이 6
▶지도교사 글 / 우리 당당하게 살자 - 최보경 7
▶산청의 인물 탐구 / 남명조식 - 염이슬 9
▶1, 2기 회장에게 듣는다 / 역사사랑은 어떤 동아리인가? - 성연이 11
▶새 천년 특집
민족의 자주권 회복을 위하여 / 한미행정협정을 통해 본 한미관계 - 정재원 1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하여 / 국가보안법와 우리의 삶, 청소년의 역할 - 김은혜 17
농촌의 정상화를 기대하며 / 세계화와 농촌의 위기 - 심은아 27
학생인권을 위하여 / 인권의 사각지대 - 정재원 30
여성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 여성과 여성문제 - 심은아 33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 - 정재원 37
▶역사와 논쟁
학생의 날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 광주학생운동과 학생의 날 - 성연이 41
6월항쟁을 되새기며 / 6월항쟁과 우리의 역할 - 박지훈 43
한국전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 한국전쟁의 이해 - 성연이 46
▶역사문화탐방
백마산 고분군을 다녀와서 / 백마산 고분군에서의 기억 - 황성하 50
ASEM PEOPLE'S FORUM을 다녀와서 / 민중의 역사 - 정재원 51
광주 5·18묘역을 다녀와서 / 자유 - 서청란 54
생초면 고분군을 다녀와서 / 생초면 고분밭 - 지종현 56
2000통일대축전을 다녀와서 / 통일의 그 아름다운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 이영석 57
탁본을 다녀와서 / 세컨드 탁본 - 이한빈 59
산청양민학살현장을 다녀와서 /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 이영석 60
한일역사교사교류를 다녀와서 / 희망을 발결하다 - 최보경 62
▶간디인과 함께
Red Hunt상영/ 4·3과 레드헌트 - 황성하 64
4·19혁명정신계승 마라톤 대회의 의의 / 그날의 함성을 오늘에 - 이지선 66
4·19마라톤 대회를 마치고 / 독재와 맞서싸운 그들을 생각하며 - 최정아 67
5·18문예대전의 의의 /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정재원 68
5·18민중항쟁 정신계승 문예대전을 마치고 / 잊을수 없는 광주의 그날 - 김슬기 70
5·18문예대전 최우수상작 / 5월에 내리는 비 - 구호열 71
5·18문예대전 출품작 / 5·18 도대체 무슨일이 - 박은혜 72
엄마 어딨어? - 변고운 73
USA - 최정아, 염이슬 74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님 - 이지선 75

바라는 것 - 최늘샘 76
기말 축전을 마치며 / 50년 세월의 긴 이별 뒤의 만남 - 이지선 77
몸짓전수를 다녀와서 / 아름다운 몸부림 - 이지선 83
▶나는 주장한다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 이영석 84
국가정보원의 만행을 규탄한다 - 이영석 86
▶자유기고
뜻으로 봐야 세상이 보인다 - 양희창 88
두발 자유화 주장과 지금 이 곳의 학교현실 - 이수광 90
▶정기총회 글
상반기 정기총회 자료집 / 통일염원 55년 상반기 정기총회 자료집 - 편집부 94
상반기 정기총회를 마치고 / 역사사랑의 진면목 - 최정아 99
하반기 정기총회 자료집 / 통일염원 55년 하반기 정기총회 자료집 - 편집부 100
하반기 정기총회를 마치고 / 역사사랑은 살아있다 - 김은혜 103
▶역사사랑이야기 / 역사사랑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성연이 104
▶신입회원 글
안녕하세요! - 김슬기 109
은혜의 첫 면접 - 김은혜 109
역사사랑에 가입하다 - 성연이 110
역사사랑이 좋아요 - 최정아 110
역사사랑에 가입해서 - 염이슬 111
▶우리가 보는 비디오 / 비디오로 보는 세상 - 편집부 112
▶역사사랑 회칙 - 편집부 116
▶광고 / 후원해주세요 - 편집부 119



4·19 혁명 정신계승 마라톤 대회 - 인상 죽이네!

여는 시

직녀(織女)에게

문병란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 채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
단 하나 오작교마저 끊어져 버린
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둣돌을 놓아
면도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선 채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그대 몇 번이고 감고 푼 실올
밤마다 그리움 수놓아 짠 베 다시 풀어야 했는가.
내가 먹인 암수는 몇 번이고 새끼를 쳤는데,
그대 짠 베는 몇 필이다 쌓였는가?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사방이 막혀버린 죽음의 땅에 서서
그대 손짓하는 여인아
유방도 빼앗기고 처녀막도 빼앗기고
마지막 머리털까지도 빼앗길지라도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

우리들은 은하수를 건너야 한다
오작교가 없어도 노둣돌이 없어도
가슴을 딛고 건너가 다시 만나야 할 우리
칼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이별은 이별은 끝나야 한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을 노둣돌 놓아
슬픔은 슬픔은 끝나야 한다, 연인아

회장 글

후회 없는 청춘을!!

이지선(2기 역사사랑 회장, 고2)

작년의 창간호 회지에 이어 이번 회지를 만들면서 지난날들을 되돌아보게 된다. 내가 역사사랑에 몸담은 지 벌써 이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역사사랑도 두 살이 다 되어가고 있다. 이년 전 처음 역사사랑의 모습을 기억에서 꺼내보면 아주 순수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애송이였었는데 지금은 그 애송이들이 몸으로 배우고, 느끼고,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있다. 역사사랑도 지난 이년동안 많은 변화를 한 것 같다. 회장과 집행부가 한차례 바뀌었다. 지도교사는 최보경 선생님그대로… 몇몇 아이들은 역사사랑을 탈퇴했고, 그만큼 신입회원도 생겼다. 간디인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과 추억도 많다.

동아리 활동을 해 나가면서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뚜렷한 역사의식을 가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왜곡된 역사의 진실에 대해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주위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았다. 우리들의 표현이 그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고 배척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리고 동아리에 대한 압력도 많았다. 이럴 땐 동아리 활동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픈 맘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었다. 좀 더 솔직해 진다면 나에게도 그 진실을 거부하고픈 적이 있었다.

국정교과서의 역사가 전부였던 나에게 역사사랑 활동으로 배운 역사는 아주 많은 혼돈을 가져다주었다. 진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섰다. 하지만 그 역사 속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에 용기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나 역시 그 역사를 차라리 몰랐더라면 이런 혼란과 두려움은 없었을 거란 생각에 그 진실을 거부하고 싶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걸러서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진실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 역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줘야 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뛰었다. 사소한 말다툼도 잦았고 힘 빠지는 일도 한 두 가지가 아니었으나 끝까지 참고 잘 이겨내었다. 이런 노력들이 밑거름이 되어 지금의 동아리 활동은 아주 빛을 발하고 있다.

내가 회장이란 직책을 맡으면서 앞으로의 각오도 있었지만 전 1기 회장인 영석 오빠의 많은 활약 때문에 그 만큼의 부담감을 함께 안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부담감 때문이었는지 동아리 활동 중간 중간에 보이는 나의 긴장된 모습에 격려와 지적을 함께 많이 받았지만 그걸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최보경 선생님께서 나에게 말씀해주셨다. "너는 지도자가 되어야지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동아리를 이끌어 가면서 항상 이 말을 가슴속에 새겼다. 지금의 나는 그런 부담감을 극복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가끔씩 나에게 지배자의 모습이 보일 때에는 나도 모르게 놀라고 매번 후회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지배자가 아닌 지도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는다.

이제 시간이 흘러 반 학기가 남았다. 그 동안의 많았던 역사사랑의 활동에 대한 충분한 반성을 토대로 앞으로 더 많이 남아있을 역사사랑에서의 내 역할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 후회없는 활동이 되도록, 학생시절의 가장 진한 추억이 될 만큼 온 힘을 쏟아 청춘을 불태워야겠다.

회장 임기를 마치고

젊은 열정과 패기를 위해!!

이영석(1기 역사사랑 회장, 2기 역사사랑 고문, 고3)

난감했다. 회장 지선이와 편집부장 연이는 날 가만히 두질 않았다. 연일 '고문 글, 고문 글' 하며 날 괴롭혔다. 도대체 '고문 글'이 뭐길래…

나는 역사사랑 회칙에 의거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회장을 역임했다. 하반기에는 회장에서 물러나고 지선이가 회장에 선출되었다. 그 이후 역사사랑 초대 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붙여진 참으로 이상한 자리가 다름 아닌 '고문'이다. '고문글'은 말 그대로 고문이 쓰는 글이다. 지선이와 연이가 날 닦달한 것은 게으른 내가 몇 주가 지나도록 글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사랑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회장이 할 일이라 보고, 난 내 개인적인 글을 허심탄회하고 솔직담백하게 쓰겠다. 물론 '역사사랑'에 관련된 글을.

하반기에 회장이 바뀐 이후, 내가 역사사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 생각은 게으른 나를 더욱 게으르게 만들어 역사사랑과 관련된 일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 이번에 회지 글 제출 기한을 훨씬 넘겨서 이제야 글을 쓰는 것만 봐도 그게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부끄럽다. 회장자리를 넘긴 이후에도 많은 역사사랑 친구들이 '고문'이란 영광스런(?) 호칭을 붙여 줬는데… 미안하다. 그렇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회장을 맡았을 때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정기모임이나 답사 갈 때에 빠진 적은 있어도 내 게으름 때문에 활동을 게을리 한 적은 절대로 없다.

그 당시에 문득 떠올랐던 것이 있다. '봉사'. 조금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난 어느 순간부터 역사사랑이란 동아리에 봉사의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단순히 내가 아닌 다른 역사사랑 친구들을 위해 봉사하는 차원으로 말이다. 하지만 회장자리를 떠난 지 반년이 지나고 졸업을 앞둔 지금. 발상이 전환되었다. '봉사'에서 '배움'으로. 정말 열심히 봉사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배웠음을. 이제야 느끼게 되었다. 역사사랑 친구들과 최보경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드린다.

난 이제 사회라는 험한 정글에서 모험을 하게 된다. 사실 꽤 오랜시간동안 사회에서 무엇을 하며 사느냐란 고민에 빠졌었다. 그 때, 역사사랑은 내게 이렇게 물었다. 뭘 하며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그 해답까지 주었다. 이제 난 그 해답에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이다.

모두가 입을 모아 얘기한다. 사회는 만만치 않은 거라고. 하지만 내게 있어서 사회란 놈은 별게 아니다. 만만하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 배운 기본 윤리를 실천하며 살면 될 것 같다. 아직 사회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역사사랑의 가르침이 그것이었으니, 도덕 교과서처럼, 거기에 불타는 젊음의 열정과 패기를 더해, 정말 열심히 살련다. 정말 열심히…

끝으로 역사사랑 친구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 언젠가는 나처럼 역사사랑이 실로 많을 걸 준단 사실을 깨우칠 것이니, 열심히 활동해라. 난 너희들 모두를 사랑한다. 너희들 모두는 나보다 젊기 때문이다.

편집부장 글

회지와 나

성연이(2기 역사사랑 편집부장, 고1)

편집부 한 번 맡아보겠다고 손 번쩍 들었을 때 나라고 막무가내로 지원 했던건 아니었다. 중학생활중에 교지편집부도 했었고, 이왕 뭔가 해보려면 비중 있는걸 맡아서 동아리에 열의를 가져보는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요모조모 나름대로 많이 생각했었는데 역시 실전에 부딪히니 문제가 장난이 아니었다. 무언가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 넣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도대체 '역사'를 다루며 획기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 걸까, 고민만 수차례 했다. 역시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찬 작업이었다.

새로이 탄생시키자는 생각보다 작년회지의 미숙했던 점과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2000년도 회지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보완하면서 작년 것 보다 한 차례 더 발전하고 성숙한 회지를 내놓자고 마음먹었다.

편집부장의 마음가짐은 됐고 다음 문제는 역사사랑 전 회원들의 글을 받아내는 일 이었다. 끈기 있고 고집 센 역사사랑 회원 분들답게 정말 글도 오랫동안 붙잡고 내지 않으셨다. 물론 너무 미안할 정도로 빨리빨리 내주시는 회원 분들도 계셨지만.

간단한 글인데도 '역사' 라는 큰 주제 안에 들어간다는 생각 때문이었던지 내 수정작업은 항상 근엄한 말로 바꾸는 게 연속이었다. 그러다가 생각을 바꿔먹고 원래대로 글을 재수정했다(이 작업이 더 힘들었다). 한해동안 역사사랑의 흔적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이라 할 수 있지만 회원 개개인의 추억을 새긴다는 의미도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에 나타난 회원들의 감정표현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회지가 팔딱팔딱 뛰노는 기분이 든다..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 같다..-_-; 뭐.. 역사와 논쟁 같은 무거운 주제들이 가라앉혀 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다.

회지작업 이라는 것이 밤까지 오랫동안 붙잡고 있지 않아도 하루를 끝낸 밤이면 항상 "아.. 피곤한 하루였어." 하고 지친다. 하루동안 집중하며 살아서 그런가. 꽤 오랜만에, 아니면 처음으로 몰두 해본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고단한 워드작업이, 눈부신 모니터 화면이 즐거워 졌다.

회지 만드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 영석이 오빠랑 특히 보경샘, 그리고 지선언니에게 꼭 고맙다고 이야기 해야 겠다. 그리고 글 써달라는 부탁을 싫은 표정 안 하고 꼬박꼬박 들어주신 역사사랑 회원 분들에게 가장 큰 감사를 드린다.

지도교사 글

우리 당당하게 살자!!

최보경(역사사랑 지도교사)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사랑 친구들!!

먼저 통일염원 55년 2000 회지를 훌륭하게 만들어낸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려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나온 지난 1년과 역사사랑 2년이 마치 영화필름 되감 듯 스쳐 지나가네요. 유쾌하고 즐거운 기억도 있었고, 슬프고 가슴 아픈 기억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모든 우리 역사사랑과 역사사랑인의 삶이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정기총회 때의 회원 간의 따뜻한 마음과 역사사랑의 나아갈 방향성의 고민들… 4·19 혁명 정신계승 마라톤 대회에서의 당참과 활기… 5·18 망월동 성지 순례와 광주민중항쟁 정신계승 문예대전, 사진 전시회에서의 진지함과 맑은 눈빛…기말 축전 행사인 북녘 동포 바로 알기 O·X퀴즈대회, 통일의식조사, 통일꽃 붙이기에서 전 간디인과 함께 나눈 사랑… 우리가 도시락 사들고 다닌 백마산 고분군, 생초면 고분군, 탁본, 산청양민학살현장… 너무도 생생하게 마치 금방 있었던 것처럼 다가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벅찬 감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서 주최한 참교육 실천 사례 및 교육자료 공모전에서 당당히 전국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었을 때의 기쁨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노력, 눈물과 땀의 결실이라 생각해요. 우리 여기서 자만하지 않을 거죠? 더욱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알았죠?

하지만 우리에게 늘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역사사랑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들… '역사사랑은 좀 그렇다더라…', '역사사랑은 보경쌤 때문에 탈퇴도 못한대…', '너무 한 쪽에 치우친 사고를 주입시키는 것 아닌가…', 등등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은 이야기들이 난무하기도 했어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오해 반 걱정 반 섞인 충고와 조언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역사사랑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비난이 있을 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답니다. 역사사랑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순수한 학생자치 동아리로 어떤 동아리 보다 더 열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 왜곡되고 숨겨진 역사를 다시금 객관적 입장에서 이해해 보고 토론하고 그 현장을 직접 찾아 가는 것을 비난했을 때 여러분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클까 생각해 보면 지도교사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께 죄송한 맘을 지울 수 없어요. 이런 말 저런 말 때문에 고민하다 역사사랑을 떠난 친구들께는 더욱 미안해요.

그러나 우리 좌절하지 말아요. 우리 가는 길이 진실이라면, 우리 가는 길이 옳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우린 당당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부끄럽지 않음을 행동으로 실천해 보여 주자구요. 그러면 불신하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풀고 믿고 함께 해 줄 것이라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감정을 앞세우는 모습이 보여서 말이에요. 우리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지는 말아요. 우리도 가슴을 열어야 할 것 같아요. 세상에

는 하나의 사물을 두고도 판단하는 눈은 다 틀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가슴을 열고 너무 서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요. 알겠죠?

우리 역사사랑을 아껴주며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 모르죠?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사랑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분은 일본에도 많이 계세요. 일본의 반전 반핵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역사사랑과 작년 회지를 보시고는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번 회지 2000이 완성되면 일본 선생님께도 보내드릴 생각이에요. 무척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올 한해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 왔어요. 시련과 좌절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굴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 온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안녕~



11월 12일 보경샘이 드디어(?) 결혼 하셨어요! 고1과 함께

남명 조식

염이슬(2기 역사사랑 신문부, 중1)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 산청에 대해서 알아보며 향토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의미임이 틀림없습니다. 역사사랑 에서는 산청에 몸담으시면서 조선 성리학에 큰 이바지를 하시었던 남명 조식 선생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기회를 노려보기로 하였습니다. 짧은 전기문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산청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 글은 산청군에서 펴낸 '선비의 고장' 이라는 책자에서 참고 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조선 중기 대 유학자 남명 조식은 실천 성리학의 대가였다. 선생의 자는 건중, 본관은 창녕이고 호는 남명이다. 합천 삼가 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합천에서 보내다가 7세 때 아버지 언형이 문과에 급제하자 부친의 임지로 따라다니면서 정치의 특실과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눈여겨보게 되었다.

19세 때 기묘사화로 조광조 등과 숙부가 연루되어 죽고, 아버지도 파직된 후 이내 세상을 떠나자 어진 사람들이 간신배에 몰려 경륜을 펴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였다.

25세 때 원나라 학자 허형이 "벼슬에 나아가서는 이룬 일이 있고, 물러나 있으면 지조를 지켜야 한다. 벼슬에 나아가서도 이룬 일이 없고, 물러나 있으면서도 아무런 지조가 없다면 뜻을 둔 것과 배운 것이 장차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한 구절을 보고 크게 깨달아 과거를 포기하고 30세 때 처가가 있는 김해 신어산 밑에 산해정을 짓고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38세 때 이언적등의 천거로 헌릉 참봉에 제수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45세 때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평소에 친분이 두터웠던 이림, 곽순, 성우등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들이 화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욱 벼슬할 뜻을 버렸다.

48세 때에는 고향 삼가로 돌아와 뇌룡정, 계부당을 짓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48세 때 전생서 주부, 51세 때 종부시 주부, 55세 때 상서원 판관, 단성현감에 제수 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선생의 상소 중 "대비(문정왕후)는 진실로 생각이 깊지만 궁궐 속의 한 과부에 불과하고 전하는 돌아가신 임금의 어린 고아일 따름일 뿐입니다." 라는 구절은 조야에 큰 파문을 일으켜 처벌하려 했으나, 산림처사가 나라를 걱정하는 상소를 책잡아 처벌하는 것은 언로를 막는 부당한 조처라 하여 무사하였다. 이때 벌써 선생의 명망은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산림처사를 대표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 부조리가 만연하던 당시의 정치 상황에서 선생의 과감한 직언은 산림처사의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61세 때 지리산 아래 덕산으로 옮겨 산천재를 지어 제자들을 가르쳤다. 65세 되던 을사사화 때 유배되었던 선비들이 조정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 이듬해 다시 임금으로부터 부름이 있자 선생은 조정도 맑아졌고 임금의 교지도 거듭 내리니 군신의 도리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임금을 독대하였다. 명종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묻자 선생은 '정치제도의 혁신, 인재의 등용, 임금 자신의 학문에 힘쓸 것 등'을 건의하였다. 선생은 평생토록 쌓은 학문과 경륜을 한 번 펴 보기로 결심했으나 명종과 대화를 나눈 후 자신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 7일만에 돌아왔다.

선조가 즉위 초에 여러 차례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고 역대 임금들이 나라 다스림에 실해한 사례를 지적하고서 '나라 다스림의 길은 임금 자신이 학문과 인격을 닦는 데 있습니다' 라는 상소를 올려 어린 선조가 정치를 잘 해낼 수 있는 바탕을 닦도록 간언 하였다.

72세 때 선생은 산천재에서 일생을 마쳤다. 임종시에 제자 김우옹이 "명정에 어떻게 쓸까요?"라고 물으니 선생은 "처사라고 쓰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다고 한다. 선조는 곧 예관을 보내어 제사 지내고, 대사간을 추증하였고, 광해군 때에는 문정공이란 시호가 내려지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선생은 경의를 중시했는데 마음이 밝은 것을 경이라 하고 외적으로 과단성이 있는 것을 의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바로 경으로써 마음을 곧게 하고 의로써 생활해 나간다는 의리 철학 또는 생활철학을 표방한 것이다. 그는 일상생활에서도 철저한 절제로 일관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소학논어, 대학 같은 실천적인 경전을 먼저 가르쳐야 하며 고수방법도 자해자득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예는 곽재우등 선생의 문하생들이 임진왜란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선비의 몸으로 의병활동에 참여 투철한 선비정신을 보여준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학풍과 선비정신은 조선말까지 이 지역에 면면히 이어져 남명선생의 영향이 지대했다고 할 수 있다. 퇴계와 더불어 영남유학의 쌍벽을 이루었던 그 이었지만 일체의 벼슬을 마다하고 지리산 자락에 은둔했던 한 시대의 거대한 봉우리가 우리나라 정신사에서 지리산의 무게만큼 크게 자리하고 있다.



답사는 계속된다! "달리는 청춘 실천하는 청소년의 삶!"

1, 2기 회장에게 듣는다

역사사랑은 어떤 동아리인가?

성연이(2기 역사사랑 편집부장, 고1)

이 글은 간디학교 뿐 만 아니라 외부에도 알려져 있는 역사사랑이 어떤 동아리인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의 물음을 가지고 1,2기 회장과 2기 편집부장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것을 편집한 글입니다. 학교 내에서도 많은 오해를 받았던 역사사랑을 이끌었던,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역사사랑에 임하였는지, 앞으로 어떠한 비전으로 역사사랑이 나아가야 하는지를 솔직하고 담백하게 기록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연이 : 첫 번째 질문은 좀 심각한 거. 근래 들어서 역사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얘기든 싫은 얘기든 예전보다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애. 내 생각엔 선생님들 뿐 만 아니라 이제는 학생들도 역사사랑의 이념성에 대해 비난과 비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영석 : 역사사랑이 이념 동아리라는 것은 인정해. 그렇지만 이념 동아리라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고쳐야 할 대상도 아니야. 모든 동아리나 사회단체는 이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역사사랑도 이념을 가지고 있어. 문제는 철저한 반공이데올로기의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의 이념이 안 좋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지선 : 학생들 역시 아직까지도 반공교육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없이 우리의 표현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함께 공감할 수 없고, 낯설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지. 언젠가는 역사의 진실은 밝혀지게 되잖아, 고로. 우리는 그 날까지 진실을 위해 뛰면 되는 거야. 우리 모두 함께 말이지

연이 : 우리 동아리를 일부 선생님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시잖아, 이런 눈길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적이 있어?

영석 : 있어, 지난 5월에 광주 망월동으로 답사 가고 나서 소식지에 우리 역사사랑 회원 중 한 명이 소감문을 써냈는데 문제가 됐던 내용이 있었어. 그 때 봉고 차를 타고 갔었는데 창문에 '반미조국통일'이란 격문을 붙였거든. 그걸 소감문에 썼어. 그 내용을 읽으신 한 선생님이 "왜 그런 글귀를 붙이고 갔느냐"고 하시면서 지난 역사사랑의 모든 활동을 비난하신 거지. 하지만 나는 떳떳했고. 따라서 그 선생님과 당당하게 논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연이 : 음- 영석오빠는 작년 초부터 올해 1학기까지 회장이라는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했잖아. 이제 회장자리 물려주고 기분이 어때?

영석 : 글쎄, 뭐 회장자리는 떠났지만 아직도 역사사랑의 정신적, 경제적인 지주(?)는 나니까 심적 변화를 못 느끼고 있어. 단지, 졸업을 앞두고 역사사랑을 떠날 때가 되니 슬퍼지지. 그래도 지선이가 잘 이끌어 나가리라 믿고 많은 역사사랑 회원들이 함께 해서 멋진 역사사랑이 될 거라는 생각을 위안으로 삼고 있어.

연이 : 오빠 회장임기 동안에 특히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거 있어?

영석 : 지난 해, 회지 만들 때가 기억난다. 150여 쪽이나 되는 분량을 다 읽고 수정, 편집하는

작업은 고통 그 자체였지. 그런데 지금… 그때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고 있어…

연이 : (웃어 넘기며) 지선언니, 2기 회장이라고 부담이 많았다면서? 지금은 마음이 좀 어때?

지선 :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야. 이영석 전회장의 빛나는 업적이 나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웠거든. 동아리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다 보니 긴장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 하지만 지금의 나는 매우 안정된 상태야. 걱정할 필요는 없고…

연이 : 이제 역사사랑이 어떠한 동아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회장으로서의 소망 같은 거 있어?

지선 : 작년에는 역사의 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압력을 좀 받았었지. 지금도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활동하기에는 많이 나아졌어. 여기서 나아진 것에 대해 만족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활발한 활동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왜곡된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어 다시는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연히 우리가 주역이 되어야 하고… 이게 내가 역사사랑에 바라는 소박한 소망이지…

연이 :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편집부장 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대단하다. 답변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노작하고 시험 때문에 바쁠 텐데. 고마워^_^



언제나 행복한 역사사랑. 임수근 웃어라! 이슬이 눈 떠!

한미행정협정을 통해 본 한미 관계

정재원(2기 역사사랑 교육부장, 고2)

점차 밝아오는 통일시대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불평등한 한·미 관계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불평등한 한·미 관계의 최대쟁점이 되는 것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이고 새천년을 맞이하여 이 불평등 조약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되어 평등한 조약을 맺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짐이 한 민족의 통일을 향해서 나아갈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정재원님께서 이런 맥락을 중요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세히 읽어 주신다면 한·미 관계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편집자주

들어가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지역 및 대한민국에서는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여기서 한미행정협정이라 한다.) 한미행정협정의 모델은 1951년12개 당사국간에 체결된 NATO협정이다 본 협정만 본다면 NATO협정을 따랐다고 할 수 있으나 부속 문서(합의의사록, 양해사항)에 의하여 본 협정의 내용이 왜곡 변질되어 한국의 주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미군정시대에는 한국의 주권이 없었고 남한단독정부가 수립되자 주한미군의 지위문제로 협정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미군의 기지 및 시설에 관한 사용권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1949년 미군의 철수로 종료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이 다시 우리나라에 진주하게 되었고 전쟁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미군에게 일체의 재판관을 부여한 대전협정을 체결되고 경제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이어 협정이 연이어 체결된다. 전쟁시대에 맺은 대전협정은 1967년 한미행정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무려 13년이 걸렸고 불평등한 SOFA협정이 1991년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기까지는 24년이나 걸렸다. 1991년에 한미행정협정이 부분적으로는 개정이 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개정되지 않고 본 협정의 내용을 왜곡 변질시키는 부속문서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권을 저해하고 있다.

1. 형사재판권(22조)

1)인적인 범위

본 협정의 1조 정의에 의해서 가족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정의하고 있다. 가족을 배우자 및 21세미만의 자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라 규정하고 있다. 본 협정의 22조 1항에 따르면 합중국 군당국은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경우 미국이 형사 재판권을 가지는 범위가 너무 넓다. 또 초청계약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권 조항의 적용 대상자는 아니다. 다만 주둔군의 임무 수행에 기여하는 그들의 역할을 감안하여 그들의 범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체포, 구금, 자유형의 집행, 피고인의

권리 등에 대해서는 본 협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에는 없는 형사상의 특권이다. 초청계약자에 대하여 형사상의 특권을 부여한 필요는 없다.

이런 예로 1998년 미 범죄수사단 단장의 아들이 임신부를 폭행, 희롱하였으나 군인가족이라는 이유로 미군관할로 인도되었고 그 뒤 사건처리는 흐지부지 되었다.

2)전속적 재판권

본 협정의 22조 2항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당국이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가지며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한 이들의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협정의 항은 나토협정과 미일협정과 동일한 규정이다. 그러나 그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에 한국이 가지는 전속적재판권을 합중국 당국이 군속 및 가족에 대해 피할 수 있는 행정적 체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전속적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차적 권리를 자동적으로 포기하도록 매우 불평등한 조항으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91년 개정때 합중국 당국은 전속적 포기를 요청함을 자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불평등한 조항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3)1차적 재판권

합중국 군 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관한 범죄,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신속히 타방 국가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타방 국가의 당국으로부터 그 권리 포기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22조 3항)

그러나 합의의사록에 제3항 (다)에 의한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특별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은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1년 개정 때는 대한민국이 행사 할 수 있는 1차적 재판권의 대상도 대한민국 안전에 관한 범죄, 살인, 강도, 강간으로 한정하였으나 1차 개정 시 이러한 것이 폐기되고 새로운 양해사항에서는 한국이 1차적인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국에 그 권리를 포기하도록 규정하였다. 재판권 포기요청은 범죄발생을 알게 된후 21일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14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 결정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는 요청당사국이 경합적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91년 개정 후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통계를 보면

구 분	88	89	90	91	92, 1-8
계	1,266	1,117	974	1,041	642
행 사	6	10	9	14	10
포 기	1,260	1,107	965	1,027	632

91년 개정전과 개정후의 재판권 행사의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자동포기 조항은 폐기되었지만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하는 조항은 그대로 있지 때문에 이 역시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

4)형사절차상의 문제

가. 체포

주한미군이 협정의 대상자를 체포하였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에만 체포사실을 대한민국 당국에 알리고 대한민국이 협정의 대상자를 체포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더라도 무조건 합중국 군 당국에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금 및 인도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협정의 대상자가 미국당국에 있을 때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미군당국이 구금을 행하고 종결된 후에야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의자가 대한민국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미군당국이 요청을 하면 미군당국에 인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요청할 경우에는 미군당국이 호의적인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한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인도하도록 되어 있다.

4)형 집행

협정대상자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경우에도 합중국 군 당국이 요청을 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을 매우 불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매우 불평등한 조항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5)피고인의 권리

가. 미국관리가 참가 없는 신문조서의 증거부인

협정의 22조 9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재판권에 의해 공소가 재개되는 때에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 교통할 권리 및 자신의 재판에 그 대표를 입회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합의의사록은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하는 권리는 체포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또한 대표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고 대표는 피의자 피고인이 출석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 및 재판후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나. 재판거부권

합의의사록 제9항에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가족이 가지는 권리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일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조항이다.

다. 검사의 상소권 제한

합의의사록 9항에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검찰의 상소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사찰권

합의의사록 제9항에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구금되었거나 그러한 개인이 구금될 구금시설을 사찰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합중국 군대의 구성

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이용될 시설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소한의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역시 사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조항이다.

6)경찰권행사

본 협정2조에 따라 사요하는 시설이나 구역(이하 시설과 구역)안에서 주한미군 당국이 배타적인 경찰권을 갇고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과 구역 안에서 주한미군당국은 협정대상자나 대한민국 국민까지 체포, 압수, 수색등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대한민국 당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체포, 압수, 수색등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미군당국이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시설과 구역은 양국에 의하여 확장이 가능한데다가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경찰권까지 미군당국이 행사하는 관계로 사실상 미군기지와 그 주변은 대한민국의 힘이 전혀 미치지 못한다.

마치면서

한미행정협정의 기본적인 골격은 나토협정 등 다른 나라와의 협정과 같으나 그 부속문서에 의해 본 목적이 왜곡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으로 형사재판권과 청구권 등에서 보여지는 불평등한 조항은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자유 및 생존권을 크게 침해하고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상호평등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한미행정협정은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과 식민지나라 사이의 예속성과 종속성을 띄는 불평등한 협정이다. 그러므로 한미행정협정은 우리의 자주권 문제로 폐기 또는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협정이 전면 개정 또는 폐기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강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미군범죄에 관해 재판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유치시설 및 담당형사 부족 등 정부의 의지를 알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 없이는 정부가 존재할 수 없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지금에 한미관계는 과거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배금자)
2.한미행정협정 전문 및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
3.형사 재판권 및 환경조항에 관한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의 비교(장주영)
4.미-호주 SOFA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교수)
5.주한미군 범죄일지(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6.NATO-SOFA와 독일보충협정상의 형사관할권 및 환경관련규정(최승환)
7.SOFA의 역사(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운동본부)
8.SOFA운용에 관한 주한미군 입장
9.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운동본부)

국가보안법과 우리의 삶 그리고 청소년의 역할

김은혜(2기 역사사랑 답사부장, 고1)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세기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새천년을 맞이하여서라도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사랑인들의 생각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죄 없는 독립투사들을 수도 없이 잔인하게 희생시켜왔고 그것이 모두에게 고루 평등하게 적용되어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법도 아닙니다. 이러한 뜻을 담아 김은혜님이 국가보안법전문과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 적용사례들을 인용하여 이 법이 얼만큼의 악법구실을 하고 있고 또 왜 철폐되어야 하는지를 논하셨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국보법이 우리의 실생활에 얼마나 적용되는지를 실감하시고 심각성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자 주

1. 탄생의 배경과 의도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자본주의의 이식, 사회주의자에 대한 탄압의 필요성, 반공이데올로기의 유지가 결합되어 공포, 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구성되었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공, 반 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후 정권의 독재강화로 국가보안법은 확대,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 개정이,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은 '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미군정에 이어 1948년 8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났으며, 다시 이 사건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받은 여수. 순천지구 주둔 제 14연대와 그 인근 주민들에 의해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남로당과 그 외곽조직은 이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신생정부는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형법이 제정되기 5년 전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개정된 첫날부터 미국의 식민지통치와 역대 사대매국 정권 집권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이 법은 사사오입 개헌 이후 위기에 처한 이승만 정권에 의해 1958년 12월 24일 경찰이 동원된 가운데 개악이 되고, 4·19혁명에 의해 탄생된 제 2공화국 하에 불고지죄가 신설되었다. 1980년 5·17군사 쿠데타 세력이 주도한 '국가보위법회의'에서 박정희 시대의 반공법을 통합해 현재의 국가보안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니 벌써 50년이 되었다. 동시에 그해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바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 제 9조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은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는 조항과 그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다 알다시피 일제가 식민지 조선민중의 사상통제와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며 황국신민회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던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었다는 데서도 드러났듯이, 제정될 때부터 정치적 악용·반민주악법·사상탄압·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 가능성 때문에 대부분이 우익세력으로 구성된 제헌국회에서조차 47명의 국회의원이 폐기동의안을 낼 정도였다.

2. 국가보안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1)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 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91.5.31)

제2조 (정의)

(1)이 법에서 "반 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

(2)삭제 (91.5.31)

제2장 죄와 형

제3조 (반 국가단체의 구성 등)

(1)반 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타인에게 반 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제1항 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제4조 (목적수행)

(1)반 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 제99조. 제250조 제2항. 제338조 또는 제340조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 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정된 사람에게만 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 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 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 제119조 제1항, 제147조, 제148조, 제164조 내지 제169조, 제177조 내지 제

180조, 제192조 내지 제195조. 제207조, 제208조, 제210조, 제250조 제1항, 제252조, 제253조, 제333조 내지 제337조, 제339조 또는 제34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 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 유인하거나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 취거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궤, 은닉, 위조, 변조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 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제1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 금품수수)
(1)반 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2)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 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잠입 탈출)
(1)국가의 존위.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 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2)반 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稈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삭제 (91.5.31)
(4)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5)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7조 (찬양. 고무 등)
(1)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 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2)삭제 (91.5.31)
(3)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 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개정 91.5.31)
(4)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5)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6)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7)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8조 (회합. 통신 등)
(1)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 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2)삭제 (개정 91.5.31)
(3)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4)삭제 (개정 91.5.31)
제9조 (편의 제공)
(1)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 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2)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점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 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1.5.31)
(3)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삭제 (개정 91.5.31)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 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91.5.31]
제11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 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무고. 날조)
(1)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 (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 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94조 제2항, 제97조 및 제99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1.5.31)

제15조 (몰수. 추징)

(1)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91.5.31)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조 (참고인의 구인. 유치)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인할 수 있다.

(2)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1)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3)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 (공소보류)

(1)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2)제1항에의 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3)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 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4)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 구속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조 (상금)
(1)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2)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3)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보로금)
(1)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반 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 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3)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91.5.31]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1)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1.5.31)
(2)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 사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 중 판사는 군사법원 관할관으로, 검사는 군사법원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 경찰관으로 본다. (개정 87.12.4)

3. 국가보안법의 문제와 적용사례

법이란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럴 때 우리는 그 법을 믿고 지킬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은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일까?

얼마 전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하였다. 여러 언론매체에서 북한에 관한 보도를 많이 해주었고, 우리는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우리 나라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지도자가 나란히 웃으며 서서 사진을 찍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봤다. 엄연히 따지고 보면 이 일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 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는 반 국가단체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합, 통신을 해서는 안된다.(국가보안법 제 8조 참고) 그렇다면 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김대중 대통령은 그에 따른 징계를 받느냐? 물론 아니다. 몇 열전 이와 같은 일이 대통령이 아닌 어느 평범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면, 그래서 둘이 나란히 웃으며 찍은 사진이 발견되었다면 그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평범한 사람은 그에 따른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이다. 그럼 여기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자.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①인민혁명당 사건

1975년 4월 8일 39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24시간도 채 못되어 8명이 처형되었다. 이 8명은 소위 인혁당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당시 황산덕 장관이 밝힌 인혁당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자. 인혁당은 '남한에 강력한 지하당을 건설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1년 남파된 간첩 김상한이 재남 공산주의들을 규합하여 1962년 1월에 조직한 지하당이다. 인혁당은 그 후 거의 지하에 잠복해있는 상태이다가 1972년 7월 4일 남북대화의 시작을 틈타 지하활동을 강화, 1973년 10월 이후의 학원소요와 유류 파동, 개헌청원서명운동 등이 일어나자 제2의 사일구로 사회혼란을 조성, 민중봉기로 정부를 전복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속단, 인혁당 재건을 완료하고 학생들을 선동,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을 기도하다가 검거된 것이다.

인혁당 관련자들을 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반공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 갖가지 죄명이 붙여진 채 기소되었다. 인혁당 관련자 21명에 대한 세 번의 재판을 거쳐,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송상진, 이수병 ,우홍선, 김용원 7명에게는 사형판결이 내려졌고 1975년 4월 9일 위 7명과 학원관계자 여정남 이렇게 8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렇다면 인혁당 재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공안당국의 발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허구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인혁당 관련자들은 5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대체로 자택에서 검거되었는데 이들은 인혁당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고도 피신하지 않았으며, 공안당국이 말하는 '치밀한 조직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한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인혁당 또는 인혁당 재건이라는 말은 법정에서도 전혀 나오지 않을 정도였고 피고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보당국이 발표했던 것이며 인혁당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인혁당 간부 또는 인혁당 당원으로 둔갑하였다. 또 이들과 접선했다는 간첩 김상한에 대해서 도예종씨는 "김상한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만난 사실도 없고 우홍선으로부터 일언반구의 이야기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당국은 인혁당 사건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증거나 단서를 제시하지 못했었다.

박정희 정권이 그처럼 사건을 조작하고 소위 관련자를 사형에 처해야 했던 것은 당시 정권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권은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 2호를 발동하고 연이어 4호를 발동하였다. 그 해 8월 15일에는 재일 한국인 2세 문세광이 박정희를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제적으로도 60년대 이후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체제는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고, 대 중국 외교성립 및 닉슨 독트린과 75년 베트남 전 패배를 계기로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도 지배적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5년 리마에서 개최된 당시 비동맹국 외상회의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라는 이유로 가입이 거부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국내적으로 가혹한 탄압을 유발시켰던 것이다.

특히 인혁당 재건 사건은 민청학련 사건을 반공법, 국가보안법, 긴급조치 4호로 완전히 붉은 물로 채색해버리기 위해서 그 배후조종 세력으로 조작된 것이었다. 박정권은 국가전복을 기도하려는 폭력혁명의 실행집단으로서의 민청학련, 해외 공산기지의 지원자로서의 일본인 기자, 전 대통령 윤보선까지를 포괄하는 대야를 배후 조종 지원세력으로 하여 북한과 직접 연관도 갖고 있는 조직으로서 인혁당이라고 하는 거대구조물을 만들어냈다.

인혁당 사건의 재판은 '정찰제 사형판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은 채 8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사형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처형되었고 시체마저 내어주지 않았다. 특히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했던 여정남씨는 정보기관에 의해 가장 잔혹하게 파멸되었던 사람이다. 민청학련과 인혁당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조작이 필요했으므로 그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한 고문을 받았고 시체마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화장되었다. 그를 석방시켜주거나 면회를 시켜주면 자신들의 잔학상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②<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7·27. 진주시 우리서점 대표 정대인씨가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고 아울러 당시 연행과정에서 경상대학교 교양과정 교재로 사용되던 {한국사회의 이해} 13권이 압수되면서 소위 '한국사회의 이해사건'이 터지게 되었다. 비록 정대인씨는 다음날 바로 석방되었지만, 며칠후인 8·2 최환 대검공안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익명을 요구하며 대학교양교재의 내사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라디오 및 TV가 이를 보도하고, 다음날인 8·3 일간신문이 이를 일제히 보도하면서 한여름 신 공안정국은 그 절정에 달하였다. 당시 공안당국의 설명은 경상대 장상환, 정진상 교수 등 9명이 1990년 집필하여 4년간 대학교양교재로 사용되어 오던 "한국사회의 이해"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고, 이후 공안당국은 이들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시도하면서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한편 이에 대하여 국립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단회의, 전국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1개 단체는 같은 달 9일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이같은 공안당국의 처사는 학문, 사상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규정짓고 이를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후 위 위원회 및 기타 단체들이 계속해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소환 및 구인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고, 동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다가 같은 달 30일 해외체류중인 백좌흠 교수를 제외한 8인의 교수들은 구인에 응하였다. 이후 이들을 구인한 검찰은 같은 날 장상환, 정진상 등 2인의 교수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최태룡, 이혜숙, 김준형, 이창호 교수는 불구속입건하고, 김의동, 송기호 교수는 수사 종결하였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담당판사 최인석판사)은

같은 달 31일 검찰의 2인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후 검찰은 같은 해 11·30. 장상환교수, 정진상교수 등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준형, 이혜숙, 이창호, 최태룡교수 및 도서출판 지이 대표 임경숙씨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 해외체류중인 백좌흠교수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③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1985년 봄은 격동의 시기였다. 2·12 총선 에서 폭발적인 민중의 지지를 얻은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하여 전두환 정권 통치체제의 한쪽에 균열을 내고 있었고 학생운동에서는 80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적 연대조직인 전학련, 삼민 투가 조직되었다. 또한 미국은 한국에 친미적인 민간보수정권의 수립을 통한 안정적 체제로의 이전을 검토하는 가운데 <타임>, <뉴스위크> 등을 이용해 은근히 '한국의 민주화'를 부채질하고 있었다. 이에 전정권은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다. 민중들의 투쟁을 잠재우고 다시금 지배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 그것은 바로 역대독재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었던 반공이데올로기 공세였다.

1985년 9월 9일 각 언론에서는 안기부가 제공한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 수사발표문'을 사건 그림표와 함께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김성만은 지난 1982년 8월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유학 중, 재미반정부지로 위장한 <해외한민보>의 발행인이며 북괴 공작책으로 평양을 수차례 다녀온 서정균에게 포섭되었다. 김은 1983년 7월 헝가리 주재 북괴공관에서 간첩교육을 받고 국내에 잠입하여 미국 등 우익세력을 제국주의적 민족반역집단으로, 반공을 민족분열을 책동하는 냉전논리로 매도하는 내용의 반미 소책자 <예속과 함성> 300권을 제작하고..." 양동화의 입북, 김성만의 헝가리 동독 방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당국은 이를 학생운동탄압을 위한 절호의 소재로 생각하여 수사에 착수한 후, 이들과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묶어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학생운동이 간첩에 의해 조종된다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학생운동 전반을 불신케하려는 의도였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김성만씨는 '공산주의 서적 탐독', '<예속과 함성>이라는 소책자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1978년 5월경부터 청계천 고서점 일대에서 구입한 <변증법적 유물론>, <공산주의 운동사> 등 공산주의 관련서적을 탐독하여..." 라고 범죄행위를 구성하고 있다. 이 사회에서는 어떤 서적을 읽고 그 서적에 담긴 내용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었던 것이다. 다름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말 그대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최상의 미덕으로 하는 제도 아래에서 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국민의 어떠한 사상이나 신념체계를 가지는 것은 자유이어야 하고 이 자유에 기초하여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처럼 단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탄압하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상황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억압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작 김성만씨 자신은 "민주주의의 실현이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봉건적 유제를 일소하고 독재를 청산하여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상고이유서에서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의 주장에서 이들이 탐지 수집했다는 기밀 역시 <예속과 함성>, <인식과 전략>, <야학비판> 등 단순한 운동권 문서에 불과했으며 그들이 벌였다는 활동 역시 당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반미의식 정도에 기반한 것이었다. 결국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탄압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영문도 모르고 연행된 김성만, 양동화, 황대권씨 등은 안기부 지하실에서 60여 일 간 감금,

고문조사를 받는 동안 일체의 진실이 무시된 채 안기부가 필요로 하는 인물로 둔갑되어 버리고 북한을 추종하고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무력폭동을 계획한 관제간첩단 사건의 주요관련자가 되었다. 조작을 위해 자행된 고문으로 그들은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김성만씨는 항소 이유서에서 "…모진 고문을 참아내느라고 아랫입술을 깨물어 입술이 모두 해진 상태에서 안기부의 조사를 받았고 심지어 혹독한 고문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의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하여 본인이 부모님께 보내는 유서마저 써놓고 조사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모두 무시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 그 때 인권은 없었다.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적용의 현실로 볼 때 정치적 반대세력의 탄압을 위해 이용되어 왔을 뿐 국가안보와는 거리가 멀었다. 바로 수많은 조작된 조직사건, 반 국가단체, 이적단체 규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의 남용과정에서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이 여지없이 유린되어 왔으며 특히 양심수와 정치수배자를 수없이 양산해 왔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운용과 인권유린은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실제 국가보안법의 적용과정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해 온 정보기구와 수사기관, 재판기관의 구성원과 그 의식은 거의 변함이 없다.

이를 통해 사상의 자유와 사회의 모순 해결의 모든 움직임이 제약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내부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막고 모순을 은폐하고 왜곡함으로써 사회의 진보를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

4)국가 보안법 철폐를 위하여

앞에서도 말했듯이 평양 교예단을 보고 즐거워한 우리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거나 조사 받지는 않는다. 옛날과 비교해보면 참 많이 좋아진 시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어느 구석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국민들은 통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며 희망에 차있고 또 나라에서도 통일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런 시기에 북한을 반 국가단체로 규정짓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통일을 위해서 국민이 노력하고 국가가 노력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이 국가보안법에 걸린다. 이렇게 걸림돌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존재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위배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다. 사실 우리 청소년은 국가보안법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른다. 이에 우리는 이 국가보안법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이 문제를 공유할 수 있고 서로의 의견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 자료 1.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제행동
2. 인터넷 -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3. 장기수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세계화와 농촌의 위기

심은아(2기 역사사랑 선전부장, 고2)

농촌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의 대부분은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댓가가 아니라는 것을 간디학교에 와서 알게 되었고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민이 얼마만큼 땀을 흘려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미래사회는 식량안보가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촌과 농민은 생존권의 벼랑에 서있고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역사사랑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했습니다. -편집자 주

머리말

올해 11월 21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전국각지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농정실패를 규탄하고 농가부채 해결 등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농림부가 20일 발표한 농가부채 경감대책으로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농가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축산물 가격보장 등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벌일 것을 다짐했다. 1894년에 일어난 갑오전쟁 이후로 끊임없이 투쟁하는 농민들의 진보적인 모습마저 없어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농촌이 붕괴된다. (문제점 제시)

21세기를 접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촌을 두고 붕괴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 농민의 권리는 일그러져 가고 있고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다시 정의되어야 - 밑에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하겠다 - 할 시점에 놓여 있다. 농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의 위협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농촌문제를 제시하겠다.

1990년 후반부터 WTO(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추진된 농산물 무역자유화 과정으로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국제통화기금(IMF),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들이 주도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거센 압박감에 농민은 시달리고 있다. 세계화로 인한 편입이 관세, 수입수량제한, 비관세장벽의 높낮이를 크게 흔들고 있다. 이로 인해 개도국 시장에는 농산물 수출국가들로부터 들여온 값싼 수입농산물이 넘쳐나고 있다.

고로, 식량을 순수입하는 개도국에서 소규모로 생산한 농산물의 수취가격을 떨어뜨리며, 영세한 농민은 농민들은 영농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농지를 포기하게 된다. 즉,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 문제는 기본적인 생활권을 잃게 되고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 WTO 농업협정에 따른 국내 농업보조의 감축으로 농민에 대한 정부지원이 줄어들면서 식량 순수입 개도국의 소규모 농업집단의 경제적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 농민의 토지경작권 침해는 WTO체제로 농업이 편입되었기에 각국 농업에 대한 보조를 감축하며, 농업보호가 이미 낮은 수준인 개도국에 대해선 무역 및 생산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농업보조의 감축을 요구함으로 농어민들은 본인들의 농지역을 포기해야 했다. 그로 인해 토지를 경

작하고 식량 생산권 마저 잃어버리게 된 농민들은 이야말로 인권침해를 넘어선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WTO는 포드주의로 시작된 대량생산의 붐이 다시 돌아온 듯, 이제는 근대화가 아닌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한 GMO(유전자조작 농산물)종자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종자 특허권을 보유하는 행위를 한다. 농민들이 평생 걸쳐 유지한 종자의 전통적인 가치와 재생산 구조, 그리고 본인들의 생존은 위험에 놓여진다. WTO 주도의 세계화 농산물 무역자유화는 각국,— 특히 한국—농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범하고 있다. 현재 농민들은 WTO 이전보다 2.4배나 증가한 농가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농경지를 도산하고 고향을 떠난다. 그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와 신자유주의의 의의에 연관성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에서는 민중의 의견과 사실은 자본의 권력과 억지에 의해 무너졌다. 과연 농어촌의 붕괴에 대해서도 그러한 결과에 수긍하면서 살아야 하나? 국제기구가 주도해온 세계화는 개도국과 개도국 국민들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해주는데 지나지 않았다. 이것이 정부의 타당한 농촌의 '정책'인가?

역사적으로 한국 국민들은 국가 식량안보를 크게 우려해야만 했다. 한국 전쟁의 슬픔이 깔린 이 조국에선 얼마 걸리지 않는 북쪽에 있는 수백만 동포들의 빈곤, 기아, 영양실조 같은 식량에 대한 문제들을 무시할 수 없다. 그 외 아시아 제국들의 심각한 식량부족과 사회혼란을 보면서 식량수입의 실패가능성과 국가의 취약한 식량체계를 이해하며 신자유주의가 가져다준 농촌에 붕괴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로 의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

농촌을 살릴 농민은 그럼 똥이냐? (농민의 권리 정의)

농민의 권리를 우선 구체화시키고 그 시점을 토대로 농촌 인권유린을 없애야 한다. 첫째, 세계인원선언서에서 분명히 나와있듯이 농민들도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개인의 권리를 행세할 수 있고, 모든 인간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농민들은 재래종자의 사용과 상업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GMO(유전자조작 농산물)협상에 대한 이유는 한마디로 농민들의 삶이 베어 나오는 종자에 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셋째, 농민들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경작할 권리가 있다.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빌리지 않더라고 농업에 일생을 받힌 그의 주장이 타당하다. 역사적으로도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한 토지개혁은 봉건사회에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사회는 식량안보 유지,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 환경보전, 경관유지 외 국토의 균형발전을 농민들에게 요구하면서 정작 농민들에게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대해주지 않고 있다. 농민들은 본인들의 작업을 통해 자부심과 공동체로서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농촌을 살리자! (진보적인 전략)

세계화의 역기능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계층이 공존과 공영의 21세기를 열어나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들 중하나이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과 그 외 대안들을 정리해 보겠다.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세계화의 조류에 맞서 경제적 약자인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들에게 함께 해줄 수 있는 깨어진 사람들에게 후원을 해야 한다. 미·시애틀에서 NGO들의 힘이 돋보인 성과와 같이 시민연대들과 전문성을 지닌 깨인 지식인들의 인력

이 필요하다.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세계 농산물 무역체제 수립에 대한 농협개혁을 강화시키고 농촌과 관련된 사회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참여가 있어야 한다.

포괄적인 세계화와의 싸움을 극복할 수 있는 **농민**—승리할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하며—이 그 과정을 진보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농민은 미래의 결과를 위한 준비성과 이후를 맞이했을 때 대응 할 수 있는 지식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보편성을 지니는 방법이 신자유주의적인 현상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들의 기본이다.

마무리 (사색)

세계화의 역기능은 인간 중심적 사고와 경제, 사회, 문화적인 여건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인간의 혀에서 나오는 말들로 인해 세상의 경제, 정치, 사회구조가 순식간에 바뀌고 권력자들의 혀끝으로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 어떠한 노동력을 추진하여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들의 '혀'놀림으로 인한 현상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은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지금 논이 하는 이 과제도 하나에 '혀'놀림, '머리'굴림이다. 자본세력을 강화시키는 우파세력의 신자유주의 현상도 마찬가지이다. NGO나 민간 단체—좌파세력을 추구하고 깨어있는 지식인들의 움직임과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단체—가 왜 아직도 우파세력을 이겨내지 못하였을까? 바로 '혀'로 계획하고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과정에서 억압이라는 일방적인 세력의 힘을 아직도 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고로 우리에겐 지배적인 전략을 방지할 수 있는 전문성 - 혀놀림 - 이라는 힘과 끊임없는 참여, 연대 안에서의 평화가 지속되어야 한다.



어! 은아 머리가 길었네… 지금은 옆에 있는 영석이 수준!

새 천년 특집 - 학생의 인권을 위하여

인권의 사각지대

정재원(2기 역사사랑 교육부장, 고2)

이 글은 학생이 학교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인간적인 모욕감과 함께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청소년, 더 정확히 말하면 학생인권이 유린당하는 현실을 날카롭고 꼼꼼하게 지적한 정재원님의 글입니다. 제도권 교육에서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학생인권유린의 배경과 교사와 학생간의 충돌, 여러 가지 합당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받게되는 차별 등으로 받는 학생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학생인권이 신장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학생스스로가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끝을 맺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학생인권신장의 방법에 대해서 논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대부분 좋든 싫든 간에 학교에 가게 된다. 청소년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보다 학교에서 더 많이 보낸다. 청소년기는 한 인간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의식이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는 우리에게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작은 사회로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공동체 체험의 장소이며, 민주주의 원리의 실험 장소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인권을 배우고 민주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배운다. 하지만 실제의 학교상황은 배우는 내용과는 너무나도 떨어져 있다. '학생통제라'는 명목으로 혹은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폭력이 가해지기도 한다. 매일 아침 교문에서 붙잡혀 머리를 잘리기도 하고 불시에 학생들의 가방을 뒤지는 소지품 검사를 당하기도 한다. 매일 민주주의, 인권을 배우는 학교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창의성과 인간성을 상실하고 자의식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몸집만 큰 아이가 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는 권리도 제대로 알지 못한 체 무감각하게 학교에서 자신의 젊은 날을 보내고 있다.

인권이란 글자 그대로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존재 자체로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존엄성이 있다. 사람은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사회적 지위 등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학생도 사람이므로 이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학생들도 마땅히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학생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 신체,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입장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한다.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에 대해, 수업방식에 대해, 학교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권리는 종이 위에나 존재할 뿐 전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가장 심한 피해사례는 이른바 "사랑의 매"인 체벌이다. 체벌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으로 정신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체벌이다. 이에 대해서 교사의 권리라고 말하지만 교권이 인권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를 가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교권이라는 것은 학생들에 의해서 생기고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

할 때 비로써 올바른 교권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체벌을 방관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풍습이 많이 남아있고, 현대사에서 군사정권의 영향 때문이다. 체벌도 교육적인 방법이라면 그것은 교육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체벌을 통해서 학생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바른 길로 가게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의 체벌은 교육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어 반발심을 일으키고 교사를 증오하게 만든다. 학교나 교사 입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면 제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방종으로 흐르기 때문에 매로써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반드시 옳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억압적인 교육환경에서 억압적인 삶을 살아온 학생들이 경우에 따라 방종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 억압적인 교육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학생들만 탓할 것이 아니다. 체벌은 또 교사의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교사도 인간이므로 언제나 합리적이고 논리적 일수는 없다.

체벌말고도 학생들의 인권침해는 많다. 우리나라가 조약한 유엔 청소년 어린이 권리조약에 보면, 자신에게 영향이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때에 교사들과 학교장만의 회의로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결정되어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된다. 학생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하나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교칙으로 정해놓고 있다. 머리길이는 몇 cm이상이면 안되고, 신발은 운동화를 신어야 하고 흰색신발만 신어야 하고, 가방도 원색은 안되며 가능한 색을 정해주기도 한다. 복장도 꼭 넥타이를 해야 하며 이름표는 왜 꼭 달라고 하는 건지? 난방이 바지 밖으로 나온 것도 못 봐주고 단주가 없는 것도 안 된다고 한다. 이런 규칙들은 학생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교칙의 주체는 학생들인데 학생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다양한 차별도 행해진다. 반장선거나 학생회장 선거를 할 때 성적에 제한을 두고 후보를 선출한다. 리더쉽이 뛰어나도 공부를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친절히 잘 대해주지만 공부 못하고 문제아라고 불리는 학생들에게는 마치 벌레를 보듯 경멸하는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일부 남자교사들은 매로 여학생의 가슴을 누르거나 손을 잡거나 하면서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한다.

극단적인 예를 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학생들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학교에서 받고 있다. 물론 앞에서 예를 든 것이 모든 교사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 중에도 학생들을 정말 걱정하고 아끼는 분들도 많고 교육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그리고 교사 또한 우리나라 교육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한편으로는 피해자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보다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받고 있고, 학생들의 피해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그럼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필요할까? 우선 우리의 인권을 찾기 위해서는 의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권리는 학부모나 일부의 선생님들에 의해서 생기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들을 도울 수 있을 뿐이다. 자신의 권리는 누군가 찾아주지 않으며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 누군가에 의해 찾아진 권리는 제대로 될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인권에 대해서 알아야 비로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제도권 교육에서는 전혀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학생이 학생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생들 자신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것에 대해 부당한 것을 깨닫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써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즘에는 뜻 있는 교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학생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이나 여러 사회단체모임들을 통해서 학생인권에 대해 공부 할 수 있다. 방학 때는 인권교육에 대한 캠프도 열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다. 또 청소년인권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생각과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며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 볼 수도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일어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교육부나 정부기관에 탄원서를 보낼 수 있다. 보낼 탄원서에는 요구사항을 확실히 알리고 친구들의 서명과 함께 보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교내에 선전물의 붙이는 것이 좋다. 이런 학생들의 활동을 언론이나 매스컴에 보도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교사들도 학생에 대한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을 단순히 통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써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학생이 아무리 바뀌어도 교사가 바뀌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학생과 교사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존 관념을 바꾸기는 매우 힘들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도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의식이 바뀐 다음에는 제도적으로 보장절차가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학생들이 무조건적으로 학교의 정책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학교의 일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학생회의 자치권을 인정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렇게 모아진 의견은 학생대표를 통해서 학교정책 결정에 반영이 되고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학교에 있는 학교운영위에도 학생대표가 참관해서 교사, 학부모, 학생의 토론이 이루어 져야 한다. 학생과 학교의 갈등이 생기면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갈등을 풀 수 있는 조정기구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권교육도 하나의 수업으로 수업일정에 넣어야 한다. 인권을 배우는 것 자체가 바로 권리이기 때문이다. 교사들 또한 자기의 소신에 따라 수업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교사들에게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교사에게 자유권이 주어질 때 교사들도 비로써 자유롭게 학생의 권리에 대해 수업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교육체재에서는 교사도 학생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교사의 자율권 또한 학생인권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의식변화와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현실을 보면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제도적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이면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성숙하지 못한 인권의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권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 모든 인권문제는 '제도'의 문제이기 이전에 '개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방안들이 교수, 교사 등 사회 여러 부문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나오고 있고 토론회도 열리고 있으나 현실은 변화가 없다. 인권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종이 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인권은 실천되어야 하고 느껴야 한다.

여성과 여성문제 (Frauenfrage)

심은아(2기 역사사랑 선전부장, 고2)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에 대해 너무 식상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글은 심은아님이 스스로 여성이란 것을 자각하면서 느낀 사회의 심각성을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배합시켜 어떻게 전개 되어왔는지 그리고 현재 여성문제의 실상과 문제는 무엇인지 논하면서 결론적으로 여성 스스로에게 문제점을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신 글입니다. 지금 우리부터 남녀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의 의식을 되짚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여학생의 손으로 쓰여진 이 글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모두의 여성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자 주

머리말

인구의 반은 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남성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여성은 사회에서 인생관과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일상생활에서 모순되는 행동들에 의해서 무시당하며 사는 1순위가 되었고, 아직도 그 1순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의 발전 속에서 여성의 지위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여성이 누리고 있는 제 결과는 여성 스스로 쟁취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결코 주어진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이러한 투쟁의 역사 속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여성지도자들의 피와 땀이 없었더라면 더욱 불가능했을 것이다. 역사 속에서 등불이 되어주었던 여성들이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

여성문제! 어떻게 전개되었나?

구미사회에서 여성해방에 대한 담론이 먼저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그 역사는 기껏해야 100년 안팎이고 학생운동 중에서 '반전운동'으로 시작된 여성 인권 운동도 1960년대에서야 비록 시작되었다. 자본주의는 소유와 지배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었다.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계급, 즉 시장에서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자유' 노동자들을 탄생시켰으며 이전의 모든 소유형태를 해체시켰다. 그러나 남성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도 오랜 동안을 여전히 여성들을 소유해 왔다. 남성은 가족 내에서는 여성의 창조적 능력을 계속 소유하고 지배해 왔으며 또 한 사회 내에서는 여성의 예속을—비록 그 예속의 결과는 그 여성이 속한 계층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하더라도—정당한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는 여성에 대한 몇 가지 모순들이 심화되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가정과 작업장에서 동시에 여성들의 노동이 필요하게 되자 가족 구조와 작업장에서 여성들의 노사 협정상의 지위, 여성들의 자의식 등에 영향을 주는 긴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 내부에서는 성욕과 성에 대한 태도에—오르가즘(orgasm)을 절제하고 성적인 금욕을 강요하던 구식 성도덕은 새로운 해방의 성도덕에 의해 밀려 나가고 있지만 '매매춘'과 성폭행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시민적 여성운동이 여·남(남녀)동등권을 전부 관철했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만으로서 노예상태—많은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은 실로 이런 경우다—와 '매매춘'과 많은 기혼여성의 남편에 대한 물질적 종속은 폐지되지 않을 것이다.

여성문제! 현재 실상과 문제점들은?

21세기 성·평등사회를 위협하는 신자유주의는 국제적으로 인권유린을 가행 하고 있으며, 이런 세계화의 도전에 여성은 직면하고 있다. 분쟁과 갈등의 20세기를 통해 여성에게 자행된 폭력들이 지금 21세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기초였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 기업의 이윤증대 논리와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결탁하여 개도국과 제3제국 여성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기한다. 경제적인 세계화 통합은 노동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다루면 수많은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 그 중 '여성'문제를 다뤄본다면 여성의 희생과 인권유린을 증명할 수 있다. 세계 어디서나 가장 열악한 노동자 집단을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여성' - 물론 이러한 대답에 부정하는 의견이 많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 이라는 대답이 나온다. 신자유주의로 - 물론 21세기 전에도 그러하였지만 - 인해 여성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략시킨다. 기업은 격화되는 세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복지 제도도 없이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기간 노동, 불완전한 고용으로 내몰린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예들 중, 황당하기만 했던 예를 들자하면, 타이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유린이다. Thai Durable Textile (TDT)은 40년 전에 타이에 최초로 세워진 의류공장이다. 약2000여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며 경력이 15년 이상인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한 달에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시간이 30분으로 정해져 있다. 이 회사는 인간의 생리현상에 까지 규정하고, 본인의 의사로 이루어지지 않는 생물적인 현상들까지 침해했다면, 그들의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면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본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신자유주의는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을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이던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 넣고 있다. 계속 증가하는 빈곤여성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돈을 찾으며 고향을 떠나고 있다. 본인들의 책임감으로 원래 계약과는 다른 보수와 성적 지배욕의 희생물로, 자본의 노리개 감으로. 이렇게 여성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여성을 본능적인 정의감으로 지킨다는 남성들은 이러한 매매춘에 대해서 국가의 관광사업이라고 합법화해주는 작태를 서슴없이 한다. 물론 본인들도 즐기고 애(愛?...쾌락적이면서)용·이용한다. 성매매는 어떠한 사유를 대도 용납되지 않으며 이러한 일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 이 문제를 본인은 적극적으로 강조한다. 감히 정상적인 성관계와 강간의 차이를 논하는 남성은 그 차이를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가 없을 것이다. 어떤 입장이건 이유이건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인간에게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성)을 지니고 있다. 각 개인이 판단하는 시점에 대해선 본인의 결정이기에 100% 자기의 행동은 책임 져야한다.

먼저 간략히 논의했던 '삽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다. 지금까지 지내온 이 사회에서 성관계는 교접(coitus)이다. 교접이라는 것은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교는 성기 중심적으로 이해되며 성교는 남성중심으로 이해된다. 즉, 성은 발기, 사정의 과정만을 거치는 행위가 된다. 삽입이라는 말이 있다만 그에 반하는 흡입이라는 말을 사용되지 않는다. 성적인 행위는 남성의 것이고 여성의 그것을 받아들이는(receptive)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로 여성에게는 남성이 개발해주기 전에 성욕이란 없고, 오르가즘(orgasm)도 선물 아니 은혜라고 비유하면 더 가깝겠다. 은혜란 받을 자격도 없는데 자비와 인심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성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남성에

게서 받는(receive) 것이라는 통념이 강하게 지배한다. 남성이 아닌 이상 남성의 성(性)에 관한 심리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학문적으로 따져본다면 남성들의 시각으로는 여성들은 본래 강간당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강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원하는 욕망' 이라는 말은 모순어법이다. 이 외 끝없는 남성과 여성론은 세기가 지나면서 증가되고 있다.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인권유린을 했다는 판결을 받아도, 우선 그 피해자의 심정, 본인의 의사가 인권침해로 인해 무너진 그 심정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토의와 판정으로 인해 개운히 씻겨 없어지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존엄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보겠다.

여성문제! 앞으로 대안할 방법들

물론 여성학·여성해방론(Feminism)이 전투적일 수도 있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에 참여하는 여성의 숫자는 계속 상승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성차별제도에서 자신의 인권을 찾기 위한 처신과 행동부터가 개개인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대안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참여하는 여성'**들이 필요하다. 첫째, 억눌려 왔던 여성들의 인권 -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그것을 '전통'이라 하지만 - 과 사상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자기발전'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여성들이여! **처신과 행동부터가 달라져야한다.** 교양 있게 굴면서 착하며 예쁜 여자야말로 자기 자신을 모순되게 한다. 세계화 과정에 서있는 깨어있는 여성들 - 의식 있는 남성들도 - 은 여성소외와 빈곤화 현상을 개선하고 성에 의한 차별과 불평등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한다. 둘째,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균형 있는 타협이 있도록 참여한다.** 여성은 성에 의한 차별과 조화롭게 양성평등 사회를 추구한다. 사회, 경제, 정치 각 부분의 의사결정과정,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선 여성의 시각을 부여하고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해야한다. 셋째, **사회성과 합리성을 잃지 않으며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다방면으로 시야를 둘 수 있어야한다.** 국지적 수준에서 여성과 여아의 성적 결정권을 유린해오던 인신매매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조직적으로 거래한다. 예전과 달리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지식을 배우며 연구해 나아가야 한다. 성장에 있어서 타인이란 존재는 개인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의 창의력도 기르며 개인의 의견이 사실로 인정되는 과정이다.

더 나아가서 여성의 완전한 시민적 동권이라는 것은 현존하는 사회질서를 기초로 하는 이러한 여성운동에 호의를 가진 남성들이 당당히 나타나는 현상이 최후의 목표이다. 양성평등화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자하는 내용들은 이러하다. 정부는 성매매 방지법을 강화하여 성매매 발생 또는 지속되는 포주와 중간알선자의 착취, 공무원과 결탁을 엄격히 감시·처벌하고 모든 결탁자들은 강력 처벌해야 한다. 성을 사는 자와 성을 팔게끔 만든 사회와 주도자를 처벌하고 성매매 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행법률의 강화, 단호한 법적 조치, 폭력 예방 캠페인 및 정보교환 피해자와 보호와 인신매매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 등을 조치하면 많은 여성 인권유린이 감소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대안에 있어서 존재하는 모순과 조치라는 과정에서 일어날 무시, 또 다른 인권유린을 위해 우리 모두는 깨어있어야 한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모든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며 도덕 양심적으로 정의롭게, 합리적인 행동들과 건강한 의식들을 가진다면 그런 의식을 지닌 집단의 영향으로 사회도 바뀌나가진다고 느낀다. 매매춘이 국내·국외간의 긴밀한 범죄 연결 망을 통해 발생하므로 각국 정부를 구축하여 피해자 발생 방지를 하는 구체적인 지원을 의무화 해야한다. 매매춘 여성들

을 위해 전문작인 상담인력과 프로그램 등 보호시설, 의료 및 사회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여성의 성 상품화 등의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올바른 성문화, 양성평등 문화, 건강한 정서를 확립할 수 있는 캠페인, 홍보, 활동을 성립해야 한다.

'차별'을 넘어선 여성론은 이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성품을 띄고 전진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이다. 물론 여성은, 존엄성을 지닌 생명을 세상과 연결시킬 - 물론 남성의 몫도 잊을 수 없지만 생물적으로는 여성이 만9개월 동안 몸에서 성장시킨다 -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중한 인격체이다. 조물주(God)도 그러한 뜻이 있으셨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男)의 갈비뼈를 빼어서 그의 동반자 이브(女)를 만드셨다 한다. 단군신화에서 마늘만 먹고 자라나는 신화에 있어서도 여자와 남자의 성별은 구분되었다. 마태복음 - 기독교나 성경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예이기 때문에 제기하였다. 물론 성차별은 무지 많지만 성경에서 나타낼 수 있는 시대를 예로 하기 위해서 뽑았다 - 1장을 쭉 읽으면서 본인은 성차별을 느꼈고, 그것은 자손들의 이름으로 쭉 나와있는 '족보'엔 오로지 남자만 등록되어있다는 점이다. 각 국에 이러한 사례는 많지만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에서부터, 아녀자(女子)라는 간판을 달고 다녀야 했던 불평등했던 사회. 일류 처음의 민주주의를 추구했다고 한 아테네에서도 실은 신분계급이 존재했기에 여자, 아이, 그리고 노예는 정치에 대해선 관용하지 못했다. 고학력과 능력 있다는 여성 지식인도 결혼이후 사라져버린 인간으로 변해간다. '동등한 사회부여'(Affirmative Action and equal employment)를 실천한다는 미국에서도 혼인한 90%의 부인들은 본인의 성을 쓰지 않고 남편의 성으로 바꾼다. 다이어트를 해서 섹시한 몸매에 여성스러운 옷을 입고 모든 남성의 시선을 한 몸에 다 받고자 하는 여성들의 이성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화두(話頭)는 세계화되어 가는 지구촌 모든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마무리

본인은 재사회화의 가치관갈등으로 인해 삭발을 결심하였고 행동으로 실천했다. 그 중에 고민했던 하나의 문제는 본인의 외적인, 즉 본인의 껍데기인 '여자'라는 생물적인 존재 때문에 일어나는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거기에 인한 개인과 집단이라는 문제는 끊임없이 걸려나가고, 그 집단에 소속되어서 본인까지 모순 되어버리는…그렇다해서 본인만이 옳고 잘났다는 것이 아니지만 본인의 처한 특성과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편리로 합리화시키는 점에선 아직도 많이 아파한다. 그렇지만 본인은 발버둥치며 그러한 집단에 대처하며 여유 있게 논리를 제기하려고 노력한다만 본인같이 의사가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그래서 짓밟혔고, 아직도 무시당하는 세계 모든 여성들은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도와줄지, 본인도 그 현실에 있어서 난감하다. 성별화 된 제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인간의 문제로, 자의식으로 규정하는 그 날을 위해 우리 모두 실천하자. 행동하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

정재원(2기 역사사랑 교육부장, 고2)

올 해 들어서부터 통일에 대한 희망찬 소식들이 자꾸 전해집니다. 그 중 하나가 6월에 열려 모든 국민들의 가슴을 설렘과 두근거림에 가득하게 했었던 남북정상회담과 그 직후에 열린 남북이산가족상봉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작정 기뻐하고 신나만 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는지 에서 시작해 우리가 통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이고 대중적인 사고들을 되짚어 보는 것이 통일에 대한 희망찬 함성이 들려오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일 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정재원님께서 그런 자신의 소견을 차근한 목소리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생각이 미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자 주

남북정상회담

올해 6월 갑작스럽게 남북한 정상회담 소식이 나왔다.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대중 정권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한 나라가 갈라져 대립적인 관계를 55년 만에 청산하고 만난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북한을 반 국가단체라고 여기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국가보안법을 어기는 것이 되었고 사실상의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상회담이 끝나고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선언이나 성명이나를 두고 말이 많았으나 성명은 실제적인 실천이 크게 따르지 않다고 하여서 결국 선언으로 하였다고 한다. 이번 남북공동선언은 과거의 7·4남북공동에서 밝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기본적으로 통일을 위한 남북의 서로 다른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를 통한 신뢰구축과 빠른 시일 내에 이 같은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게 통일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품거나 통일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에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아직은 성급한 판단일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쪽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는 것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는 남북의 문제는 이제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마친 김대중 대통령이 좋은 일이 있으나 아직 밝힌 시기가 아니라고 말한 것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밝힌 것과 밝히지 않을 것이 있다는 말을 통해서 둘 사이에 비밀스레 이야기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상회담 이후 성급히 통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지금 한반도에는 통일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으며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한반도에 가

까운 기간 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많아졌고 아마도 나 정도의 나이의 세대는 아마도 통일을 맞이하는 세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신세대들은 통일에 대해 많이 무관심하고 별로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앞으로 통일시대를 살아갈 우리가 통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북한을 바라보아야 할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주로 우리는 한 민족, 한 핏줄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해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주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어떤 이유에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보다는 당연히 한 민족이니까 통일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선 민족에 대해 생각해 보자. 민족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나도 잘 모르지만 민족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힘들 것이다. 민족은 역사적. 정치적 조건에 의해서 달리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민족을 핏줄과 언어, 문화, 지역의 공통체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생활 단체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운명 공동체로 정의한다. 남한에서 민족의 정의를 찾아보기는 힘든데 서로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대상으로서의 우리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집단 등으로 정의한다. 민족이란 것이 단순한 혈연적인 것만이 아닌 문화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등도 민족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광복 후에 사상, 이념의 대립 그리고 외세의 영향으로 인해 남북이 분단되고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반공이데올로기 속에서 서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잘못 알고 있고 공산주의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기성세대처럼 분단을 체험하지 못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우리 신세대들에게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직접적인 느낌으로 와 닫지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북한을 경험해본 적이 없고 대중매체를 통해서만 보여지는 북한의 모습은 아주 낯설고 이해하기 어렵다. 중학생에서 대학생까지의 50%, 고등학생의 83%가 북한을 같은 동포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를 잘 나타내어 준다. 그것은 오랜 기간 서로 단절된 채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고 북한 또한 남한의 모습이 북한의 입장에서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같은 민족이라고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적어도 신세대들에게) 북한에 대해 민족적인 동질감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데 통일을 이야기 할 때 같은 민족이라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점차적으로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국가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지구화의 추세속에서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기가 힘들다.

앞에서 민족에 대해 길게 이야기한 것은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통일을 이야기 할 때 민족을 얘기하면 안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통일을 이야기하면 으레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만이 하기 때문에 민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이다. 통일을 이야기 할 때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그 하나의 주장만이 아니라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제적인 남북한 주민의 행복, 인

권, 평화, 자유 등 삶의 가치가 무시당하고 억압받지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통일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과연 무엇을 위한 통일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개인적인 가치를 희생하면서도 통일은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북한의 차이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남과 북은 55년 간이나 따로 또 같이 서로 떨어져 살아왔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55년이면 5번하고도 반이 변한 셈이다. 이렇게 오랜 고착화 과정에서 오는 서로에 대한 이질감은 상당히 클 것이다.

특히 역대정권이 정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반공이데올로기를 뿌리깊게 심어놓고 북한 역시 정권을 위해서 남한과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서로에 대한 오해는 상상이상일 것이다. 통일이 되다면 의사소통이나 의식에 대한 차이 그리고 사회의 모습등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독일의 경우에서처럼 서로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오히려 통일하기 전이 더욱 좋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독일의 경우 동독사람들은 과거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마음은 편했다면서 통일전을 그리워하고 서독사람들은 통일이 되어서 자신들이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며 불평한다. 독일보다 더욱 단절이 심했던 우리는 그 파장이 더욱 클 것이다.

남북의 차이점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남과북은 같아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통일은 말 그대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모든 제도, 사상, 문화등이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차이를 남한의 기준에서 바라보면서 그 차이를 남한에 맞추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전개될 수 있는데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하니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식의 강자의 논리를 담게 된다. 이런 동정이나 우월의 논리는 남한의 의한 북한의 지배논리라 모든 것을 획일화하려는 파시즘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또 남북한은 차이가 있으니 서로 인정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이는 어느것이 어 좋거나 나쁘거나의 기준이 없으므로 서로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북한에 대한 비하나 비판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수용 하므로써 공존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이런 상호공존의 논리는 자칫 상대의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남북한사이에 오랜시간 동안 갈라져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차이로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것이다. 가령 북한에서의 어떤 비민주적인 문화나 제도를 남한에서 비판할 때 이런 비판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남한 우월론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어떤 비판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판단의 기준이나 경계가 무의미해 진다.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한에 관한 비판이 남한이나 북한의 우월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남북한을 뛰어넘는 인류의 보편적인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세기 이상 지속된 극우 냉전의 논리에서 벗어나 차이를 인정하며 그 차이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맞추어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남북정상이 만났고 금강산 관광도 이루어졌다. 이제 북한을 통해서 백두산관광이 이루어질 날도 얼마남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에 꿈처럼 여겨졌던 통일은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남북은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 서로에 대한 정보는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서만 받아들이고 과거 독재정권이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사용한 반공이데올로기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기성세대의 머리속에 뿌리깊이 박혔다. 아직도 곳곳에 있는 반공표어와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빨갱이 시비는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북한에 대해 잘못 알고 있고 북한 또한 우리에 대해 제대로 알 지 못하고 있다.

통일이란 단순히 나라의 국가체제, 국토만이 하나로 합치어 지는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의 실제적인 삶이다. 국가적인 제도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55년간의 분단 고착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이질감을 나타내었다. 이질감은 단순히 다르다는 감정과는 다르다. 그런데도 이런 남북의 이질화에 대해서 남북한 서로서로 이질화 극복에 대한 국가적인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문화적인 이질화는 천천히 우리의 머릿속에 파고 들어온 만큼 사라지는 것도 그만큼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직접 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많이 다른 만큼 통일 후의 한반도에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갑작스런 흡수통일을 한 독일은 서독사람들은 많은 통일비용을 부담하면서 그리고 동독사람은 서독인들에게 무시당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한다고 한다. 서로에 대한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 교육의 변화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가까이 다가온 통일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통일에서 탈 분단으로 (당대비평12 가을호 삼인)
2)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하나의 문화)
3)절망을 뛰어넘은 환희 (한겨레21 6/29)

광주 학생운동과 학생의 날

성연이(2기 역사사랑 편집부장, 고1)

이 글은 많은 무관심 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11·3 학생의 날의 정신을 강조하고 알리기 위해 쓰여진 글입니다. 요즘 들어 곳곳에서 11·3 을 기념하고 홍보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1·3 이 어떤 이유로 제정되었고 우리는 이 날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사랑에서는 학생의 날에 대한 뚜렷한 소개와 그 기원이 된 광주 학생 독립 운동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래 글을 읽으시면서 학생의 주체적인 정신은 무엇인지 지금의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 다 같이 반성해 보았으면 합니다. -편집자주

학생의 날?

학생의 날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기념해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이다. 그러나, 모두의 무관심 속에 11월3일은 그냥 지나가 버렸고 이것의 심각성을 느낀 몇몇의 사람들이 학생의 날을 알리기 위해 대외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런 잔잔한 노력으로 이제야 학생의 날이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것의 성과가 이번 해 학생의 날에 꽤 많은 단체에서 11월3일을 되새겨 보는 행사가 여럿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의 날의 의미와 기원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살펴보자.

광주학생운동의 전개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광주와 나주간을 통학하던 한·일 학생간의 충돌을 계기로 11월3일 폭발하였다. 광주지역 중등학교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로 시작된 이 운동은 일제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이 집단적인 가두투쟁 단계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11월12일의 제2차 시위는 광주 사회 청년단체와 연계하여 학생 투쟁지도본부의 지도 아래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제2차 시위 직후 일제는 12월27일까지 보도통제를 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관해 보도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나 광주에서 타오른 불길은 먼저 인근 전남지역으로 퍼져 나갔으며 이어 전국으로 파급되었다.

학생시위는 12월초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개성, 인천, 원산, 평양, 함흥, 공주 등 주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퍼져 나갔으며 1월 중순부터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지역 학교까지 확산되고 중등학교학생뿐만 아니라 보통학교학생까지 참여하였으며 투쟁의 형태도 시험거부, 백지동맹, 동맹휴학, 격문살포, 교내시위, 가두시위 등 다양해 졌다.

또한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초기에 식민지 노예교육과 민족동화교육의 철폐를 주장하던 데에서 총독부 폭압정치 반대, 일본제국주의 타도 등 일본 식민지 지배권력과의 전면 충돌을 통한 민족의 독립획득을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비록 1930년 3월 1일 3.1운동 11주년을 맞아 일제의 대대적인 사전 점거령에 따른 탄압으로 인해 불꽃처럼 타오르던 학생들의 시위가 한 단계 수그러들었지만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후에도 광주학생독립운동에 호응하여 각지에서 학생들의 항일민족운동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모두 194개교(전문학교 4개교, 중등학교 136개교, 보통학교 54개교)가 참여하였으며 참가학생 수는 5만4천여 명에 달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광주 지역에서만 170여 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받았다. 실형을 받은 사람이 전국적으로는 수백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

또한 533명의 학생이 학교로부터 자진 퇴학하였다. 아울러233명이 무기 정학처분을 받았으며 298명이 강제로 전학하고 172명이 해외유학을 떠났다. 여기에 더하여 광주사범학교는 일제에 의해 1931년 3월 폐교를 당하기까지 하였다. 명실공히 3·1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 민족운동이었던 것이다. 또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세계 대공황기와 맞물리면서 이후 학생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전체 항일민족운동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광주학생운동의 의의와 우리의 역할

학생들 자치적인 움직임으로 일어난 항일정신의 표출은 아직까지도 대단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생의 날 정신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것은 여전히 일본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가해지는 압박의 심각성을 의식하고 이것에 저항하는 몸짓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말로만 이래선 안 된다 바꾸어야 한다고 외쳐대는 것만이 아니라 진지한 눈으로 현실에 다가가는 것이다.

당시의 상황에서 적국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였다. 하물며 고등학생의 당당한 주체정신을 무감각했던 이들에게는 충격이었고 일깨움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 때의 당당함을 이어받자, 표현의 용기를 계승하자.



지난 여름방학 대구에서 몸짓을 전수 받았어요. 잘하죠?

6월 항쟁과 우리의 역할

박지훈(2기 역사사랑 부회장, 고2)

아래의 글은 이 번호 회지에서 심층 있게 다루기로 한 역사적 사건들 중에 하나인 6월 항쟁에 대한 글입니다. 대충 민주화 항쟁정도로만 소소히 알려져 있는 이 사건을 박지훈님께서 조사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시발점→전개과정→6·10 국민대회선언문→6월 항쟁 이후의 파장→6월 항쟁의 의의와 우리의 과제라는 각각의 소제목을 달아 글을 진행 하셨습니다. 주의 깊게 봐주신 후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6월 민주화 항쟁이 어떤 것이며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우리 역사사랑에서 6월 민주화 항쟁에 대해 쓰기로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화가 어떻게 얻어 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함이다. 우리는 지금 살아오고 있고 또 살아야 하는 이 땅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냥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것일까? 아니면 땅에서 쑥 솟은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당연히 아니다. 그것은 우리 전 앞 세대에서 앞 세대까지 수 세대에 걸쳐 민주화에 대한 열정과 목숨을 바쳐 얻은 너무나 고귀한 민주화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전세대의 목숨으로 얻은 민주화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민주화를 더 발전시키고 있을까? 이 글을 통하여 우리가 희생으로 얻어진 민주화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도 민주화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 잡아 보자는 의미에서 이 글을 적는다.

1. 6월 항쟁의 시발점

광주민중항쟁을 짓누른 일부 정치군인들이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전두환이 국보위 상임 위원장에 올라 유신세력들을 탄압하였는데 이는 전두환 정권을 세우려는 정치공장의 희생양이었다. 그리고 5.17쿠데타 주도세력은 민중을 두들겨 패면서 쿠데타를 정당화 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서강대학교 학생 김의기의 자살로부터 박관열, 방종만, 박종철, 이현철 등의 희생으로 민중은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해갔다. 이를 볼 때 6월 민주화항쟁이 그냥 어떤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서 투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난 전두환 정권의 탄압 광주항쟁으로 생겨난 미국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여 가다가 터진 민중의 항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985년 2월의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로 결성된 신민당이 100석의 원내의석을 차지해 제 1야당으로 떠올랐다. 이는 국민들이 제 5공화국정권을 반대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보여주었고 이에 반응한 신민당은 직선제 개헌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리고 개헌을 요구하는 대중집회도 자주 열리자 위기를 느낀 전두환 정권은 대중집회를 탄압하고 이러한 일을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행위로 매도하는 가운데 1986년에서 1987년에 일어난 부천경찰서 성 고문 사건과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같은 반민주적 정치 폭력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 국민들은 더욱 더 분노해서 터질 지경에 이르자 집권 세력은 평화적 정권 교체란 이유

로 4.13 호헌 조치는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과 민족민주세력의 운동의 역량을 무시한 처사였다. 이렇게 터질 듯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동안 4.13 호헌 조치가 내려진 것과 동시에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2. 6월 민주화 항쟁의 전개

1987년 6월 10일 이날은 민정당 제 4차 전당대회 및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가 열리고 전두환가 노태우가 손을 맞잡았다. 그러나 그 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22개 도시에서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미국 반대'의 거센 함성이 잠실체육관의 행사를 무산시키려하는 듯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바로 6월 민주항쟁의 깃발이 올려진 것이었다. 이 날 24만 명의 사람들이 '고문 살인 은폐 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 대회'에 참가한 것이다. 이는 전두환 정권 아래 신음하던 민중들이 이승만 정권.19때처럼 터져 나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에 위험을 느낀 전두환 정권은 6.10대회를 불법으로 규정 10만 명의 경찰 병력은 동원해 원천 봉쇄하려 했으나 이미 터져 나온 불꽃이었다. 학생을 선두로 시위대는 호헌철폐와 군부독재 타도를 외쳤고 최루탄 난사에 대항해 투석 시위를 하였다. 그리고 연좌 시위와 대중 정치 집회로 그 열기를 고양시켜 성남 마산 부산 수원 등의 일부지역에서는 시위대가 전경을 포위 무장 해재를 시킨 것은 4.19와 다름없는 국민들의 힘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자 시위규모가 줄어들자 시위대에게 반격을 시작 명동성당으로 들어가 '명동성당 농성 투쟁이 벌여졌는데 이는 투쟁의 전국화 지속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위기를 걱정한 전두환 정권은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농경자의 안전귀가를 보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명동성당 농성투쟁은 6월 15일에 끝이 났다.

그러나 6월 26일 민주항쟁의 미리 막고 비인 국민 평화 대행진이 개최도 34개 도시 4개 군에서 쏟아진 100만 명의 시위 대열이 민주화 의지를 마음껏 내뿜었고 개헌 논의재개나 국민투표 실시등 부분적인 양보로 위기를 모면 하려한 전두환 정권은 6.26 대 행진을 보고 6.29일 직선제 개헌 수용, 김대중 사면 복권, 구속자 석방을 약속하는 6.29선언을 내놓았다. 이는 4월 혁명 때와 같이 전 국민이 이루어낸 민주화 항쟁이자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 뒤 끊임없이 발전해온 민주화 운동이 거둔 성과였다. 그러나 집권세력을 물러내지 못하고 전두환 정권과의 협상을 거둔 점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기층민중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시키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3. 6 · 10국민대회 선언문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모여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오늘 광주학살에 참여한 정치 군인들 사이의 요식적인 자리바꿈을 위한 영구집권의 시나리오가 수만 전투경찰의 삼엄한 엄호 속에 치러졌다. 이번 민정당 전당대회는 국민 전체의 뜻을 배반한 독재자의 결정사한을 요란한 박수소리로 통과시키려는 또 하나의 폭거요 요식적인 국민기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은 민정당의 전당대회는 독재세력의 내부행사일 뿐 국민의 민주적 여망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

다.
(중략)
외세의 강점 하에 반도가 분단되어 허리 잘린 통한의 삶을 살아온 지 어언 40여 년, 그 동안 우리는 분단과 경제개발을 빌미로 한 독재권력 의해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지금 이 나라는 총칼로도 잠재울 수 없는 전 국민의 민주화 열기로 노도치고 있다. 성직자, 교수, 법조인, 작가, 미숙인, 출판인, 영화감독, 의사, 정치인 그리고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오는 양심의 소리는 독재로 찌든 조국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은 그 어떠한 이유나 명분으로도 더 이상 민주화의 실현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분단을 이유로, 경제개발을 이유로, 경제개발을 이유로, 그리고 지금은 올림픽을 이유로 민주화를 유보하자는 역대 독재정권의 거짓 논리에서 이제는 깨어나고 있다.

오늘 고 박종철 군을 고문살인하고 은폐 조작한 거짓 정권을 규탄하고 국민의 여망을 배신한 4.13 폭거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우리 국민들의 행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가 되었다. 세계의 양심과 이성이 우리를 격려하고 민주 제단에 피뿌린 민주영령들이 우리를 향도하며, 민주화 의지로 사기충천한 온 국민의 민주화 결의가 큰 강줄기를 형성하니 무엇이 두려운가. 자! 이제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찬연한 민주새벽의 그 날을 앞당기자. 민주·민권승리의 확신과 필승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민족의 과제 앞에 힘차게 전진하자.

4. 6월 항쟁, 그 이후의 파장

6.29선언 그 후 7월에 접어들어 생존권 보장과 사회 민주화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투쟁이 3개월 동안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그리하여 3개월 동안 일어난 노동쟁의 수는 모두 3458건에 이르렀고 투쟁도 대기업 중화학 공업계열의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기간에 결성된 1162개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운동과 민주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노동자 대투쟁은 우리나라 역사발전의 참 방향과 역사 주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다. 하지만 민주 진영은 올바른 민주와 통일시대를 이끌 정치 지도부를 꾸리는 데에 실패를 하였고 또 민중의 열기는 대통령선거와 보수 야당의 두 인사들이 대권을 탐하는데 에서 허망한 패배를 맞았다. 또 다시 전두환 정권 같이 칼날을 꼬리에 감춘 제 6공화국이 시작되고야 만다.

5. 6월 항쟁의 의의와 우리의 과제

의의는 군부독재로 하여금 명백히 퇴로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6월 항쟁 이후 반미구호가 더욱 대중화되었고, 조국 통일운동이 본격화되어 좌표를 확고히 자리잡았다. 그런 점에서 6월 항쟁은 민주화에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민주화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또한 6월 항쟁의 본받아 민주화 발전에 기여를 해야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6.10 국민대회 선언을 읽으며 우리의 민주화 발전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기도록 하자.

새 천년 특집 - 한국전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한국전쟁의 이해

성연이(2기 역사사랑 편집부장, 고1)

이 글은 지난 10월21일 역사사랑에서 했었던 한국전쟁 세미나에서 사용한 자료집입니다. 세미나를 위해 원인, 전개과정, 결과로 조를 나눈 후 인터넷과 역사도서를 활용해 각 조의 자료를 완성하였습니다. 원래는 14장 정도의 많은 분량이었지만 회지에 실을 때는 지면상 많이 편집하였고 현재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와의 비교로 읽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얼마나 빗나간 상태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지 깨달아, 올바른 시각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 편집자 주

1.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전쟁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의 지시로 북조선 인민 위원회를 인민 공화국으로 고치고 정부의 수립을 선포하였다(1948.9.). 이와 함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남침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최신 무기를 갖추는 등 비밀리에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또,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에서의 정치적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 선전 활동과 교란 작전을 벌여 남한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소요 사태를 일으켰으며, 그 결과 사회 불안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이들 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군경의 힘에 밀려 산간에 숨어 들어간 후에도 계속 관공서를 습격하고 양민을 학살하면서 군경과 대치하였다., 그러나 대한 민국이 그 기반을 튼튼히 하고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들을 진압하게 되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사회 교란으로는 대한 민국 정부의 전복이 어렵게 되자 화·전 양면 작전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겉으로는 평화 협상을 내걸었지만, 속으로는 전쟁을 일으킬 시점을 면밀하게 헤아리고 있었다. 북한은 통일 정부를 이룩하기 위한 남북한 지도자들 사이의 정치 협상을 주장하면서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이 무렵 한반도에 진주해 있던 미군이 철수하였으며, 한반도를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정세를 이용하여 전쟁을 준비하였다. 김일성은 비밀리에 소련을 방문하여 남침을 위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약속 받았으며, 마침내 1950년 6월25일 새벽에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무력으로 남침을 감행하였다. 불의의 기습을 받은 대한 민국 국군은 자유 수호의 결의를 다짐하면서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병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서울이 함락되고, 국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였다.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일어났던 6·25 전쟁은 3년 동안 한반도 전역에 심각한 피해를 안겨 주었다. 이 전쟁으로 남한의 사상자 수만 해도 150만 명에 달하였고, 수많은 전쟁 고아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국토는 초토화되었으며, 건물, 도로, 공장, 발전 시설 등 대부분의 산업 시설이 파괴되었다. 이와 동시에 남북 간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적대 감정이 팽배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평화적인 통일보다는 대결의 국면으로 치닫는 민족의 비극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휴전 이후, 대한 민국은 먼저 황폐된 국토의 재건과 산업 부흥에 힘을 기울였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복구에 온 힘을 기울였으며, 미국 등 자유 우방들도

대한 민국을 적극 원조해 주었다. 또,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다시는 공산주의자들의 남침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굳건히 자리잡게 되었으며,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2. 역사사랑에서 바라 본 한국전쟁의 원인

전쟁에 직접 책임이 있는 양 당사자에게는 이 문제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측의 주장은 공통분모 하나 없이 전혀 반대되는, 그리고 모순되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세계사에서 하나의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 이토록 정반대로 설명되는 경우로 보기 힘들 것이다. 남에서는 완전한 남침으로, 북에서는 완전한 북침으로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민족 사이의 골은 더 깊어져 가고 있다. 1950년 4월8일 미국정부는 NSC-68을 통해 국방비를 종래의 135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수준으로 급속히 증대시키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결국 한국전쟁의 발발을 배경으로 전격 실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보다 조금 앞서 1950년 1월26일 한미상포방위원2조 협정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482명으로 구성된 미 군사고문단의 주둔이 합법화됨과 동시에 약2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원조가 단행되었다. 미 군사고문단의 지도 하에 남한 군대는 1948년 말 약 6만 명 정도의 규모에서 1950년6월경에 이르러서는 10만 명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195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 군사 지도자들의 극동지역에 대한 왕래가 유난히 잦아졌다. 2월16일 맥아더는 이승만을 일본으로 불러 이틀 간에 걸친 비밀 회담을 가졌으며 합참의장 브래들리, 해군참모장 셔먼, 육군참모장 콜린스 그리고 공군사령관 반덴버그등은 군사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자주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였다. 또한 6월18일 에는 덜레스가 38선을 시찰하였고, 바로 연이은 21일에는 동경에서 맥아더와 회담을 가졌다. 한국전쟁은 구강장관 루이스 죤슨과 통합참모본부 의장 오민 브래들리가 극동지역을 순방하고 귀환하는 순간에 발발 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재무장과 미국의 적극적인 극동정책에 고무된 남한의 이승만은 연일 소리 높여 북진통일을 외쳐댔다.

그러면 이 당시 북한에서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미국의 공식적인 전쟁사에 의하면 본래 북한 군대는 1949년 말까지 방어형 군대였다. 평양이 소련으로부터 공격용 군수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남한이 1950년 봄에 북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였다.

소련으로부터 무기구입은 북한 전역에서 벌어진 기부금 운동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 운동은 1949년 7월15일에 창설된 '조국 보호와 방위를 위한 지지자 협회' 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1950년 봄까지 약 300만 명 정도가 참가하였다.

이렇게 해서 구입된 군 장비는 전쟁이 발발한 6월에도 대체로 수송 도중에 있었으며, 북한이 남한에 대한 최대의 공격을 가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게 된 것은 7월 말 경에 이르러서 였다.

기록상으로 볼 때 한국전쟁은 말할 필요도 없이 1950년 6월25일 새벽에 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마치 마른하늘에서 날벼락 치듯이 갑자기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전쟁은 적어도 이미 4·3제주 항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여순봉기와 전면적인 유격전을 거치면서 최소한 10만 이상의 희생자를 양산하면서 치러진 적대적인 두 세력간의 대규모 무력충돌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전쟁이었다고 보아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또한 1950년 6월25일 본격적인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훨씬 이전부터 38선에서는 남북한 군대간의 대소규모 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빈번한 충돌은 남북 모두에게 상당한 희생을 안겨다주었다. 한 정보보고는 교전 후 북한 기차가 부상자로 꽉 차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어느 미 군사고문단 입회인은 1단계 옹진 전투 현장에서 '땔감나무처럼 텐트 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남한군 사망자들을 보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충돌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어떤 경우는 확실히 지역 사령관-특히 남한군 지휘관-의 주도로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승만 정부는 이들을 거의 통제하지 않았다. 때로는 그 지휘관들이 정치 지도자의 직접 명령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남북한 양측 모두가 교전을 주도한 바 있으며 또 어느 쪽도 38선을 일반적인 국경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실제 전투에서는 북한이 패배한 듯 하다. 그 이유는 남한이 대부분의 군대를 38선 지역에 배치하고 있었음에 비해 북한은 다른 공산국가와 마찬가지로 주요병력은 예비로 남겨둔 채 내무성 휘하의 경무장된 경찰력으로만 38선을 수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역사사랑에서 본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우리 민족의 분단과 통일의 갈림길에서 시작된 전쟁은, 미국이 곧바로 지상군을 전선에 투입하고 미국이 소집한 유엔에서 유엔군 파견을 결의함으로써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대부분 미군으로 이루어진 유엔군은 전쟁에 참여하여 북진을 계속하였다. 유엔군의 북진으로 자기 나라의 방위에 불안을 느낀 중국 군이 압록강을 건너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한국 전쟁은 이제 국제 전쟁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 뒤 근 3년 넘게 삼팔선을 사이에 두고 양측은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계속하였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고, 삼천리 금수강산은 수많은 포탄 자국으로 흉측하게 변하여 갔다.

1951년 6월 23일 유엔 소련 대표의 휴전 제안을 거쳐서, 전쟁 발발 1년만인 7월 10일 , 개성에서 미국과 북한 인민군 대표 사이에 정전 회담이 열렸다. 2년여를 허비하고 1953년에 정전 협정이 조인되어, 3년에 걸친 전쟁은 그때의 전선을 동결(휴전선)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4. 한국전쟁의 결과와 영향

1) 좌절된 야망 - 휴전협정의 체결

휴전협정을 통해 한반도는 전투 없는 전쟁상태로 돌입하게 되었다. 휴전협정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휴전협정은 한국정쟁의 주된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었다는 것을 명료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물론 북한 스스로는 자신만이 한국 민중을 대표하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이기 때문에 전쟁을 곧 미국과 한국 민중의 대결로 파악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공식적으로 국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에서의 군대파견이 라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휴전회담과 협정 조인 과정에서도 대체로 북한의 주도권을 인정한 가운데 자신은 지원을 하는 역할에 국한하였다.

둘째, 휴전은 그것이 지닌 본래 의미에 있어서 전쟁의 중지가 아니라 전투의 일시적 중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전쟁수행의 의사를 완전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평화협정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실질적인 전투 또한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투중지 상태에서의 양군의 대치선을 의미하는 군사분계선, 즉 휴전선은 어떠한 의미에서든 일반적인 국경선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반도는 서로 유일한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두 개의 정부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하나의 국가인 것이다.

셋째, 이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정은 적어도 협정 문구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보다 안정된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려는 강한 지향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적인 의도가 어떠하든 지간에 휴전회담 과정 속에서 미국은 주로 전투 그 자체의 중지에만 역점을 두었다. 반면 북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국군 철수와 병력 감축, 협상에 의한 남북통일 등을 위한 원칙적 확인과 그 실현을 위한 장치 마련을 휴전협정을 통해 확보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어느 측의 주장이 채택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협정 자체는 만인 앞에서 행한 신성한 약속이며, 따라서 이는 반드시 지켜지고 실현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2) 주한미군의 주둔

휴전협정이 체결됨과 동시에 한반도에 진군하였던 미군과 그 동맹국 군대는 대부분 본국으로 철수했지만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의 미군부대가 여전히 유엔의 깃발을 달고 이 땅에 눌러 앉았다. 주한 미군의 병력 수는 1970년 초에 그 일부가 철수하기 이전까지는 대략 6만 5,000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리하여 남한은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존재하는 나라가 되었다.

자국 군대를 계속적으로 남한에 주둔시키고 아울러 한국군을 대폭 증강시키려는 미국의 조치는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격렬한 항의의 대상이 되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자 북한의 김일성은 미국과 남한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북한은 1958년경에 접어들어 중국인민군이 북한으로부터 완전 철수하였고 또한 자신들은 1만 명 정도의 병력을 감축시켰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주한 미군의 즉각 철수와 남북의 군비 감축을 반복해서 주장하였다. 중국 역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이리하여 주한 미군의 주둔은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한편에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내에서 최대의 쟁점이자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3) 뿌리내리는 반공 이데올로기

전쟁을 경과하면서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은 더욱 확고해졌고 남북 간의 대립과 불신은 한층 두터워졌다. 미국과 역대 남한 정권은 그들의 통치권 내에서의 전쟁도발 책임을 전적으로 북한에게 돌리는 데 상당히 성공하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과 남한 정부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

북한이 이러한 적개심을 지니게 된 것은 주로 그들 자신이 전쟁을 미국의 도발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미국이 강요한 엄청난 파괴와 실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민족적 동질성과 주체성은 실종된 채 외세에 대한 추종과 민족분열의식만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었다.

역사문화탐방 - 백마산 고분군에 다녀와서

백마산 고분군에서의 기억

황성하(2기 역사사랑 편집부원, 중2)

이번 해의 역사사랑 답사는 답사횟수에 있어서 작년의 활동보다 많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문화탐방의 글들은 몇 차례 안 되는 답사 지를 다녀와서 쓴 회원 분들의 답사기입니다. 역사사랑 회원들이 모두 다 같이 다녀온 백마산과 생초면의 고분들, 5·18때 다녀왔던 광주묘역, 한국전쟁 양민학살 진상지, 탁본 외에도 정재원, 심은아님이 다녀오신 ASEM PEOPLE FORUM과 최보경 선생님께서 참여하신 한일역사교사교류 그리고 이영석, 정재원님이 다녀오신 통일대축전 등에 대한 소감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사랑 활동 중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답사활동이 회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를 이해하실 수 있는 장입니다. -편집자 주

역사사랑에 있으면서 나는 많은 곳을 다녀왔다. 때론 지루했고 때론 재미도 있었다. 힘들었던 답사 중에 내 기억에 제일 생생히 기억되는 게 백마산이었다. 백마산의 이름 유래가 참 재미있다. 백마산은 옛날 임진왜란 때 왜군이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마침내 우리 지역 산청에 다다랐는데 남명 조식 선생님의 제자이신 곽재우 장군과 사람들이 백마산성으로 올라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왜군이 산에는 먹을 것과 특히 마실 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 아래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곽재우 장군이 지혜를 내어 왜군이 잘 보이는 산꼭대기에서 말을 세워 놓고 흰쌀을 말머리에서부터 계속 부었다고 한다. 그건 왜군들이 말에게 목욕을 시킬 정도로 물이 풍족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결국 왜군이 이 모습을 보고 퇴각하였고 이때를 노려 백마산성에서 내려 와 경호강물을 마셨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 때부터 이 산을 백마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역사사랑이 백마산 고분군에 갔을 때는 진달래가 꿋발을 내던 때였다. 그 전에 다녀온 생초면 어서리 고분군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고분은 비슷했다.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토요일이었다. 점심을 싸서 출발한 우리는 백마산 앞 주차장에서 점심을 먹고 올라갔다.

나와 영석이 형 재원이 형 한빈이 종현이는 다른 고분을 찾기 위해 일행과 다른 방향으로 갔다. 처음에 몇 개 비슷한 게 있었지만 고분은 아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점점 지쳐가자 우리는 고분은 찾지 않고 길을 찾기 시작했다. 겨우 길을 찾은 우리는 일행을 만나서 평지에서 잠깐 쉬다 옆에 있는 절벽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 50m 남짓 올라가자 무덤과 평지가 보였다. 그 곳에서 나를 비롯한 중학생 7명은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고분을 찾으러 갔다. 무덤가 옆에는 선돌이 넘어져 있었고 주위에는 토기 파편이 조금 널려 있었다. 무덤 가에서 20분 가량 기다리자 갔던 일행이 왔고 우리는 모두 하산했다. 내려 갈 때도 길 사정은 비슷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았다. 내려오던 나는 고분을 보았다. 고분은 다른 고분보다 약간 작을 뿐 별 다를 바 없었다. 고분은 모두 도굴되어있었다. 더러는 나무와 풀로 가려져 있었다. 나는 그 무덤들이 하나도 도굴이 안되고 그 문화재가 다 그대로 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상상이 가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리고 우린 몇 개의 고분을 더 관람 한 뒤 내려왔다. 내려와서 원지 가는 길옆에 다리 밑에서 답사 소감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백마산에서 난 그 고분을 만든 사람과 도굴꾼 모두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여하튼 고생한 백마산은 어떤 방식으로도 잊혀지기 힘들 것이다.

ASEM2000 PEOPLE'S FORUM을 다녀와서

민중의 역사

정재원(2기 역사사랑 교육부장, 고2)

ASEM은 1996년 아시아 10개 국가와, 유럽연합 15개 국가가 유럽공동체대표로 구성된 회의체로 출발하였다. 2년마다 참가국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고 방콕과 런던에 이어서 서울에서 이번 10월에 개최하였다. ASEM은 세계시장에서 APEC을 통한 미국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시장의 견제로서 볼 수 있다. 아셈회의에서는 주로 양 지역간의 무역과 투자 증대를 주요 의제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 ASEM회의를 위해서 막대한 돈(자그마치 1조5000억)을 들여 삼성동에 아셈타워를 세웠다.

내가 참여한 민간포럼은 세계화에 도전하는 민중의 행동과 연대라는 주제로 노동, 경제, 환경, 여성 등 13개 분과로 나뉘어서 서로 공통의 과제에 대해 토론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아시아와 유럽 각국의 시민단체와 NGO사람들이 와서 의견을 반영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논을 하였다. 아셈회의가 진행되면서 아셈에 대해서 반대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었다. 하나는 아셈회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셈회의 안의 시민사회공개 토론회를 설치하여 견제를 하자는 것이었다. 내가 참여한 민중포럼은 후자 쪽이었다.

아셈회의를 참가하기 위해서 하루먼저 서울에 가서 좀 쉬고 다음날 건국대로 가서 접수를 하고 초대 연회에 참가를 하였다. 첫날 행사는 환영초대 연회이어서 특별한 것은 없었다. 다음날 비로소 실질적인 민간포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다. 미처 어제 도착하지 못한 각국의 사람들이 속속 도착하며 점차 사람들로 붐볐다. 조금 뒤 영상물을 시작으로 이변 공개 토론회를 주제를 다루면서 발제를 시작하였다. 세계화에 따른 각국의 상황이 영상물에 잘 나타나 있었다.

각국 대표의 발제가 끝나고 점심식사를 하였다. 점심식사가 끝나고 여성분과 워크숍에 들어갔는데 남자가 나를 제외하고는 3명밖에 없었다. 그것도 다 외국사람이었다. 시민운동을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성이 아니면 여성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주로 이야기하는 중심적인 내용이 세계화가 전지구적으로 확대대면서 3세계의 노동자의 삶이 비참하게 되었고 그 대부분이 여성이라서 세계화가 여성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을 각국 나라별로 사례를 발표하고 연대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는 통신, 교통의 발달로 전지구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성매매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여성분과를 들어가서 이런 시민운동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성불평등에 대해서도 느낄 수가 있었다. 여성분과를 듣는 남자는 몇명이 안되었고 그중 한국인은 나 혼자뿐이었다. 여성의 문제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들도 그것에 일정한 책임이 있고 같이 해결해 가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여성들만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외국사람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여성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의 남성들이 지지를 보내오고 많은 남성들이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여

론을 조성한다고 했다.

다음날은 아침부터 워크숍이 시작되었다. 오전에는 인권분과를 들으려다 노동분과를 들었다.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무너지는 제3국의 사례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잘 모르고 지내던 제3세계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그것을 통해 이득을 챙기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들은 거의 하루종일 일을 하고 하루 임금도 $1를 겨우 넘거나 그에 미치지도 못했다. 그들은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도 없으며 정부는 개발, 외자유치라는 명목으로 방관하고 오히려 거대자본과 결탁하여 이런 법률 제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의해서 질병이나 산업재해를 당해도 전혀 보상받지 못했으며 다른 곳에 더 싼 노동시장이 생기면 이런 자본들은 수많은 실업자를 남기고 이동하여 큰 문제가 된다고 한다. 과연 국가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그들의 착취된 노동력 위에 세워져 있음을…

오후에는 청년분과를 들어갔는데 관심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되지 않았다. 외국에서는 청년이라고 하면 35세 정도까지 본다고 하여 우리와는 의미가 달랐다. 귀중한 시간을 좀 헛되게 보내어 아쉬웠다. 이것으로 모든 분과회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분과회의를 통해서 정리된 각분 과별의 제안을 모아서 people's vision 2000을 만들고 대강당에서 대표가 나와 낭독함으로써 서로 내용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아셈회의에 제안될 것이라고 하였다. 워크숍 정리가 끝나고 문화행사를 하였는데 각 국의 예술단들이 와서 자기들의 장기를 선보였고 마지막으로 풍물패와 락밴드가 어우러져서 공연을 하면서 관중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가 놀면서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 함께 하나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다음날 서울행동의 날이 있었다. 올림픽 공원부터 잠실운동장까지 약 3km를 행진하는 행사였는데 시작시간보다 약간 늦게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행사가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노동자 농민도 함께 참가하였다. 아셈회의에 참가한 각국 인사의 연설과 민주노총 간부의 연설로 시작하여 노래패 공연을 하면서 분위기는 고조되었고 점점 모여드는 사람들도 늘어갔다. 1시간정도 행사를 마치고 행진에 들어갔다. 행진하는 동안 주위에는 경찰에 둘러싸여 갔다. 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구호도 외치고 가면서 시위문화도 접해보고 예전에 시위를 매체를 통해서 보기만 했는데 내가 직접 시위에 참가하면서 지금까지 비난받아 왔던 시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했다. 잠실운동장에 이르자 더 이상 행진을 못하게 경찰들이 빽빽이 막고 있었다. 그렇게 많은 경찰을 보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시위신고도 이곳까지 되 있었고 해서 마무리 행사를 했다. 행사를 하고 있는 동안 몇몇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나아갔는데 뒤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마 무력충돌이 앞쪽에서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고조되었는데 다행히 큰 무력충돌 없이 예정대로 끝이 났다.

많은 시간을 학교수업을 대신해서 민중공개 토론회에 참가했다. 학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은 많이 느끼게 되었다. 한국내의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문제들이 점차 세계화에 따라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만인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점차 노동

자들의 삶은 세계화에 무의미해진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며 더 싼 노동력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실업자가 되지 않으려면 더 싼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결국 이런 일은 더욱 그들의 삶을 바닥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제3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을 이동시킨 나라의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국 소수의 몇몇 사람이 부를 축적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들의 부를 위해서 하루종일 일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초국적 자본에 대항해서 싸우기에는 한 국가에 국한된 노동자들의 힘은 그들에 비해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세계적인 연대와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시애틀 회의 결렬은 이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시민 운동세력 내에 존재하는 사치스러운 면이나 불평등에 대해서도 보게 되었다. 외국인이라고 우대하는 경우나 첫날 리셉션 하면서 잘 차려진 식사를 하고 마구 버려지는 음식쓰레기들을 보며 저렇게 많은 음식쓰레기를 버리면서 환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웃기기도 했다. 내가 생각하던 시민운동사회에 대한 일정정도의 환상이 깨어진 것도 있었고 그 안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입장들과 갈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고 온 것 같다. 절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영어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들으며 영어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다. 끝으로 이런 행사에 참가를 허락해준 학교에 고맙다.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역사사랑인들!

역사문화탐방 - 광주 5.18 묘역을 다녀와서

자 유

서청란(2기 역사사랑 교육부원, 중3)

지난 5월 18일 이 되기 전 일요일, 역사사랑에서 함께 광주에 갔다.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처음 가는 광주 행 이었다. 역사사랑은 작년부터 매년 광주 성지 순례를 하고 있다.

이 날은 햇살이 뜨거웠던 날이었다. 우리는 얼마 전 잘 조성된 신묘역을 뒤로 하고 5.18 구묘역에 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었다. 너무너무 복잡했다. 모두 서서 노래를 부르고 묵념을 하고 있었다. 우리도 껴서 조금은 어설픈 태도로 그러나 마음을 담아 따라했다. 그들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좁은 무덤들 사이를 걸으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왠지 숙연해 지는 듯 했다.

그 곳에는 '미국은 물러가라' 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많았다.

몇 해전 대학생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도 거기에 있었다. 여러 사람의 글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마음과 소원을 담은 돌무덤이 있었다. 우리도 한마디씩 써넣었다. 우리의 작지만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말이다.

학교에서부터 싸온 김과 밑반찬들로 점심식사를 하고, 신 묘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시간 부족 때문에 오래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보기에 무척 단장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진 전시관에 들어갔다. 그 때의 상황을 잘 보여 주는 듯 했다. 사망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은 차마 볼 수가 없었다. 그 사진을 보고 울음을 터뜨린 친구도 있었다.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보경 샘과 함께 광주역으로 갔다. 광주역에서는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곳에도 역시 많은 사람이 모여있었다. 희망새인가 하는 노래패의 공연도 보고, 연설도 들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미국인 여자가 미국의 만행을 규탄하고 국제 전범 재판소에 탄원하자는 내용의 연설이었다.

이건 돌아와서 한 생각인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어떤 것인지, 내가 자유인이라 할 수 있는지 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들… 폭력에 대항한 사람들…

그 날의 광주행은 내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그 날을 기억하며 김남주님의 자유와 안치환의 노래 자유를 떠올려 본다.

자유(김남주 시. 안치환 작곡)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자유
땀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 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노래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자유
피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 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노래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자유
피와 땀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노래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소리 높여
자유여 해방이여 통일이여 외치면서
속으론 워-- 속으론 제 잇속만 차리네
속으론 워-- 속으론 제 잇속만 차리네



말로만 듣던 망월동 묘역에 오니 그 날의 함성이 느껴져요.

역사문화탐방 - 생초면 고분군을 다녀와서

생초면 고분밭

지종현(2기 역사사랑 답사부원, 중2)

2000년 어느 날 토요일, 올해에 간 답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답사를 했다. 생초면 고분군 답사는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날짜 빼고는 그 날의 기억이 아주 생생하다.

보경쌤이 우리들을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납치(?)를 하셨다. 그냥 어떤 산이었다. 고분을 보러 간다는 대충의 사전 지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지 모르는 그런 일은 없었다. 우선 김혜영 선생님께서 싸 주신 맛있는 유부초밥을 먹고 보경쌤은 뒤쪽으로 고분이 무지막지하게 많다고 하나씩 찾아보라고 하셨다. 우리들은 모둠별로 끼리끼리 모여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퍼졌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에서 "쌤, 찾았어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한빈이와 성하와 함께 찾았다. 하지만 고분군이라고 해 보았자 커다란 구덩이 하나만 파여 있을 뿐이었다. 어떤 것은 직경 2m가량으로 뚫려서 기분을 묘하게 했다. 하나같이 거의 모두 도굴된 고분들이었다. 분명히 모두 소중한 우리의 유산인데…

우리들이 찾은 것 중 조금 신기한 고분이 있었다. 무슨 방 모양이었다. 역시 도굴이 되었는데 뚜껑돌이 고분 원래 그대로 있었다. 보경쌤은 이 고분을 굴식 돌방무덤이라고 하셨다. 말 그대로 고분으로 들어가는 굴 형태의 입구가 있고 돌을 가지고 방을 만들고 여기에도 시신을 안치하는 고분이다. 영석이 형이 한 번 들어가 보았는데 꼭 한사람이 누워있을 공간의 고분이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래돼서 잊어 버렸다.

어쨌든 여러 가지 추억들이 남은 곳이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더, 간디인 모두 함께 가고 싶다.



우리가 서있는 곳이 산청의 지배권력집단의 무덤인 생초면 고분군 이예요.

통일의 그 아름다운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이영석(2기 역사사랑 고문, 고3)

지난여름, 한양대학교에서 한총련과 민주노총, 전민특위 등 대학생과 여러 사회단체를 주축으로 한 '2000통일 대축전' 행사가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여파였을까?

올해 통일 대축전은 전례 없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행사개최를 인가해 주었다. 매년 열렸던 축전이지만 올해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들어 나도 참가해 정말 많은걸 배우고 왔다. 하지만 처음부터 참가할 의사가 있던 건 아니다. 축전 첫날은 하자센터에서 'Asia Festival'이란 행사가 있어 그곳에 갔다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우리학교 아이들 몇 명과 함께 한양대로 향했던 것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볼까나~

축전 첫날, 한양대는 시끌벅적했다. 오후 5시경에야 한양대에 도착한 나는 그곳에서 할 일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대학생들이 여기저기 둘러 앉아 있는 곳을 우리학교 아이들과 두리번거릴 뿐이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미정이 누나. 미정이 누나는 최보경 선생님의 동생인데, 진주사랑청년회 소속 자격으로 축전에 참가했던 것이다. 뭘 해야 할지 고민하던 우리는 자연스레 진주사랑청년회 회원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축전 장소를 돌아다녔다. 2박 3일 밤낮없이 열리는 축전이지만 부모님께 외박허락을 받지 않은 터라 오후 늦게는 집에 가야했다. 그리고 둘째 날. 전날 여기저기 돌아다녀 피곤한 탓인지 느지막이 눈을 떠 2시경에야 한양대에 도착했다. 우선 도착하자마자 최보경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다. 선생님께선 명동으로 오라고 아주 차갑게 말씀하셨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얼마나 힘들게 온 한양대인데 다시 명동으로 오라니… 참고로 우리 집에서 한양대는 족히 1시간 이상 걸린다.

어렵게 어렵게 명동에 도착해 선생님을 만나 명동성당에서 전경들과 대치하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 틈에 합류했다. 그곳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다. 전경이나, 우리편(?)이나 벌써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몇 있었고 전경의 선두와 우리편의 선두가 대치하고 있는 곳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상처 투성이었다. 그곳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우리편이 명동에서 한양대까지 가두 시위를 하려함을 전경이 막아서이다.

결국 젊은 한총련 통일선봉대만이 명동에 남아 끝까지 싸웠고 노동자와 청년회 쪽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고 한양대로 향했다. 최보경 선생님이 속한 단체가 청년회의 성격을 띄고 있던 터라 나도 지하철을 타고 한양대로 갔다.

어느 틈에 최보경 선생님이 속한 '손석용 열사 추모 사업회(이하 손추사)'의 일부분이 되어 버린 나. 많은 회원 분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는 대 운동장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야간행사가 시작되자 엄청나게 큰 운동장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섰다.

몸짓패, 노래패의 문화 공연과 장기수 선생님들의 강연 등의 장대한 행사가 끝난 때는 12시가 넘은 짙은 밤. 그때부터는 선생님과 손추사 회원 분들이 한양대 내 어딘가 에서 동그랗게 둘러앉아 술도 한잔하시며 얘기를 나누셨다. 나도 날새는 줄 모르고 어울려 있다가 새벽 6시가 되어버렸다. 그 때부터 1시간쯤 한양대 길바닥에 누워서 자다가 7시경 모두에게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향했다.

이렇게 해서 막이 내린 통일 대축전. 내가 그곳에서 느끼고 배운 점들을 모두 쓰자하니 지면이 너무 좁다. 하지만 한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회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많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생겼다.

사회에는 학생, 노동자, 농민, 정치인 등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나는 그 많은 사람들 모두가 참가하게 될, 통일의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실천한다!

세컨드 탁본

이한빈(2기 역사사랑 편집부원, 중2)

오늘은 단성으로 탁본하러 가는 날이다. 작년에도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쳐흘렀다. 하지만 걱정되는 게 있었다. 바로 날씨였다. 작년에도 비가 와서 고생을 잔뜩 한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기에 더욱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大역사사랑이 어찌 날씨 따위에 굴복하리. 그래서 단성으로 신나게 출발했다.

비석이 3가 있었기 때문에 조를 3개로 나누어서 한 조당 비석 하나씩 탁본하기로 했다. 우리 조는 한빈, 성하, 지선 누나, 연이 누나 이렇게 4명이었다. 우리 조는 열녀비를 탁본하게 되었다. 탁본을 시작할 즈음에 열녀비의 주인의 후손인 할아버지께서 오셨다. 할아버지께서는 열녀비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옛날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결혼 날짜만을 기다리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방이 될 남자가 매우 위험한 전염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은 모두 말렸으나 그녀는 '이미 그는 나의 서방이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서방이 될 사람을 성심껏 간호하였다. 그녀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죽어버렸고 그녀는 남자를 따라 자살하였다. 이를 나라에서 알고 그녀의 뜻을 기리고자 해서 열녀비를 세웠다.

열녀비에 대한 역사를 알고 나서는 이 비석을 우습게 볼 수 가 없었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성에 대해 너무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할아버지가 사다 주신 간식을 맛있게 먹고 우리는 탁본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자신감은 아주 많았지만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결국 우리 조는 탁본을 완성하지 못한 채 비석에서 화선지를 떼어내야 했다. 아쉬웠지만 이렇게 탁본은 끝내야만 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선돌이 있는 곳에 잠시 들려 선돌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정말 즐거웠다. 참 탁본하는 방법은 작년 1999년 회지에 상세히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역사문화탐방 - 산청 양민학살현장을 다녀와서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이영석(2기 역사사랑 고문, 고3)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답사지는 굉장한 유적과 유물이 존재하고 인지도가 높아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 따라서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는, 일종의 관광지다. 나는 역사사랑에 가입하고 활동한 이 후, 그렇지 않은 곳에 수 차례 다녀오면서 위의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지난 10월초 다녀온 산청군 외공리 양민 학살터도 그것이 잘못된 인식임을 깨우쳐 준 장소 중 하나다.

그곳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 또는 국군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많은 양민들의 유골이 발견된 곳이다.

지난 5월 14일 지역 주민의 증언으로 여러 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발굴 작업을 해 생겨난 그곳. 그곳이 지니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보' 급 유물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과연 미국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존재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일종의 고발 프로그램으로 공중파를 탔을 때 우리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해 조금의 인력도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게 한다.

언제나처럼 긴장감 없이 - 그냥 놀다오는 기분으로 - 출발해 1시간쯤 지나 도착한 곳은 정말 보잘 것 없는 낮은 산 속. 주차장은 커녕 화장실도 없는 곳이었다. 편의시설이라곤 사진이 걸린 게시판과, 안내 푯말이 전부였고 유골이 묻힌 큰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런 보잘 것 없는 장소임에 불구하고 경건함이 느껴지는 건 당시 돌아가신 양민들의 애닯은 울음소리가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은 아닐까?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 또는 국군에 의해 학살된 양민의 숫자는 엄청나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그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현 정부는 왜 그러한 학살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하려 하지 않는 것일까?

그곳이 널리 알려져야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곳은 절대로 서두에서 논한 일반적인 답사지처럼 유명해 질 수 없다. 그곳이 경건한 장소이기 때문에 관광지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대한민국과 미국의 우스운 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 우스운 관계는 매향리 폭격장의 계속적인 존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한·미 공동 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발표가 실로 터무니없는 것이었음을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5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굳이 진상규명을 논함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받자는 데에 이유를 두고 있지 않다. 국내의 역사적 진실은 민중들 모두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과거의

숨겨진 사실을 밝혀 냄이 역사적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는 지난 일을 일부러 들추어냄은 역사적 진보를 저해한다고 말해 한국전쟁 당시에 일어난 수많은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역사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와의 끊임없는 대화로써 과거를 거울로 삼아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즉, 과거 역사의 명확한 진상규명은 올바른 미래 설계와 직결된다고 얘기하고 싶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역사는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역사를 공부함은 분명 미래 지향적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란 질문에 해답을 얻게 해준다.

노력해야 한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언젠간 다 밝혀지리라!

역사문화탐방 - 한일역사교사교류를 마치며

희망을 발견하다!

최보경(역사사랑 지도교사)

이 글은 저희 역사사랑의 지도교사이신 최보경 선생님께서 지난 여름방학중 일본 대마도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역사선생님들이 매년 여는 한일 역사교사 교류라는 심포지엄을 다녀와서 일본 선생님들께 보낸 글을 실었습니다. -편집자 주

저는 분단된 식민지 조국의 땅에서 태어나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식민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주적 근대사회 건설의 실패와 식민지로의 전락 그리고 해방, 다시 분단과 식민의 역사를 살아온 식민지 한국사회에서, 저는 그저 평범한 청년일 뿐입니다. 또한 많은 남한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분단 현실에 대한 나름의 고민을 하고 대안을 실천적으로 풀어 가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전 교사가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입니다. 중2 때부터 역사 선생님이 되겠다는 생각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고민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역사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나의 세계관,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에서 아는 어떤 역사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 같은 물음이 단순히 젊은 교사로서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그런 고민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체로부터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 올 수 없다면 교사로서 아무리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생명력은 오래 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자기 삶의 주체로서 운동성을 지닐 때 참 교사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해 왔고 이 같은 생각 때문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 전국역사교사모임과 경남역사교사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일역사교류회. 처음 한일역사교류회 활동과 관련한 말씀을 선생님께 들었을 때 일본 역사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여러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얼마나 가슴이 벅차 올랐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일본의 역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지,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망언들, 그리고 최근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독도 문제 등 저는 교류회가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혼자 머리 속으로 상상하기 하였습니다. 더욱이 여러 선배 선생님께서 일본 내에서는 아주 진보적이시라는데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가슴에 손수건 달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 설레임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일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부담감과 한국의 풋내기(?) 교사라는 부족함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는 언어 소통에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잘 모르는 걸 물어 보면 어쩌지 하는 고민까지도 말입니다.

부산을 떠나 대마도로 떠나는 여객선에서 나는 문득 조국이란 내게 무슨 존재인가? 란 생각이 스치었습니다. 파도를 세차게 가르며 부산을 멀리하고 떠나는 순간에 나는 마치 내가 무슨 대단한 역사적 임무를 띄고 가는 존재인양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같은 한일역사교사교류가 이후 양국에 가져다 줄 역사적 파급력 때문이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류회의 존재를 알고 부터 줄곧 불씨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임이 지금은 미약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면서도 이 모임이 불씨가 되어 양국이 지난 시기 역사적 문제의 청산과 다가올 내일의 역사를 그려 갈 수 있으리란 기대가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2박 3일 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한일역사교사교류는 부족한 풋내기 역사교사에게는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해 주었습니다. 일본 선생님의 따뜻한 맞이와 친선은 제게 오기 전에 막연하게 가졌던 기대와 궁금함, 그리고 보이지 않게 작용했던 거리감을 현실적 시선과 애정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아무래도 일본 선생님의 열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청춘은 나이가 젊어서 청춘이 아니었습니다. 청춘은 가슴에 피어나는 열정이 있어 청춘이었습니다. 일본 선생님의 열정적인 수업과 말씀에 깊히 공감하고 저에게 감춰진 나태와 안일을 추구하는 거짓됨을 반성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번 교류가 대마도에서 열리고 대마도가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궁금함도 물론 있었지만 이번 교류에서 저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일본 선생님과 일본 선생님의 역사의식 그 자체였기 때문에 문화 유적지에 대한 답사는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일역사교류회가 극복해야 할 지점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교사 신분으로 수업에 대한 내용 공유의 한계를 벗어나 이제는 양국의 현안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줄곧 들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캐묻고 항변하듯 대충 마무리 된 지점은 정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신진균 선생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까지 마음 편히 손대지 못한 부분까지도 속 시원히 나눌 수 있는 한일역사교류회가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대마도에 도착할 때 보았던 일본 선생님께서 손수 제작한 환영 플래카드와 떠나며 여객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시던 그 감사함이 아직도 가슴에 훈훈하게 남아 있습니다. 더욱 질적으로 발전하는 한일역사교류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어린 풋내기 역사교사인 저에게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선생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간디인과 함께 - Red hunt상영

4·3과 레드 헌트

황성하(2기 역사사랑 편집부원, 중2)

<간디인과 함께> 에 실린 글들은 그간 적지 않았던 역사사랑 행사에 참여했던 역사사랑인들의 소감문과 그 행사들을 이끌었던 집행부들의 의의를 함께 실어놓은 마당입니다. 4·3 에 관련된 비디오 Red-hunt 상영전, 4·19 혁명 정신계승 마라톤 대회, 5·18 광주민중항쟁 정신계승 문예대전과 함께 간디인 모두와 배워보았던 몸짓에 대한 소감문들이 실려있습니다. 읽으시는 분들께서 역사사랑에서 주최한 행사에 대한 한층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자 주

레드헌트는 4·3항쟁 사건에 관한 기록 영화이며 1948년 당시 4·3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과 자료화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에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제주도민이 무장 투쟁을 일으킨 사건으로 4·3항쟁의 원인과 전개는 이러하다.

4·3항쟁의 원인

1945년 광복 후 우리나라 삼천리는 환희의 도가니였다. 그리고 좌익 세력이 점차 정치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제주도는 좌익 단체의 대표 급인 인민위원회가 주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1945년 9월 7일 맥아더 사령부는 이러한 내용의 포고문을 내린다. '일본 천황의 명령에 의하고 또 그를 대표하여 일본 제국정부의 일본 대 본영이 조인한 항복 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 일 북위 35도 선 이남의 땅을 점령했다.' 그리고 19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행사 도중 경찰의 발포로 여러 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3·1 발포사건, 4·3의 전주곡이 된 이 사건에 대해 인민위원회는 학살자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미군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제주도 총 파업 위원회는 '미군과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살상한 책임은 당연히 미 군정당국이 저야 한다. 정당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이다.' 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총 파업에 돌입했다. 이 파업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극대화되어 도내의 모든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가 되었다. 그러자 미 군정당국은 서북 청년단과 대동 청년단을 제주도로 급파했다. 이는 미국의 '민족 분단 음모'를 철저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서청단의 무자비 무차별적 탄압은 2000여명의 도민으로 유치장을 꽉 채우는 극단적 상황까지 빚어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남한의 모든 노동자가 총 파업태세에 들어갔고, 미 군정당국은 3·1행사에 관련된 경찰을 파문했다는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청단. 1군 경찰 등 폭력 단체들의 제주도민들에 대한 폭력은 그칠 줄 몰랐다. 미 군정당국은 일제치하에 있던 경찰을 그대로 끌고 내려왔다. 이 사실을 미군의 포고문에서도 볼 수 있다. "38도선 이남의 경찰 기관은 일제 때의 기능을 계속한다."

미국 군정하의 경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1941년 2만 3000여명에서 1949년에는 6만 여명에 달했다. 일제의 유산을 이어받은 경찰은 민중의 몽둥이 일 수밖에 없었다. 갖은 고문으로 민중의 몸을 망가뜨리며 범죄자 만들기에만 골몰했던 그 당시의 경찰은 더 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었다.

제주도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미군정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성명을 계속 발표했다. 그리고 1945년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되자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 위원회는 이에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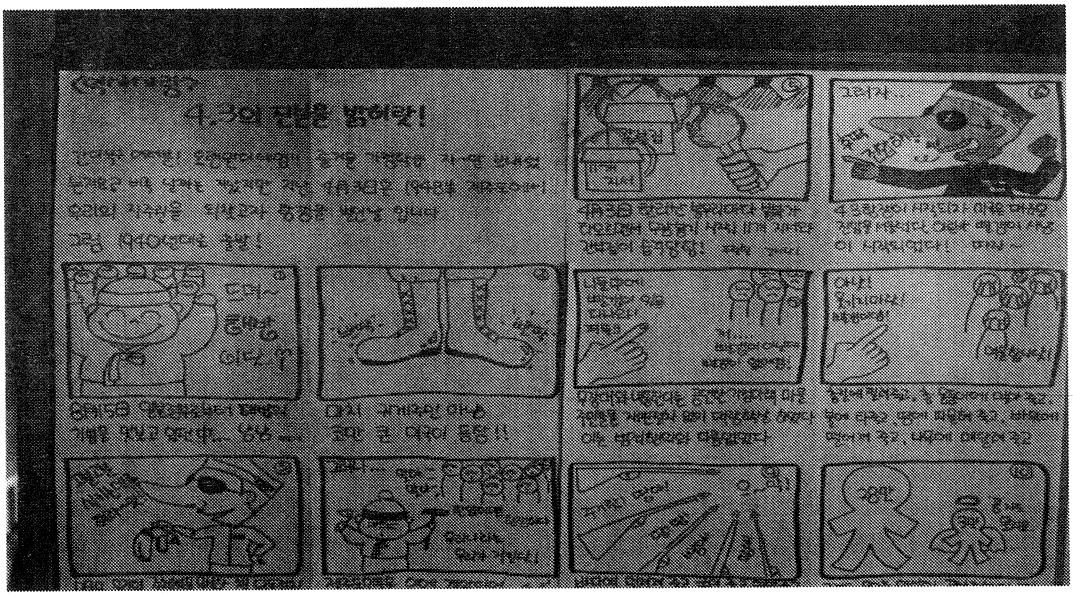
4·3항쟁의 전개와 학살

1948년 4월 3일 제주도의 모든 산에 봉화가 오르고 제주도민 3000여명이 무장 봉기를 시작했다. 결국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5·10 총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된다. 결국 미 군정당국은 초토화 작전을 시행한다. 초토화 작전은 문자 그대로 초토화 작전이었지 결코 진압작전이 아니었다. 초토화 작전은 5월 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압대는 갖가지 방법으로 초토화를 실행했다. 사람들을 끌고 가 총으로 쏴 죽이는 고전적인 방법에서부터 폭포에서 떨어뜨리는 것까지 무자비한 탄압이 계속되었지만 피해자는 거의 무고한 양민이었다. 제주도에서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는 11500여명이었지만 실제 8만 여명이 넘는 양민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무장봉기를 시작한 자는 3000여 명이었지만 그 26배가 넘는 양민이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야 했다.

레드헌트의 상영과 4·3항쟁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역사사랑의 주최로 4·3항쟁에 관한 비디오인 '레드헌트(Red Hunt)'를 상영했다. 비디오 내용은 제목이 암시하듯 빨갱이 사냥, 아니 빨갱이로 오인 받은 제주도 양민들의 억울한 죽음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이다.

나는 이 비디오를 보다가 내가 총을 맞아 죽거나 폭포에서 떨어져 죽기 전 심정을 상상해 보았다. 비디오에서 미군이 직접 학살에 참여했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때 대한 민국은 독립정부가 아닌 미군정부였다. 결국 정부가 죽인 게 아니라 미군정부가 죽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극히 막연하게 반미주의 성향을 띄는 것은 나도 그리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지만 8만에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4·3은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 크며 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비디오는 나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주었고 난 이 비디오를 잊지 못할 것이다.



간디인들과 함께 4·3 항쟁을 알아봅시다!

간디인과 함께 - 4·19 혁명 정신계승 마라톤 대회 의의

그날에 함성을 오늘에

이지선(2기 역사사랑 회장, 고2)

1960년 4월, 민주화를 위한 민중의 함성과 몸부림이 있었다. 중·고등 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시민들은 거리낌없이 자신들을 거리로 내맡겼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 앞에서 그들은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싸웠다. 독재의 총칼과 맞서서…

이승만의 장기집권과 정부의 부정부패, 부정선거에 대해 학생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규탄시위가 마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일어난다. 그러던 중 마산 1차 시위 때 실종된 김주열 군의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낚시꾼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에 학생과 시민들은 극도로 분노하였다. 이를 계기로 4월 혁명은 시작되었다. 이승만은 전국으로 계엄령을 내리고 자신의 독재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발포하며 강경 진압을 하였다.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가 배출되었으나 민중의 외침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승만은 민주화를 향한 이들의 열망에 이승만과 자유당 독재 12년의 장기 집권은 막을 내렸다. 학생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고 혁명은 성취된 것이다. 하지만 민중이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한 채 야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 보수정당인 민주당은 혁명적인 개혁을 미루었고, 5·16 쿠데타로 민주당 정권마저 무너짐으로써 4.19혁명은 미완의 혁명으로 남게 된다. 하지만 이 혁명은 민족·민주운동의 출발이 되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나에게 주어진 것인가?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자유라는 말을 쉽게 내 뱉으며 쉽게 방종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 지… 40년이 지나서 다시 4·19를 맞은 우리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란 것을 되새겨야 한다. 이 자유는 민주화를 열망하며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리며 목이 터져라 외쳤던 수많은 민중들의 피의 대가란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인 민족분단을 통일로 이끌어 가려했던 민중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시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거리를 뛰어 다닌 사람들의 정신을 함께 계승하고자 하여 역사사랑 주최로 4·19혁명 정신계승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간디인 모두에게, 마라톤을 하면서 닥치게 되는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끝까지 달려감으로써 그 날의 정신을 되살려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 날의 정신을 계승하여 독재 없는 민주화를 위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가자!!

간디인과 함께 - 4·19마라톤 대회를 마치고

독재와 맞써싸운 그들을 생각하며

최정아(2기 역사사랑 신문부원, 중1)

지난 4월 역사사랑 주최로 하여 4.19혁명 정신 계승 마라톤이 있었다. 영석이 오빠가 이 안건을 낼 때 왜 할까? 해도 참가할 사람이 없을 텐데… 하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이 틀렸다. 역사사랑 회원들과 그 밖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전부 합해서 한 50팀쯤이 마라톤에 신청을 하였다. 2인1조로 했으니 거의 100명 정도가 뛰었을 것이다. 우리 반 아이들부터 고3 언니오빠들까지도 마라톤 신청을 했었다. 나는 원균이 오빠랑 한 팀으로 신청했다.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에 마라톤 참가자들이 모여 등번호를 달았다. 나도 원균이 오빠랑 같은 9번을 달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출발을 기다렸다. 보경샘이 마이크를 들고 설명하시고 이름 모를 오빠가 비디오 카메라로 상황을 찍었다.

사람들이 다 모이자 잠시 묵념을 하고 송현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영석이 오빠가 4·19혁명에 대한 의의를 설명해 주었고 이어 보경샘이 뛰는 코스를 가르쳐 주었다. 학교에서 홍화원을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출발시간! 4.19혁명 정신 계승 마라톤 대회라고 써진 현수막 뒤로 참가자들이 죽 섰다. 그리고 보경샘의 "출발" 이라는 소리에 모두들 같은 팀끼리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빨리 뛰는 팀, 천천히 걸어가는 팀, 서로 꼴찌 하겠다고 하는 팀들도 있었다. 나도 원균이 오빠랑 열심히 뛰었다. 중간쯤 내려가서 막 뛰다보니 나랑 원균이 오빠가 선두가 되었다. 그리고 계속 뛰다가 걷다가 하였다. 너무나도 숨이 차서 걸을 때에는 4월19일에 시위했던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건 아무 것도 아닐 거야 하고 다시 뛰었다. 그리고 한참을 뛰다보니 학교가 보였다. 천천히 뛰어서 골인지점에 왔다. 나랑 원균이 오빠가 1등이었다. 막 뛰다가 갑자기 멈추니 숨이 더 차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땀이랑 눈물이 흘렀다. 눈물은 왜 난 것일까? 수영을 해 두어서인지 그렇게 까지 힘들지 않았었는데…

좀 쉬다 보니 호열 오빠와 은희샘, 한성오빠와 민주 언니 팀이 차례로 들었다. 그리고 하나 둘씩 현수막을 지나왔다. 거친 숨소리와 돌 위에 앉아서 쉬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났다. 거의 모든 팀들이 도착했을 때쯤 시상식을 하고 4.19 왕 짱구를 받았다. 모두들의 표정이 힘들었지만 기뻐하는, 뿌듯해하는 얼굴이었다. 나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뛰었다는 것에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다. 물론 1등을 해서도 좋았지만… 학생들은 거의 다 왕짱구를 먹고 있었다. 이렇게 마라톤은 끝났다.

4월19일에 혁명을 일으킨 학생들에게 감사하다. 정의를 지키려던 학생들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는 2000년 4월19일을 절대 못 잊을 것 같다. 4.19를 확실히 알고 맞이하게 된 날이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4.19를 되새기는 맘으로 마라톤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 행사에서 처음으로 1등한 날이기도 하니까!

간디인과 함께 - 5·18문예대전의 의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정재원(2기 역사사랑 교육부장, 고2)

광주민중항쟁은 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났다. 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에 살해되자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틈타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 세력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에 대항하여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위한 시위가 연일 계속 되었다. 결국 5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시위는 계속되었다. 이에 신군부 세력은 광주라는 특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정권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광주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광주에 투입한다. 광주에서 무차별적으로 광주시민을 폭행하자 광주시민은 분노하여 스스로 자치적으로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에게 대항하여 결국 광주에서 계엄군을 몰아낸다. 7일 동안 광주는 계엄군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고 한 건의 치안사고도 없이 평화적인 날들을 보낸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새벽, 계엄군은 갑자기 중무장을 하고 들이닥친다. 광주는 다시 계엄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이로서 광주민중항쟁은 표면적으로 끝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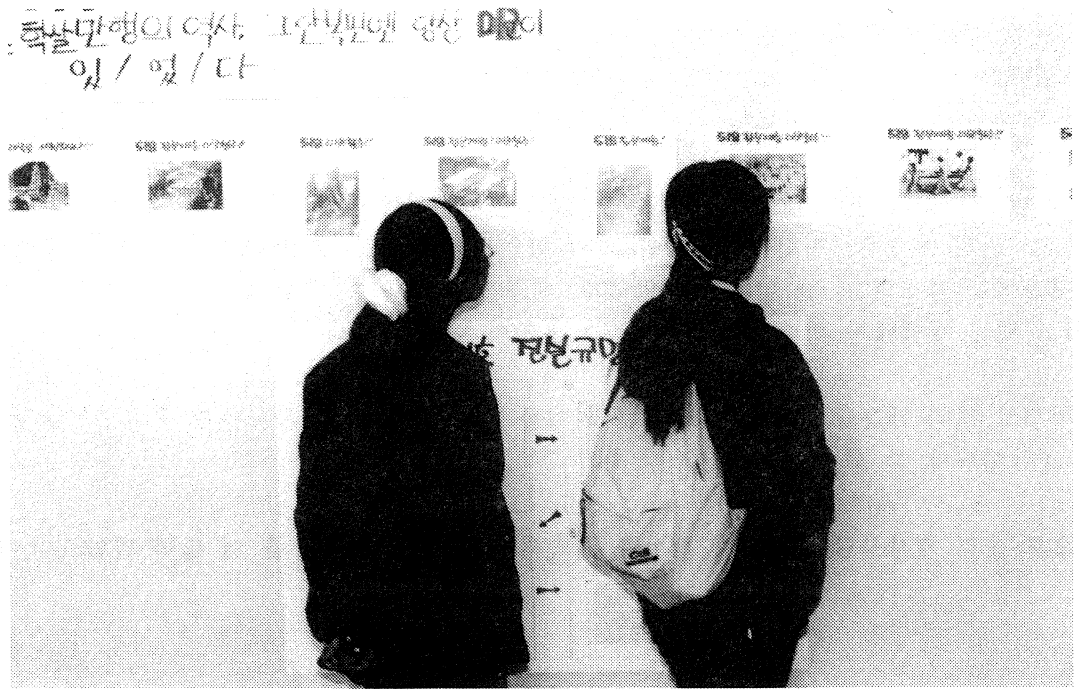
올해는 광주민중항쟁(이하 5·18)이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년이나 지난 광주민중항쟁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광주민주화항쟁은 4·19혁명을 이어 민중의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후에 6월 항쟁으로 그 정신이 계승됨으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광주민중항쟁을 통해서 민주화와 통일을 향한 사람들의 열정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단결된 모습과 힘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잘 알지 못했던 우리 나라의 배후에 있는 미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우리가 학교에서 광주민중항쟁을 기념해 문예대전을 하는 것은 우리 역사사랑만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자세히 모르고 있는 간디학교 친구들과 광주민중항쟁에 대해 이번 기회에 좀더 자세히 알고 많이 알리기 위해서이다. 광주민중항쟁처럼 현대사의 아픈 모습들과 진실 대부분이 정권과 반민주 반통일 기득권세력에 의해 왜곡되었거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마련하여서 간디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군사정권 아래에서처럼 가혹하게 탄압 받지 않고 지금처럼 그나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광주민중항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피흘리고 쓰러져간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당연시 되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어진 자유를 당연하게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4·19의 함성을 오늘에 되살려!!



5·18 사진전을 유심히 관람하는 간디학교 친구들

간디인과 함께 - 5·18 민중항쟁 정신계승 문예대전을 마치고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광주의 그 날

김슬기(2기 역사사랑 신문부원, 중1)

5·18광주민중항쟁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역사사랑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였다. 5.·18 사진전 그리고 간디인이 참여하는 문예대전, 5·18 기념 재단에서 제작한 비디오 상영 등 모두가 뜻깊은 행사였다.

첫째 날, 사진전에서는 끔찍한 사진이 대다수였다. 예를 들면 군인이 사람을 강목으로 내려치는 사진,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사진 등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진들이었다. 하지만 끔찍하다는 생각보다 충격이 더 컸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사람들을 막 쏘아 죽였기 때문이다. 사진전은 나에게 5·18에 대한 상황을 실감나게 .해 주었다.

둘째 날, 문예대전을 했는데, 나는 작품을 못 내었지만, 정아랑 이슬이는 그림으로 광주민중항쟁을 표현했다. 다른 여러 언니들은 만화를 그렸고 호열 오빠는 노래를 창작하고 불렀다. 영림 언니는 직접 광주민중항쟁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광주 망월동에서 가서 비디오를 찍어 보여 주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호열오빠의 노래였다. 특이해서 일까? 노래의 가사도 5·18 민중항쟁의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열오빠의 노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어두웠다. 영림 언니의 비디오는 5월 14일 역사사랑에서 답사를 갔던 광주 망월동을 찍은 것이었는데, 시간 상 다 보지는 못하고, 중간 중간 돌려 가면서 보았다. 간디인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어 너무 좋았다. 심사는 회장인 영석오빠를 비롯해 집행부에서 했고 작품을 출품한 집행부는 빠졌다. 내 예상대로 결국 문예대전의 1등 자리는 호열오빠가 차지하게 되었다.

셋째 날, 점심시간에 비디오를 보여 주었는데, 처음부터는 보지를 못했다. 하지만 비디오를 보는 친구들의 표정은 "이런 일이 과연 진짜 있었을까?" 라는 표정이었고, 나 역시 광주까지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어지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냥 "5·18이라는 것이 있구나" 정도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비디오를 봤으니, 그 표정이 이해가 갔다.

교과서로 잠깐 배운 5·18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몰랐는데 이번 5·18행사로 인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역사사랑에서 이런 행사를 계속해서 우리 간디인이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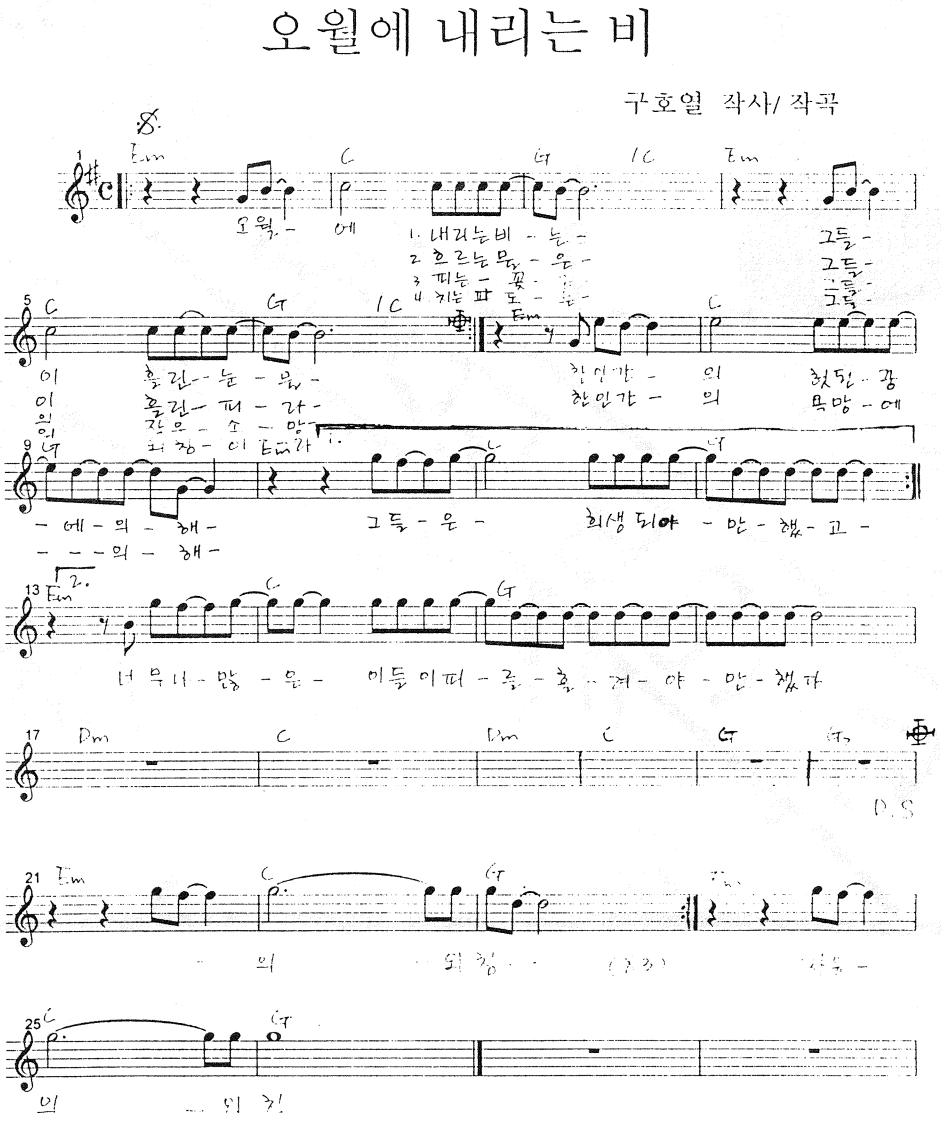
5·18문예대전 최우수상

5월에 내리는 비

구호열(간디학교 고3)

이 곡을 만들게 된 동기는 정말 뜻있는 곳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이다. 곡의 내용은 5.18광주민중항쟁에 대한 노래이다. 이 노래가 그 당시 항쟁 때의 영령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리고 한가지 바램은 이 노래가 간디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듣고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5·18 문예대전 출품작



5·18 도대체 무슨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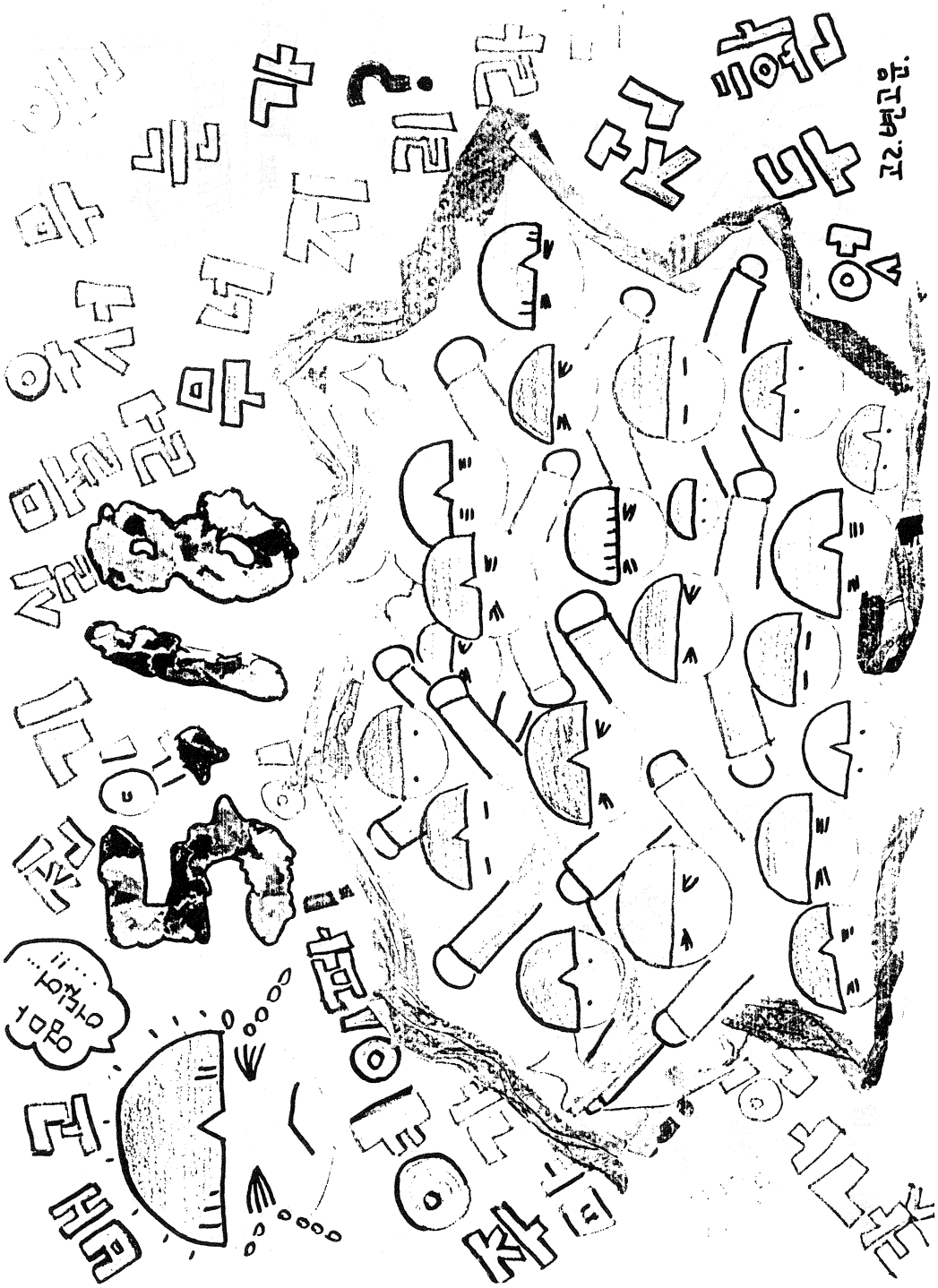
박은혜(간디학교 고2)



5·18 문예대전 출품작

엄마 어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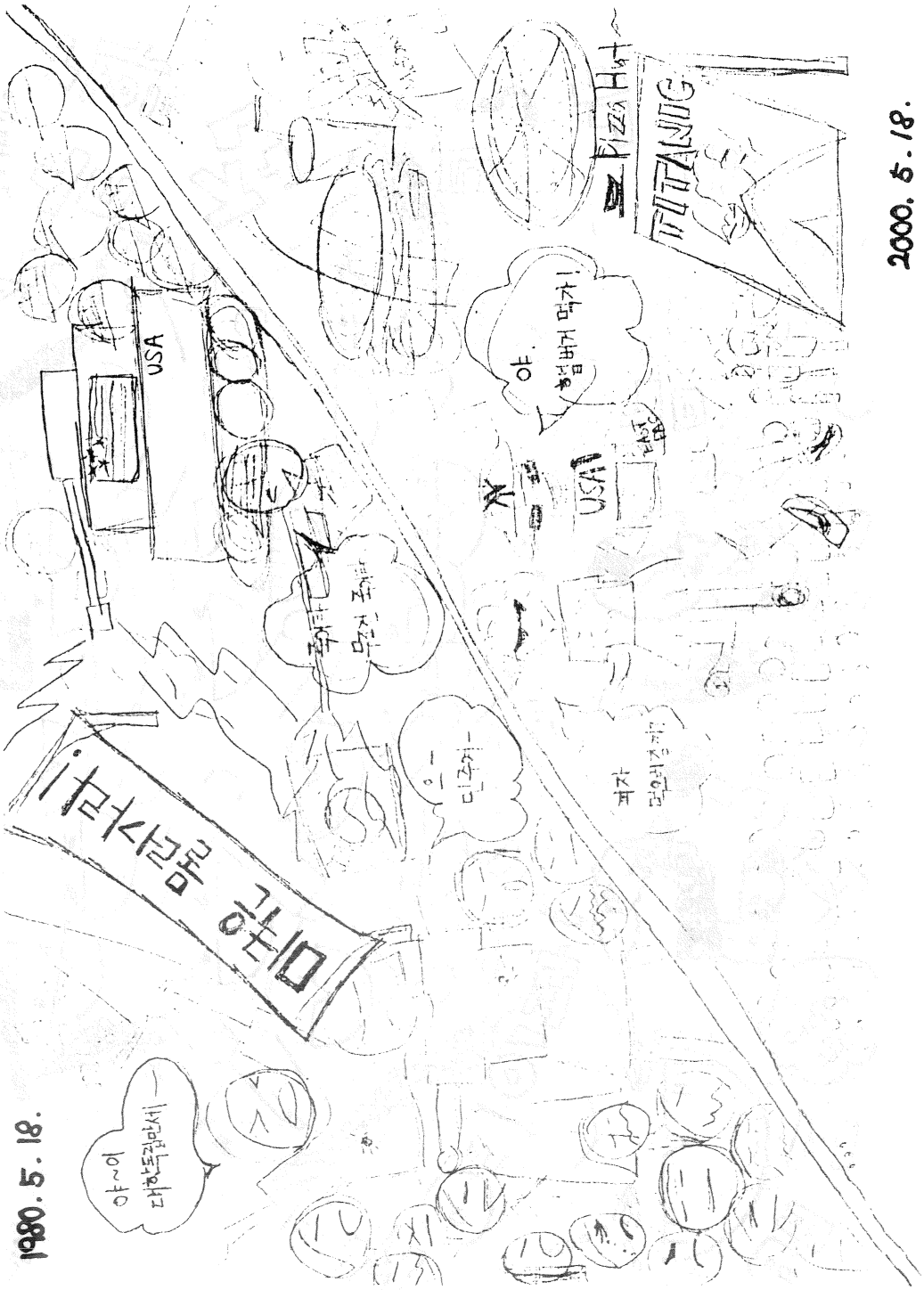
변고운(간디학교 고2)



5·18 문예대전 출품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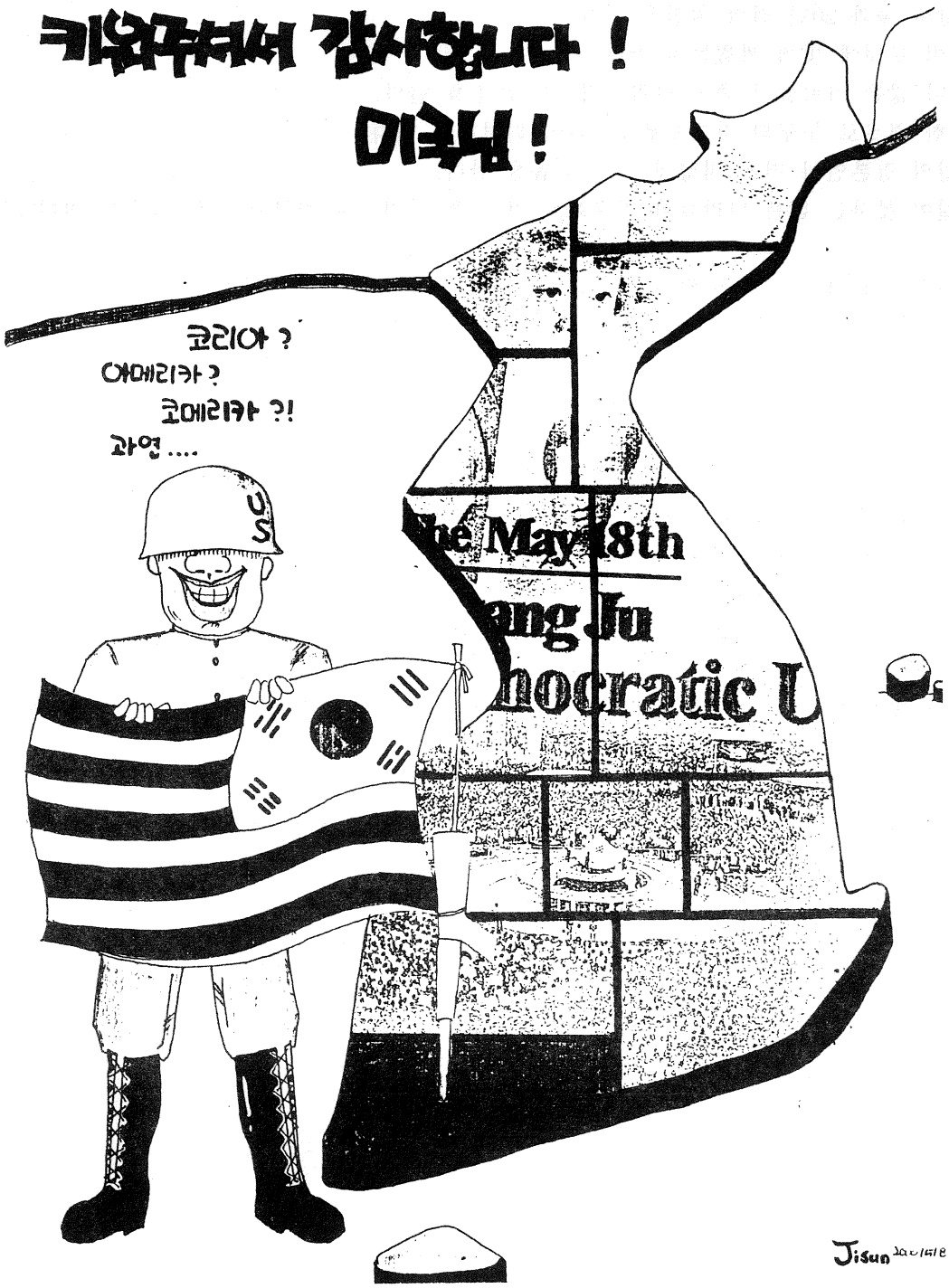
U S A

염이슬, 최정아(간디학교 중1)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님

이지선(간디학교 고2)



5·18 문예대전 출품작

바라는 것

최늘샘(간디학교 고2)

내가 그날을 상상할 수 없음을 안다.
그 날이 불과 20년 전의 일임을 안다.
그들이 무엇에 맞써 싸웠는지 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 그 '숫자'를 안다.
어떠한 경로로 누구의 잘못으로 그 일이 터졌는지 안다.
그 일의 장본인이 저기 저렇게 살고 있음을 안다.
그 일이 못사는 많은 나라들이 민주화로 가는 한 과정으로 치부될 수도 있음을 안다.

그 시절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어떤것에 작은 웃음을 지었을지 난 모른다.
군인들이 무엇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히 죽일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떳떳할 수 있게 한 권력이란 걸 난 모른다.
친구, 부모, 아들 딸이 죽어나자빠진 것을 마음을 난 모른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민중의 힘을,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직 모르겠다.

어렴풋이, 버스 지붕위에서 끓어오르는, 복받치는 가슴으로 태극기를 흔들던,
그들의 용기와 두려움이 느껴지는 듯하다.

나는 내가, 우리가, 우리세대의 민중이 무엇에 대할하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몇시간, 아니 몇분후 현재를 살며 다시 느껴질 때까지 까마득히 잊고 있을 과거의 일이 될 것을 나는 잘 안다.

다만 언젠가 내가 그렇 용기를 필요로 할 때 그들과 함께 하길 바란다.

간디인과 함께 - 기말 축전을 마치며

50년 세월의 긴 이별 뒤의 만남

이지선 (2기 역사사랑 회장, 고2)

어느 새 반 학기가 훌쩍 지나가 버리고 기말 축전이 다가왔다. 유난히 북적대는 이번 축전에 역사사랑은 '통일'에 관한 주제로 '통일꽃 달기','통일 의식 조사','북녘동포 바로 알기 OX 퀴즈' 이렇게 3가지 행사를 준비하였다. 축전 바로 한달 전에는 통일을 향한 움직임들이 아주 많았었다. 6.15 공동선언부터 시작해서 이산가족의 재회, 평양 예술단 방문 등은 그 동안 남북사이의 얼었던 냉전 관계를 종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속에 생겨난 통일 열망의 분위기는 한반도 전체에 확산되었다.

간디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가 통일의 분위기에 들떠있었다. 하지만 통일의 대상인 이북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었다. 기성세대는 반공사회 속에서 살았었고, 우리 역시 아직도 반공 교육을 은연중에 받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 공동선언 전까지 북녘동포들 머리에 뿔이 달린 빨갱이들이라 생각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역사사랑은 그 진실을 모두 함께 공유하고자 이런 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통일 의식 조사'는 여러 문항이 써 있는 대자보 위에 스티커를 붙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진지한 조사였지만 가끔씩 아주 엉뚱한 대답을 선택한 것도 보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참가로 스티커가 부족하여 난감했기도 했었다.

'통일 OX 퀴즈'는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사회자가 말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맞춰가며 퀴즈를 풀어가는 것이었다. 진행은 은아와 지현이가 맡았다. 평소에는 커 보이던 강당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 왜 그렇게 좁아 보이던지... 많은 사람들이 진행자의 말에 따라 이리 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참 재미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북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퀴즈라는 형식을 빌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이북의 진실한 모습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통일 꽃 달기'는 역사사랑이 손수 만든 한반도 모양의 스티로폴을 벽에 붙인 뒤에 색종이로 일일이 수작업한 꽃 위에 통일에 대한 자신의 표현을 쓴 다음 핀으로 고정시키는 것이었다. 만난 적도 없고 본적도 없는 이북의 그들에게 아주 친근한 말투로 "친구야!" 라고 부르는 글을 볼 때는 함께 할 수 없음에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도 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간디인들의 소망으로 이루어진 꽃들이 가득 메워져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루 빨리 조국 통일 그 날이 왔음을 간절히 바랬다.

역사사랑 회원이 전원 협력하여 진행되었던 이번 축제는 모든 간디인이 함께 즐기고, 북녘동포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 있었던 아주 의미 깊은 행사였다.

'조국통일'을 자유롭게 외치면서 바랄 수 있고, 북의 괴수(?!) 김정일 국방 위원장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박수 한번이라도 떳떳이 줄 수 있는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수많은 희생이 있어야 했다. 50년의 긴 분단 속에서 통일에 대한 민중의 열망은 끊임없이 표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반통일 세력들(친일파, 친미파)에 의해 조국

통일은 이룰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반통일 세력들은 많은 모순들을 억지로 합법화시켜 철저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였다.

국가보안법이 대표적인 그들의 수단이었다. 이는 북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반국가 단체로 단정지어버려 통일을 더욱 멀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통일을 위한 운동을 모두 반국가적 행위로 단정지어 버리기에 진실은 묵살 당하고 왜곡되기만 했었다. 통일 운동을 한 사람이나 그와 관련 있는 사람, 심지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까지 적색분자로 몰아버려 더 이상 통일을 위한 움직임을 없애려는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또 우리 나라 배후에는 항상 미국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가로 우리 나라의 통일은 그들의 식민지 중 하나인 한국을 통일로 인해 점령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은 우리 나라의 군사권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조작된 사건들을 일으켜 반공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통일 세력의 반공 의지 속에서 왜곡된 역사의 진상규명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보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간디인부터 먼저 진실을 알고 그 진실을 추구하며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 같다. 이젠 우리 역사사랑이 이 길을 앞서서 가련다.



학부모도 해요! 학생도 해요! 샘들도 해요! 우리 함께 해요!

▶ 기말축전 행사 중 진행된 북녘 동포 바로 알기 OX퀴즈 대회 문제

1. 북에도 삐삐와 휴대폰이 있다(0)
2. 삐삐는 알림종이다 (×): 주머니종
3 북한의 갑작 바람은 돌풍을 얘기한다.(○)
4. 북한의 가락지빵은 작은 찐빵을 얘기한다.(×): 도너츠
5. '이삿짐'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이삿짐'이다.(×)

: 정답은 이사짐-단어가 합성될 때 나타나는 '사이시옷'은 북한에서는 일체 표기하지 않는다. 단, 발음은 남한과 똑같다.

6. 북한에서는 양심을 '량심', 역사를 '력사' 여자를 '녀자' 등으로 적는다.
그렇다면 유리도 '류리'로 적는다. (×): 그냥 유리로 표기
7. 두벌자식은 둘째 자식을 뜻한다. (×): 손자
8. 하모니카집은 지하철을 말한다. (×)
9. 해당화는 담배를 일컸는 은어이다.(0)
10. 북한에서 말하는 단고기는 쇠고기이다.(×) : 개고기.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부위별 요리를 하는 등 인기있는 음식.
11. 북에서 해방처녀는 남성과의 직업 경재에서 이긴 여자를 말한다.(×) : 미혼모를 말하는 은어
12. 우라가 말하는 스킨로션은 북에서 살결물이다. (0)
13. 북한에서 일없습니다는 우리식 표현으로 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 : 정중히 사양할 때 괜찮다는 표현
14. 우리는 6(초등)-6(중등)-4(고등)제의 기본 학제를 가지고 있다. 북한도 우리와 같다.
(×) : (1)-4-6-4제
15. 북한에는 실업고등학교가 존재하지 않는다.(○)
: 기술교육은 중등교육을 마친 기술자 양성기관이나 대학에서 이루어진다. '직업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을 일찍부터 차별하여 노동자로 만들고 천대하는 교육'이라고 비판하며 '직업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16. 남한은 초등6년을 무상의무교육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인민학교까지로 정하고 있다. (×))
17. 무상의무교육기간에 유치원 교육은 포함하지 않는다.(×)

: 1972년 학제개편과 더불어 2년제 유치원이 학제에 포함되었고, 75년 유치원 높은 반 1년을 11년제 의무교육제도에 포함시킴으로서 유치원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유치원 높은반1년+ 인민학교4년 + 고등중학교6년)

18. 북한에서는 영어를 미제의 언어라고 해서 가르치지도, 배우지 않는다. (×)
19. 북한의 대학은 동창회가 없다.(○)

: 동기, 동창, 동향, 사제관계를 이용하여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반당적인 종파행위로 생각

20. 북한의 대학진학은 대부분 우리처럼 고등학교(고등중학교)를 졸업후 바로 진학한다. (○)
약 10퍼센트, 70%(군제대 후), 20%(직장 소속자)
21. 북한의 모든 시험은 주관식이다.(○)
22. 북한의 정식 국가명은 조선사회주의 인민 공화국이다. (×)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23. 북한의 나라꽃은 김일성 화이다. (×) : 목란(함박꽃) 김일성화는 인도네시아 식물학자가

선물한 꽃으로 우리나라에는 자생하지 않는다.
24. 북한의 국보 1호는 만수대 김일성 동상이다. (×) : 평양 대동문
25. 북한의 동성동본 결혼은 가능하다. (○) : 동성동본 불혼은 봉건잔재라 생각하여 청산하였다.
26. 북한의 컬러 텔레비전은 남한보다 일찍 개발되었다. (○) 1974년 우리나라는 1981년
27. 북한의 지하철은 남한보다 일찍 개발되었다. (○) 1961년
28. 북한에서도 쌍꺼풀 수술을 한다. (○)
29. 북한에서 쌍꺼풀 수술은 유료다. (×) : 무료
30. 북한 1원짜리 지폐의 주인공은 김정일이다. (×) '꽃파는 처녀'의 인민배우인 홍영희
31. 김정일의 현재 공식 직함은 주석이다. (×) : 국방위원장. 주석제는 폐지됨.
32. 북한에서 여성은 반드시 흰 저고리에 검정색 통치마를 입어야 한다. (×)
33. 북한에도 패션쇼가 열린다. (○)
34. 구름머리, 폭포머리, 청춘머리, 파도머리 등은 북한에서 말하는 독특한 우리식 헤어 패션을 말한다. (○)
35. 북한에서도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닌다.(×) : 청바지도 미국놈이 만들 바지라 하여 입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청바지가 유행한다고 증언. 찢어진×
36. 북한 청소년들도 땡땡이를 친다. (○) 우리와의 경우와는 틀리게 강가에서 뱃놀이를 즐긴다던지 아니면 멱을 감는다.
37. 북한에는 이혼이 없다.(×) : 이혼은 있으나 우리처럼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
38. 백두산, 갱생, 금수산호25, 승리 58, 자주 92, 건설 등은 북한의 자동차 이름이다.(○)
39. 북한에서 자유 연애를 할 수 있다. (○) : 엄밀한 장소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 가능
40. 북한에서 연애는 곧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41. 북한에도 러브 호텔이 있다. (×)
42. 북한에도 공식적인 에이즈 환자가 있다.(×)
43. 북한의 미인형은 보통키에 통통하게 살이 오른 얼굴이다. (○) : 대표적 미인상은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으로, 그녀가 사회주의 건설의 일꾼으로 땀흘려 일하는 (사회주의 여성상)에 부합되기 때문.
44. 북한에는 족보가 없다. (○) : 봉건잔재와 종파주의의 온상이라 하여 없음.
45. 북한에서도 제사를 모신다.(○) : 60년 말 다시 허용.
46. 북한에는 화장터가 없다. (○) : 지정된 공동묘지에 인장.
47. 북한에는 그룹 사운드가 없다. (×) 보천보 전자악단이 대표적
48. 북한에서도 락 공연이 열린다. (0) : 국제 락공연도 열리나 흔한 일은 아님
49. 오빠부대나 팬 레터가 있다. (○) : 극성적이진 않지만 성과 편지 (펜레터) 가 있다.
50. 북한에도 영화 암표가 있다. (○) : 북의 영화는 상종가, 연평표 영화관람 횟수로 10~24정도.
51. 북에도 고스톱을 친다. (×) : 50년대 이후 사라짐. 가능성 있어 보임. 개방으로 인해.
52. 북에는 노래방이 없다. (×) : 있다. 화면 반주 음악실이라 불리며 돈을 버는 상업적성격은 아니다.
53. 북에도 에어로빅이 있고 TV방영도 한다. (○) : 율동체조라 하며 적극 권장하고 보편화.

54. 북에는 음란 비디오가 없다. (×) :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적발되면 사상교육을 받고 때로는 추방되기도 한다.
55. 북에는 볼링장이 없다. (×) :보링그관이 있어 즐긴다.
56. 북한에도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다.(0)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장려
57. 사무직은 육체노동자 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 (×) : 육체 노동자가 많이
58. 북한에는 공중전화가 없다. (×) : 공중전화가 있다.
59. 공중전화는 모두 동전식이다. (0)
60. 북한 아이들은 컴퓨터 오락을 하지 않는다. (×)
62. 북한에서도 자체 개발한 소프트 웨어가 있다. (0) : 창덕. 그러나 이제는 한물가고 개정판인 창덕 2가 90퍼센트 이상 차지한다.
63. 스튜디어스를 북에서는 비행여성이라고 한다. (×) : 비행승무 안내원.
64. 북에도 교통체증이 있다. (×) : 교통체증은 없고 차량이 부족하다. 걷는 걸 기본으로 한다.
65. 북에도 복권이 있다.(0) : 복권을 금지해 오다 1991년부터 인민복권 발행.
66. 북한의 주식은 강냉이이다.(0)
67.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평양산원은 아이들의 놀이공간이다. (×) 산부인과 병원.
68. 세계 최대의 건물인 유경호텔은 100층이다. (105층)
69. 하루에 8천그릇이나 팔리는 평양냉면집은 평양반점이다. (×) 옥류관
70. 북에도 라면이 있다.(×) 80년 초 스프없는 꼬부랑 국수로 잠시 시판되었다가 사라졌다.
72. 북의 밥공장은 우리의 도시락 공장과 같은 것이다. (×) 밥공장은 여성의 노동력을 덜기 위해 만든 공장이다.
73. 칠보산, 홍초, 낙원, 평양, 영광, 갈매기, 휘파람새 등은 담배 이름이다. (0)
74. 북에는 교회가 없다.(×) 봉수교회를 비롯 우리와 같이 교회가 있다. 예배의식도 우리와 비슷하다. 평양 신학원이 설립되었고, 정부에 신고하면 종교활동에 제약이 없다.
75. 북에도 콘돔이 있다. (0)
76. 북에도 1회용 생리대가 있다. (×) 생리대는 없고 위생대라 하여 일회용은 아니라삶아 빨아서 쓴다. 남한이 1회용 생리대가 들어오기 이전 쓰는 방식과 같다.

▶스티커를 이용한 통일의식 조사에서 간디인의 생각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1. 통일은 되어야 하나?

그렇다	75명(73.6%)
아니다	20명(19.6%)
모르겠다	3명(2.9%)
관심없다	4명(3.9%)

2. 통일은 어떤 방법으로 되어야 하나?

자주적 평화통일	68명(79%)
북진무력통일	8명(9.3%)
독일식 흡수통일	8명(9.3%)
모르겠다	없음
관심없다	2명(2.4%)

3. 남북정상회담이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큰 영향을 미친다	61명(67%)
약간 영향을 미친다	21명(23%)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명(6.5%)
모르겠다	없음
관심없다	3명(3.5%)

4.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기존 인식이 변화하였는가?

크게 변화하였다	39명(44.3%)
조금 변화하였다	29명(32.9%)
변화없었다	12명(13.6%)
모르겠다	4명(4.6%)
관심없다	4명(4.6%)

5. 통일을 가로막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해심 부족	32명(26.8%)
이데올로기	24명(20.2%)
잘못된 법	13명(10.9%)
외세의 영향	44명(36.9%)
김정일 적화야욕	3명(2.6%)
모르겠다	3명(2.6%)

6. 언제쯤 통일이 될까?

2~3년 후	12명(15%)
5년 후	33명(41.3%)
10년 후	24명(30%)
불가능하다	4명(5%)
모르겠다	7명(8.7%)

아름다운 몸부림

이지선(2기 역사사랑 회장, 고2)

통일염원55년 8월1일 여름방학의 한창으로 접어드는 이 때에 나는 바다가 아닌 대구로 향했다. 목적은 몸짓전수였다. 보경샘, 영석, 지현, 재원, 지훈 그리고 나 이렇게 여섯 명이 모이기로 했다. 우리는 대구 경북대에서 점심이 조금 지난 시간에 모두 만날 수 있었다. 모두 허기진 상태였던지라 학생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몸짓을 배우기로 한 장소로 이동했다. 여러 개의 하얗고 큰 건물을 지나서 도착한 곳은 바로 아주 허름한 학생회관 이었다. 거기서 우리는 보경샘의 후배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몸짓을 가르쳐 줄 언니와 인사를 나눈 후 바로 몸짓을 배우러 나갔다. 몸짓을 배우기로 한 장소는 바로 학생회관 앞 거리였다.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 다니는 거리에서 처음 해보는 몸짓을 따라 하기에는 어색했는지 모두들 내뺐다. 그러다 차츰 사람들의 시선이 익숙해지자 신이 나기 시작했다. 첫째 날은 '바위처럼'과 '희망을 사가세요'라는 두 곡을 배울 수 있었다.

둘째 날 아침 우리는 다시 경북대 학생회관을 찾았다. 몸짓을 하면서 약간의 피곤함을 느꼈지만 즐거움이 더 컸기에 신나게 뛸 수 있었다. 둘째 날에는 짝춤인 '조국을 위하여' 라는 노래의 몸짓과 '이 길 앞에서' 라는 노래의 몸짓을 배웠다. 어제 노래보다 더 신나는 노래에 더 재미있는 몸짓이라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배웠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몸짓은 총 4곡이되었다. 어느새 저녁시간이 되고 때마침 지훈이의 어머니께서 저녁을 주시겠다고 해서 지훈이 집으로 가게 되었다. 거기서 아주 푸짐하게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셋째 날에는 이 때까지 배운 걸 한꺼번에 연습해 보기로 했다.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그동안 정들었던 언니와 학생회관을 볼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점심이 좀 지나서 몸짓을 모두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대구에서 직접 몸짓전수를 받았던 아이들은 나머지 역사사랑 아이들에게 몸짓을 가르쳐 주었다. 배워봤을 뿐 가르쳐 줬던 적은 없었던지라 어색하게 시작되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따라주었기 때문에 힘이 났다. 꽤 오랫동안 아이들 모두 힘들지만 열심히 몸짓을 연습했고 식구총회와 간탄일에 공연을 하게 되었다. 식구총회에서는 간단히 '바위처럼' 을 했고 간탄일에는 '이 길 앞에서' 와 '바위처럼' 을 했다. 그 중에서 '바위처럼' 은 간디 식구 모두에게 전수하였다. 간디 식구 모두에게 전수하는 자리에선 지현이의 활약이 정말로 컸던 것 같다. 내게 헤매고 있을 때 아주 재치 있게 진행해준 지현이에게 정말 고맙다.

우리는 서양의 문화에 노골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현재의 문화 속에서 우리 문화를 찾으려 했고 그 문화 중 하나가 몸짓이다. 몸짓은 순수한 우리말이다.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아쉬웠기에 간디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제는 하나 둘씩 우리 것을 찾아 나서야 될 때인 것 같다고 몸짓을 전수 받고 전수하며 깊게 느꼈다.

나는 주장한다

주한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이영석(2기 역사사랑 고문, 고3)

나는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미국이란 존재에 대하여 의구심이 생겨 관련 도서를 읽은 적이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주한 미군이다. 주한미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니 뉴스에서 주한 미군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 마다 눈길이 갔고 그들이 한반도 남녘에 존재하면 안된다는 확신이 생겼다.

나는 언제나 실천하는 청소년의 삶을 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실천한 것이 인터넷 민원이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민원을 올리자 이러한 답변이 왔다.

나는 화가났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답신을 받고 또다시 실천했다.
그래서 다시 올린 민원이 다음의 내용이다.

외 교 통 상 부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 TEL 720-2324 / FAX 739-1574
북미3과 서성 총괄한 담당자 김성진

문서번호 미삼 21270- 184
시행일자 2000. 6. 26.(5시)

수 신 이영석 귀하
(강남 삼청군 신인면 외총리 122번기 건너회로)
우) 666 - 960

제 목 민원사안 회신

귀하의 주한미군 철수관련 대통령 비서실앞 민원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 아 래 -

○ 6.25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북아 지역은 미·일·중·러 등 세계 강국들의 이익이 직접 교차하는 지역이라는 기본적인 불안정성이 있음을 감안,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계속되는 동안은 물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안정자로서 그 역할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장 관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주한미군 철수 관련 대통령 비서실 앞 민원 사안에 대한 답신을 받고 몇가지 의구심이 생겨 또 민원을 접수합니다. 답신에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감을 한다 했는데, 노근리, 매향리 등 많은 지역에서 민군의 양민학살 사건으로 피해를 본 무고한 민중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다는 건 거짓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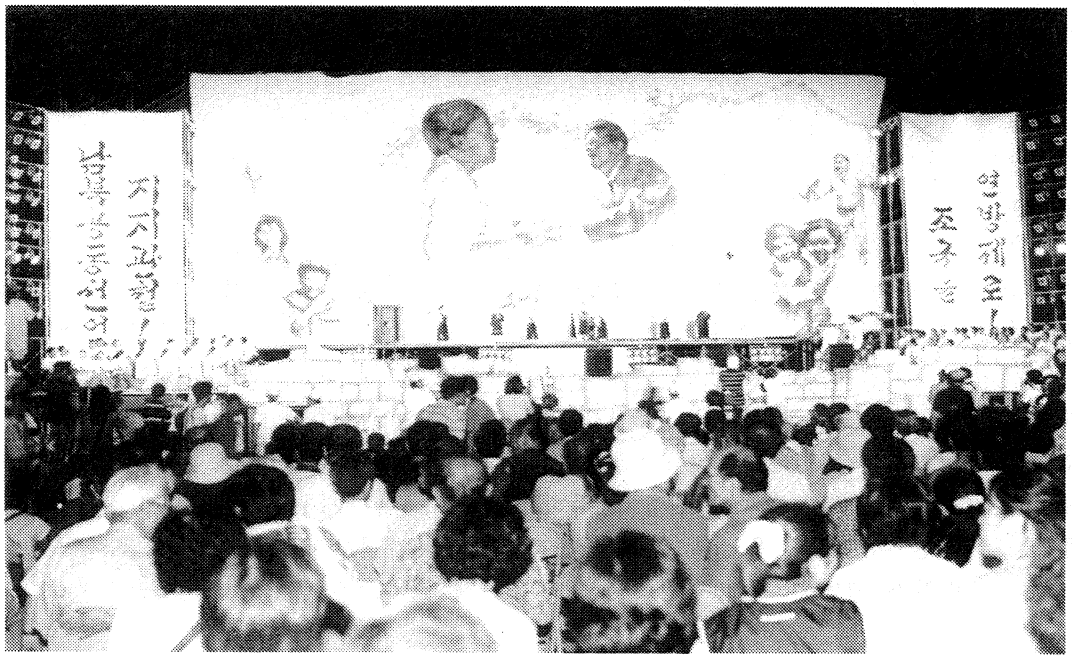
민중이 있어야 나라가 존재합니다. 민중이 우선입니다. 그러한 민중이 노근리, 매향리 사건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이 판국에 무슨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니 한반도 전쟁 억제입니까? 미군이 진정으로 평화를 위했다면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사과와 국가적 차원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미군이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 왔는지 답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민원 접수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 자주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한 나라인데 미국이 우리 군대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요. 이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과거 정치인들께서 당시 상황을 비춰볼때 어쩔수 없이 국군 지휘권을 미국에게 넘겨줬다고 하면, 이젠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군대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빠른 답신 부탁드립니다.

이 민원은 지난 6월 말에 올린 것인데, 청와대나 외교통상부에서는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실천하고 싶다. 그들에게 민원을 올리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 일을 계기로 느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는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이영석군이 참여한 통일 대축전 모습. 하루 빨리 통일이여! 오라!

나는 주장한다

국가정보원의 만행을 규탄한다

이영석(2기 역사사랑 고문, 고3)

한 때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이던 나다은(고1)양이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은이가 다니는 학교의 박정훈 선생님께서 국가정보원에 구속되셨는데 그 선생님의 사모님께서 국가정보원의 불법 연행을 규탄하고 박정훈 선생님의 구호하자는 내용의 글을 쓰신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또 실천했다. 지난 번 주한미군 철수 관련 민원과는 다르게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한 논리 정연함이 담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원을 올렸다.

나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최진수(8월20일), 박정훈(8월23일), 한용진(8월26일), 박종석(8월27일)씨 등에 대한 계속되는 국가정보원의 연행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갖는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국민적 여론을 통해 남북화해 시대에 맞지 않는 반민족반통일 악법으로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이미 정부여당내에나 국회에서조차 시대에 맞지 않고 그간 반인권적 법률로서 폐지가 활발히 논의되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반인권, 반민족,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걸어 대다수의 국민들조차 믿지 않는 대규모 조직사건을 조작해 내려는 행위는 우연치 않게 역대 독재 정권의 수법과 너무나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7.4남북공동성명이후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시도했던 것처럼 최근의 국가정보원의 계속되는 연행사태와 불법적인 인권유린 행위가 남북화해를 정부당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낳고 있다. 정부당국이 한편으로는 남북화해를 또 한편으로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들이대고 국민들을 탄압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모순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연행과정과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연행자 전원에 대해 불법적인 연행과 연행 초기변호인 및 가족접견 거부와 강제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심각한 불법과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진수씨와 한용진씨의 경우 강제로 옷을 벗긴 후 알몸으로 강제관장과 성기 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서 극도의 폐쇄공간에서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하고 최진수씨의 경우에는 강제 관장이후 몽롱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 하였다는 것은 수사자체의 불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박정훈씨의 경우 충분히 불구속수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강제연행 한 것은 분단 수구, 공안세력이 사멸해 가는 국가보안법을 붙잡고 서둘러 조직사건을 조작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분단 수구, 공안세력이 남북화해의 시대에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걸어 국민들을 위협하고, 6.15공동선언으로 마련된 남북화해의 흐름을 가로막아 선다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인권을 심각히 유린하는 잠안재우기, 알몸수사, 강제관장 등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음을 밝히며 국가정보원은 조직사건 조작행위를 중단하고 사건 관련자 세명을 전원 석방하며 인권유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자 주한미군철수를 촉구하는 민원을 보냈을 때에 왔던 답신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답신이 왔다.

이 영 석 귀하

안녕하십니까 ? 국가정보원 민원담당관입니다.

귀하께서 청와대에 보내신 민원은 저희 院에 이첩되어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귀하께서는 저희 院의 국보법 위반 피의자 연행 및 조사와 관련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보법의 경우 일부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으나 국가안보를 위해 존속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하며,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실정법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오히려 이를 태만히 하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또한 정부당국이 남북간 화해를 추진하면서도 국보법 위반자를 검거하는 것이 이율배반이자 모순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정부에서 赦免을 단행하면 경찰이 형사범을 검거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특히 피의자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것은 법적지식이 다소 부족하거나 저희 院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의 일방적 주장이며, 적법절차를 준수한 저희 院으로서는 이 또한 수사종료 및 재판과정을 통해 사실 무근임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교사에 대한 구속 수사도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집행된 것이며 저희 院으로서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국보법 위반 피의자 체포·조사와 관련 귀하의 오해가 모두 해소되셨을 것으로 기대하며, 건강과 행복이 항시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00. 9. 16

국 가 정 보 원　　민 원 담 당 관

내가 올린 민원은 사회의 권력층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당신들의 권력을 버리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힘쓰라!"

그러니 그들이 나의 이런 민원요구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 모든걸 알고있는 나이지만 가만히 있어서도 안된다는 생각이 들기에 올렸던 민원이다. 어린마음에…

이젠 사회에 대한 나의 철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실천해야겠다. 끝까지!

자유기고 1

뜻으로 봐야 세상이 보인다.

양희창(간디학교 교장)

자유기고란은 역사사랑 회원은 아니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에게 열린 공간입니다. 이번호에는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이신 양희창 선생님과 사회선생님이신 이수광 선생님께서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자 주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 사람은 고난을 당해서만 까닭의 실꾸리를 감게 되고, 그 실꾸리를 감아 가면 영원의 문간에 이르고 만다.", " 고난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 고난을 견디고 남으로써 생명은 일단의 진화를 한다. 사람들은 자유의 제단에 알찐한 자기 희생과 견디고 참음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 비록 그 인내의 힘을 끝점까지 써내지 않으면 안 되는 분한 일과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신나게 학창 시절을 보내리라고 설레이던 마음으로 상경했던 대학 새내기의 마음은 광주 학살로 이어진 군사정권의 최류탄 공세에 넋을 잃었고, 비로소 세상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아니라 짓밟히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곳임을 처참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었지. 그리고 처음 접해 보는 어려운 사회과학 서적을 뒤적이며 선배들의 분노를 내 몸 속에 차곡차곡 쌓을 때마다 새로운 사회를 구상하는 희망이 솟구치기는커녕 내 한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한계와 좌절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져 버리고 말았었지.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위해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무기력했던 내가 휴학을 하면서 보게 된 이 한 권의 책! 나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하루만에 이 책을 다 읽어 내렸다. 그리고 내 마음 한 구석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 좌절과 분노를 녹이는 듯한 환희를 맛보았다.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 무뎌지고 얄팍해진 내 영혼을 일깨우고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서러운 역사를 받아들여 사랑하게 만든 그 책은 단순한 글이 아닌 말씀이었고 계시였다.

1. 사람은 뜻으로 산다.

함 선생님은 역사를 철저히 학문적으로 고증한 학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도였던 내가 이 책에 사로잡힌 이유는 그 어떤 역사책도 역사가 존재해야 하는 확실한 근거를 설명해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다시 이 책을 읽어 보았다. 피가 뚝뚝 흐르는 듯한 생생함이 하나도 변함이 없다.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진 빛바랜 푸념이 아니라, 뜻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채찍질하는 준엄한 호령소리는 더욱 또렷하였다.

휴학하면서 난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고 스스로 자조하는 출소자들과 만나 공동생활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들에게서 뜻이 없이 사는 것은 배고픈 것보다 더 비참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사람은 뜻으로 산다. 생명이란 몸뚱아리가 아니라 뜻인 것이다. 정신이 살아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화나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소록도로 신혼여행을 갔었다. 그리고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하는 동지같은 내 아내와 약

속을 했다. 뜻으로 살자고, 우리의 안락으로 뜻을 바꾸어 먹고 살지는 말자고, 그 약속대로 나는 뜻을 위해 살려고 노력은 한 것 같다. 그래서 생활은 늘 불안정했지만 무엇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올 것인가 보다는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려고 나를 다그쳤다. 대안학교라고 불리우는 간디 학교에 몸담기까지 그 짧은 세월 속에서도 하늘의 뜻에 귀기울이는 연습을 숫하게 하여야 했고,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생각하며 늘 떠나는 준비를 하고 있다.

2. 고난에는 뜻이 있다?

경쟁과 효율, 출세와 성공의 세상에서 무슨 뚱단지 같은 고난의 미학이라니? 도무지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은 광활한 역사 속에 딱정벌레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아무래도 미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배부르다고 고난이 없을 소냐? 짐승이 아닌 다음에야 삶 속에 눈물이 있고 쓰라림이 배어 있음이 당연하다.

한 민족으로 태어나 내 속에 숨겨진 수천년 역사의 되물림이 상처로 나타나고, 운명으로 표현되고, 위기의 장면이 되는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며, 불행이 빌어먹을 팔자소관이 아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이다. 생명의 참 뜻을 일깨우는 진리의 발현은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눈물과 한숨으로 체념하며 살아가라는 것도 아니요 마냥 당하고 살아라는 것도 아니라, 우리 속에 담겨진 고난의 뜻을 잘 헤아려 죄를 씻고, 인생을 깊이 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시대마다 고난의 뜻은 다르다. 사회정의를 외치며 피를 흘려야 했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신음하는 자연 환경을 살리고, 썩어 문드러진 문화를 곧바로 세우는 고난의 십자가가 필요한 시대이다. 착각하지 말자. 고난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우쭐대는 그 날이 우리의 심판 날이 될 수 있음을....

3. 뜻이 있는 자가 책임져라

역사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 속된 말로 아는 놈이 책임지는 거다. 몰랐으면 모르되 안 이상 책임져야 하는 거지 회피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다. 역사는 어떤 방관도 용납하지 않는다.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생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하기 싫어 징징거리면서도, 온갖 상소리를 늘어놓으면서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요, 남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그렇게 무겁게만 느껴지던 역사의 짐들이 문득 살갑게 다가오고, 뿌듯한 긍지를 더해 주는 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함 선생님은 그것을 아가페의 역사라 하셨다. 종교적으로는 그게 기독교이건 불교이건 나타나는 형식은 그 민족을 따라 그 시대를 따라 가지가지요, 그 밝히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알짬되는 참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으니 그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 했다.

가만 생각해 보면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한 일이 많은 것 같다. 최근의 노숙자 쉼터 만드는 일도 그러했고, 북한동포 돕기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답답한 놈이 우물파는 심정으로 시작했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크게 반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내가 한 것도 아니요 내 성과도 아니다. 시대의 뜻을 따라 이웃을 만나고 얹혀진 수많은 돌들 중에 하나임을 인정하는 것뿐이다.

뭐 신나는 일이 좀 없을까? 괜히 답답할 때 나는 이 한 권의 책을 다시 접하게 된다.

자유기고 2

'두발자유화' 주장과 '지금 이곳'의 학교현실

이수광(간디학교 교사)

'두발자유화' 주장의 배경 맥락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머리카락' 문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내 경험으로 봐도, 학생시절에 요구되었던 '까까머리'는 학교불만의 근거가 되었었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나 학교의 의사소통 구조상 그 불만은 표현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 조건은, 각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로움을 확장시켜준다. 이런 조건을 매개로, '지금, 이곳'의 학생들은 머리카락에 관한 자신의 불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또는 이에 대해 동조한다. 이렇게 보면, 최근에 제기된 '두발 자유화' 주장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단지 '표현되지 못했던 것이 표현된' 것일 뿐이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학생들이 느끼는 '두발규제'와 관련한 불만은, 이전의 그것과는 몇 가지 점에서 질적 차이를 갖는다. 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학생들의 문제제기는 단순히 '머리카락의 길고 짧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왜곡되게 구성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는 자신들에 대한 잘못된 존재규정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두발규제를, "학생이란 신분을 이유로 한, 신체 및 표현의 자유의 부당한 침해"(부호 속의 글은 문제제기 학생들의 문건 인용문)로 규정하는 것은 이같은 입장을 잘 확인시켜 준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규범의 합목적성을 의심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학생들은 두발제한 규정을 일제의 잔재로 이해하거나, 두발규제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단속에 대해 인권 침해 시비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한다. 즉, "학생들의 개성을 불필요하게 해치는 교칙"은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두발자유화' 주장의 이면에는, 학교당국의 민주화 의지에 대한 불신이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대한 불만도 내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그런 종류의 불만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학생들의 가치체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인권의 보장수준'이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비록 '인권'이 학교교육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지만, 학생들이 우리 사회 인권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인식한 결과이다. 따라서 인권을 판단기준으로 놓고 볼 때, 한국의 교육현실이 불만족스럽게 인식되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인권논의는 그 성격상 소수자 입장에서 권력집단의 권력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만의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의 현실에서 찾아진다. 그간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상적인 개혁담론을 소통시켜 오고 있지만, 학생 삶의 진보는 확인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이론적 언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지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현장의 실천적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 사람들의 활동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획하고 분할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던 '학교'는, 여전히 그러한 기능 수행에 적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학교당국이 규정한 표준화된 생활양식이 요구되고, 자율성이나 다양성의 가치보다는 집단적 기준이 더 우선시 된다. 학생들은 이런 순종강화 체

제 속에서 '순종적인 태도'를 내면화하거나 혹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게 된다. 결국 이같은 학교 제도의 '근대성'이 불만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두발자유화' 주장은 인권을 중시하는 학생들의 가치체계 변화와 순종강화 체제를 지속하고 있는 학교현실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대응논리의 오류

학생들의 '두발자유화' 주장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은 그 층위가 다양하다. 그러나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을 통해 보면, 학생주장의 적극적 수용보다는 '부분적 수용'(두발자율화)이나 시기상조론을 제기하는 세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듯하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학생들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일까? 그들의 대응논리를 살펴보자.

우선, 부분수용론자들이나 시기상조론자들은 학교공간이 교육장소인 만큼, 학생들이 인권개념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한다. 즉, 학생들에게는 '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재소자'나 '군인'에게 까지도 인정되는 '인권'이, 왜 학생들(특히, 학교내에서)에게는 유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 논리적 설명을 확인할 길이 없다. 단순히, 교육행위의 신성함을 부각시켜, '학생은 학생다와야 한다'는 모호한 명제만을 되풀이 강조한다면 이는 논점을 이탈한 대응에 지나지 않는다(논점일탈의 오류). 학생들의 '두발자유화' 주장의 대전제는 '인권주체성'의 자각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발자유화' 주장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근거로 학생존재의 미성숙함을 든다. 아직 학생들은 성숙도가 낮은 만큼 복장이나 두발문제와 관련한 자율성 행사능력이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장이 같은 연령대의 '학생'과 '일반청소년'을 다르게 범주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학생'들에게는 '미성숙함'을 이유로 규제 필요성을 전파하면서도,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일반'에 대해서는 두발을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지 않다. 사회일반에서도 학생이 아닌 일반청소년의 두발을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차이에 대한 명료한 설명이 부가되지 않는다면, '학생-미성숙한 존재' 등식은 타당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특히, '성숙'과 '미성숙'의 판단기준이 사회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개념이고 보면, 학생을 무조건 '미성숙한 존재'로 판단하는 것은 적합한 범주화로 보기 어렵다(단순 범주화의 오류).

혹자들은, '두발자유화'를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반대논리로 제시한다. 이들은 두발을 자유화하는 경우, 다수의 학생들이 단정치 못한 머리를 하게 되고, 이를 기화로 유흥업소 출입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상업문화가 침투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유흥업소에 취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눈치다. 물론 학교붕괴의 가속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 예측은 예견에 불과하다. 몇몇 개인적 경험 사례가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가정(假定)의 증거로 받아들여지기에는 불충분하다(증거불충분의 오류).

이외에도 단정한 두발이 마음가짐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할 학생에게는 두발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력하다.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단정한 머리모양 = 모범생', '불량한 머리모양 = 문제아'와 같은 이분법이 내포되어 있다고 점에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전제의 오류). 또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교권수호 차원에서 두발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부류도 확인된다. 즉, 학생들의 두발제한 규정을 철폐할 경우 교사들의 권리범위가 위축되거나 학생들과의 긴장관계가 증폭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

장은, 교사들의 권리와 학생인권을 대립관계에 있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나아가 학생들의 권리행사 능력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반론의 여지가 충분하다.

위에서 살펴본 이같은 대응논리에 학생들이 설득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전략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의 질적 변화를 위한 전제조건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강박성과 획일성을 특징으로 한다(학교급이나 단위학교간의 편차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 지적은 그다지 틀리지 않다고 본다). 학생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은 교육학자들의 논의를 빌리지 않더라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아마도 정상적이지 못한 교육관행이 일상화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관련자들은 '일상화된 비정상성'의 정상화를 통한 학교의 질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두발자유화'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해결의 접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학교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교육장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교육자'와 '피교육자'로 구획된다. 이같은 이분법은, 교육장면에서 형성된 모종의 사회적 권력관계를 함축한다. 즉,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거나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문제는 이같은 구분방식이 통용되는 교육현실에서는 양자간의 이상적인 대화조건(ideal speech situation)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피교육자'의 문제제기나 주장, 요구, 건의, 지적 등은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비례(非禮)로 해석되고, 이로 인해 발언의 전후맥락은 단순화되거나 왜곡되게 된다.

특히, 이런 경향은 경험칙상 학교교육장면에서 더욱 눈에 띈다. 학생들의 '두발 자유화' 요구와 관련하여, 많은 '교육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 정조(情調)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들의 '두발자유화' 요구의 본령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양자의 관계가 '상호 학습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학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이 상대에게 바르게 전달되고, 그 고민의 원인이 '나' 일수도 있다는 사고전환이 가능해 진다.

또한, 학생들의 권리행사 능력에 대한 인식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시각에는 모종의 편파성이 내재되어 있다. 기성세대들은 자신의 경험세계에 근거하여 모종의 '수락기준'을 설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락기준이 성장세대들의 문화양식이나 사고체계의 변화를 고려하기보다는, 기성세대의 규범체계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기성세대의 경험세계에서 확인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문제'로 낙인찍거나, 나아가 '보호'와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기성세대들 중에 두발자유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요즘 젊은층의 헤어패션이 수락기준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근무하는 교육공간을 예로 보면, 학생들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위임할 때 그들의 권리능력 행사는 오히려 신중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일정한 훈련기간이 전제된 경우이긴 하지만, 이 예를 결코 특수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성세대는 학생들의 권리행사 능력을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리행사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안내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과정 자체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의 규범체계도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각급 학교 교칙을 살펴보면 아직도 실체적 적법절차, 즉 법규의 합리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요소들이 발견된다. 예컨대, 불합리한

징계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징계과정에서 선택된 수단이 교육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같은 불완전한 학교교칙의 정비를 통해 인권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다운 학생'의 판단 근거가 되는 '민속적 집단기준'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그동안 강력하게 작용한 '민속적 집단기준'은 '공부'를 유일한 가치로 강조한 반면, 여타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개인적 생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관심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해왔다. 이러한 '민속적 집단기준'이 변화할 때, 학교생활의 '일상'도 '공부'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학교의 '문화적 이미지'를 민주적이고 허용적인 이미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실제로 '학교'는 권위적이고 통제성이 강하며 질서정연함의 이미지를 갖는다. 이같은 집단 분위기 속에서는, 한 개인이 처한 특성과 고민에 대한 관심보다는 집단의 질서와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각각의 구성원 역시 그러한 집단문화에 대처할 논리를 생산해내기 보다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게 되고, 침묵문화(culture of silence)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집단분위기는 매우 안정적이게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건에서는 집단에 대한 불만이 내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발전할 위험성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취약한 집단분위기에서는 구성원들의 '자율성'이나 '창의성' 발현이 기대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당국은 각 구성원들간에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를 유도할 수 있는 의사소통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학교공간을 '사상의 자유시장'(market place of idea)화 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학생들의 주의·주장은 시장에서의 논의과정을 통해 시비가 가려지고, 결국에는 학생들간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자치권 확대, 구체적인 자율성 신장 프로그램의 개발, 각 구성원간에 상호이익을 유도할 수 있는 인권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발자유화' 주장, 그 이후에 대한 관심

'두발자유화' 주장과 관련하여 교육관련자들에게는, 그 주장의 수용여부와는 별개로 학교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과연 학교시스템이 민주적으로 작동되는지, 학생들의 삶이 건강하게 유인되는지, 학교문화에서 강조하는 가치가 미래지향성을 담고 있는지, 사회구조적 변화와 관련하여 학교의 질적 변화가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점검이 있어야 한다. 왜 이런 절차가 요구되는가?

행위자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가에 따라 사고와 실천의 방향이 결정된다. 학생들의 두발자유화 주장과 관련한 일련의 움직임도 따지고 보면, 그들이 중시하는 '인권가치'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앞으로 학생들이 인권의 가치를 포기하거나 가볍게 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생활을 인권 개념으로 해석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문제제기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확장될 것이다. 예컨대, 체벌문제, 복장문제, 사생활 침해문제, 표현의 자유 문제 등등이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관련자들은 '두발 자유화' 주장 그 이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반성'과 '각성'이 전제될 때, 관성화된 오류의 개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 학생들의 '학교 삶' 전반에 대해 생산적인 논쟁을 지속해야 할 시점이고 보면, 교육관련자들의 '각성'과 '미래인식'이 촉구된다. 물론 온갖 종류의 언설보다는 실천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명제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지지한다.

상반기 정기총회 자료집

통일염원 55년 상반기 정기총회 자료집

이것은 올해 3월 24일 금요일에 최보경 선생님 댁에서 열렸던 상반기 정기총회 자료집입니다. 좀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이 자료집은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 역사사랑의 집행부들이 모여 토의한 내용들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정기총회의 중점은 신입회원들의 회원승격과 몇가지 회칙의 개정, 그리고 올 상반기의 사업계획 이었습니다. 역사사랑이 즉흥적인 동아리가 아니라 이처럼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려 합니다. 정기총회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식 순-

1. 준회원 승격
2. 민중 의례
3. 정족수 확인
4. 개회
5. 지난 해 활동 평가 및 반성
6. 결산 공고
7. 안건
8. 기타 토의 사항
9. 건의 사항
10. 폐회

1. 지난 해 평가 및 반성

①전체(회장 이영석)

지난해는 역사사랑이 기초를 형성하는 해였다고 보여진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생긴지 첫 해 인 데도 불구하고 타 동아리에 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답사와 대자보 선전 및 회지 발간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전반기 정기 총회에서 회칙을 동아리 처음으로 제정했으며, 하반기 총회 때는 선생님과 몇 명 학생의 의견차이로 서로가 얼굴을 붉힌 적도 있으나, 후에 더욱 성숙된 역사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생들도 정열을 가지고 동아리 답사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동아리 활동 초기여서 동아리가 선생님의 손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졌다는 것이다. 답사를 가거나 행사를 준비하는 것. 사소한 것에 선생님의 손길이 다 미쳐야 했다. 또 비디오를 보거나 답사활동을 할 때에 자료집을 읽기만 하고 토의나 연구 활동을 상당히 미약했었다.

올해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들이 동아리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 가야 한다. 토론과 연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학기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모임 때는 자료집을 준비해서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고 연구하는 역사사랑인이 되자.

②회장(회장 이영석)

지난 해 회장의 선출은 회칙 제정 전에 이루어 졌으므로 회칙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선출하지 않고, 우리의 첫 모임 때 임시로 선출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회장의 활동을 평가했을 때, 본인은 감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바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원 모두와 회장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역력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물론, 부족한 점도 적지 않았다. 본 회장이 그룹 '나탈' 의 활동으로 인해 역사사랑을 소홀히 했었다. 공연 때문에 답사 및 모임을 불참석한 적도 많이 있다.

지난해를 기초로 닦았던 해로 본다면, 올해는 발전의 해로 볼 수 있다. 본 회장은 올 상반기까지가 임기이다. 그 전까지 역사사랑을 모든 활동에 있어서 우선으로 하겠음을 다짐하며, 이 자리를 빌어 회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열심한 활동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③총무부(총무부장 이지선)

총무부의 역할은 회계담당과 회원관리이다. 회계담당의 경우, 회비수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회원들이 회비를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아서 회비를 관리하는 본인께 많은 혼동을 주었다. 회원관리의 경우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본다. 동아리가 제대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되지 않았던 터라 우선 급했던 게 예산으로 판단되어 거기까지 미쳐 신경 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회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런 문제들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회원들의 동아리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모든 회원이 동아리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자세를 가져주었으면 한다. 구체적인 예로 집행부 회의의 결과에 별 생각 없이 따르는 그러한 행동을 자제하고 좀 더 활동적인 분위기로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는 회비 납부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강요가 아닌 자발성에 의해 회비가 납부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회원 수는 20명을 넘어섰다. 올해에는 회원들간의 유대관계를 다지자는 의미에서 단합대회를 수 차례 가져야 할 것이다.

④교육선전부(교육 선전부장 심은아)

1999년도 역사사랑 활동들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여러 부서들과 집행부 및 회원들 모두가 꾸준히 참여하며 민주주의적인 동아리가 되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따르기 마련이다. 우리의 화려한 활약 속에도 두루 미숙한 점들과 많이 반성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본다.

교육 선전부의 목표는 회칙에 의거하여 이러 하였다.

> 11조(집행부)
> 교육 선전부는 역사사랑의 정기모임 준비와 자료의 수집과 배포, 대자보 선전 및 설문지 조사를 책임진다. 교육선전부장 아래 교육 차장을 둘 수 있다.

본인이 객관적인 평가를 해 본다면 충분한 정기모임 준비와 자료 수집을 엮는 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본다. 작년은 답사위주의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기말 축제 전시회에는 교육선전부가 큰 힘이 되었다. 특히 답사일지 및 동아리 글, 산청 유적지 편집, 4월의 함성 외에 대자보와 그 이상의 일들을 소화해 내었다는 것이 교육선전부에 좋은 평가를 해주었다고 본다.

2000년도 교육선전부가 적극적이며 역사사랑의 오른팔이 되도록 하고 토론과 비평을 집중

적으로 준비하여 역사관을 바로 세우는 준비들을 꾸준히 했으면 한다. 또한 역사사랑을 활발히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교육선전부의 큰 목표가 아닐까 생각된다. 모든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진지한 大역사사랑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⑤답사부(답사부장 박지훈)

우리 답사 부에서는 부원들의 활동, 답사지 조사 등 여러 가지 활동과 여러 해야 할 일 등이 많았으나 부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부의 활동이 미약했다. 우리 부의 주요활동인 답사지 조사는 우리 부서에서 답사 이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회원여러분들게 답사하게 될 답사지 에 대해 미리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답사부장의 무관심과 답사부원들의 비협조적인 자세들 때문에 답사 부의 활동이 거의 없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했었다. 이러한 답사 부의 무책임한 자세 때문에 최보경 선생님께서 답사자료를 수집 분석, 심지어 복사해서 회원님들께 손수 나눠주신 적도 있었다.

올해에는 최보경 선생님이 아닌 답사부가 그 모든 걸 준비하겠으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부서가 되겠음을 약속드린다.

⑥편집부(편집부 차장 이미애)

지난 해 우리 편집부의 전체적인 진행방향을 선생님께서 잡아 주셔서, 회지를 만드는 데 많은 어려움은 없었다. 회지를 만들 때 회원들의 글을 보면 분량이나 내용 면에서 모두 만족할 만 했고, 글쓰기 자체도 성실히 해 주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해서 하루하루의 양을 어쩔 수 없이 내일로 미루는 일들도 종종 발생했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쉽게 개선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작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⑦노동부(노동부장 정재원)

본인은 회칙 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노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 부장 정재원(부회장)이다. 우리 노동부는 작년 한 해, 동아리의 무수한 잡일을 도맡아 했었다. 식사준비, 비디오 준비, 행사 준비 및 대자보 붙이기 등등... 올해에는 역사사랑인 모두가 노동부라는 의식을 가지고 귀찮은 일이더라도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2. 안건

1)올해 상반기의 활동 방향

이 항에서는 우리 역사사랑의 올해 상반기 활동 방향을 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토론합니다. 특별히 회원 여러분의 정숙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대사와 고대사를 병행(심은아 회원님의 의견)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역사사랑에서 중요시하며 같이 연구해 보자는 뜻으로 이 안을 냈다. 고대사는 충분히 수업 및 답사 전에 철저히 배우고 접할 수 있지만 답사 량도 적은 현대사에 대해선 배울 방법이 수업시간에도 별로 없다.

80년대에 태어난 우리. 그 때 역사는 어떠하였을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식할 수 없

는 일들이 현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고대사를 배우는 것처럼 지금의 현대사는 나중의 고대사가 될 터이다. 결론을 내리자 하면 정기 모임에서는 현대사를 파악하며 배워보고 그 이후 답사 및 수업시간엔 고대사를 겪어보자 하는 바이다.

㉡고대사(박지훈 회원님 의견)

우리가 역사시간에 어떠한 시대에 관하여 학습할 때에 그 시대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였다. 이 점은 잘못되었다. 역사는 그 전 활동과 행동을 알고 나서 그 다음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대→중세→현대의 순서로 학습해야 한다.

2)각 부서별 부장, 차장 및 부원의 선출

㉠편집부장

고2 박은혜 양의 탈퇴로 편집부장을 새로 선출한다.

㉡총무부 차장

총무부 차장 정재원 군이 부회장으로 임명되어 새로 선출한다.

㉢교육 선전부 산하기관(신문부)

현재 우리 동아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문 붙이기 활동을 지금까지는 부회장 정재원 군이 했으나 교육 선전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선전부 인력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교육 선전부에 신문부(가칭)를 두고자 하여 교육 선전부원을 더 선출한다.

㉣답사부 차장

현재 답사부 부장 박지훈 회원님의 요구로 답사부 차장을 두고자 한다.

3)회칙 개정안

집행부 회의에서 논의한 다음의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개정안을 승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2장 회원 7조(징계) 1. 징계의 종류 경고 3회 후 제명으로 한다.

☞위의 항은 너무 광범위하다. 위의 항을 "징계의 종류는 상황 발생 시에 전 회원이 모여 결정하도록 한다." 로 개정하고자 한다.

㉡3장 조직 10조(회장) 1. 본회는 회장 1인을 둔다.

2. 회장은 역사사랑을 대표하며 총회와 집행부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회장 궐위 시 총무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회장의 탄핵은 전 회원의 과반수로 발의하며 총회에서 전 회원의 2/3 찬성으로 탄핵한다.

☞지난 해에 부회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위의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한다.

3장 조직 10조(정부회장) 1. 본회는 정부회장 각 1인을 둔다.

2. 회장은 역사사랑을 대표하며 총회와 집행부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회장 궐위시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정부회장의 탄핵은 전 회원의 과반수로 발의하며 총회

에서 2/3찬성으로 탄핵한다.

㉢1장 총칙 3조(활동) 4. 살아 숨쉬는 역사인식을 위해 현장 답사를 실시한다.
단, 답사 장소와 일정은 전 회원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답사활동의 구체적 방안을 첨가하고자 한다.

(1)자료 및 편집(답사부와 교육 선전부)

처음에 답사부와 교육선전부를 중심으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여, 자료집을 제작한다.

(2)토의 및 문제 의식(전회원)

답사부와 교육 선전부가 제작한 자료집을 공부하며 답사의 목적을 토의하며 답사지 에 따라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 것인지 논의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유홍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

(3)답사

지금까지의 활동과는 달라야 한다. 회원 모두가 활발히 참여해서 얻고 가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얻고 가야 한다.

(4)정리 및 소감

지금까지의 답사 후 활동은 간단한 소감을 간단히 작성해 간단히 제출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제는 답사 후의 소감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따로 토론시간을 마련해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혜민이가 너무 예뻐서 넣었어요

상반기 정기 총회를 마치고

역사사랑의 진면목

최정아(2기 역사사랑 신문부원, 중1)

나는 역사사랑에 임시 회원 과제로 일주일 넘게 식당에 신문 붙이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역사사랑은 그냥 원한다고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려는 실천의지가 있어야 했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장인 영석 오빠가 정기 총회를 보경쌤 집에서 한다고 했다. 같이 역사사랑에 들은 이슬이와 슬기는 처음 들어보는 '정기총회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언니, 오빠들과 함께 보경쌤의 집으로 갔다. 보경쌤의 집이 조금 지저분해서 청소 한 번하고 나서야 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빙 둘러앉았다. 그리고 바로 정기총회가 시작되었다.

나에겐 정기총회가 졸리고 지겨웠지만, 동아리 활동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 같았다. 한 학기에 한번씩 열리는 정기총회는 그 동안 역사사랑의 활동에 대해서 반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짜는 자리인 것 같기도 했다. 회장부터 시작해 집행부 언니오빠들이 역사사랑의 열띤 토론을 했기 때문이다. 밤 12시가 훨씬 넘어서야 토론은 끝이 났다. 졸려서 조금씩 졸기도 했지만 너무나 진지한 언니 오빠들의 표정은 시간이 많이 늦어 피곤해 보이기도 했지만 정기총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정기총회 중에 임시회원들을 정회원으로 바꿔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회원이 된 사람들은 일어서서 차례대로 앞으로의 역사사랑 활동에 대한 각오와 다짐을 얘기했다. 나도 이제는 역사사랑의 정회원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주 동아리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며 우렁차게 말했다. 이렇게 정기총회는 끝났다.

정기총회를 마치자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기숙사로 갈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보경쌤의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잠을 자야 했다. 사실은 나중에 알았지만 원래 보경쌤 댁에서 자기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너무 피곤했지만, 정기총회라는 것에 대해 그 의미와 역사사랑이 어떤 동아리인지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가슴이 설레었다.

하반기 정기총회

통일염원 55년 하반기 정기총회 자료집

올해 9월22일 금요일 학교 식당에서 열린 하반기 정기총회의 자료집입니다. 하반기 정기총회는 그간 했던 역사사랑 행사들에 대한 의미와 반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것과 새로운 집행부들의 선출이 중점이 되어 회의가 진행 되었습니다. 역사사랑의 주체가 되는 이번 새로운 집행부들은 회장 고2 이지선, 부회장 고2 박지훈, 교육부장 고2 정재원, 선전부장 고2 심은아, 답사부장 고1 김은혜, 편집부장 고1 성연이로 재구성 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식순-

1.민중의례
2.정족수 확인
3.개회
4.지난해 활동평가 및 반성
5.결산공고
6.안건
7.기타 토의사항
8.건의사항
9.폐회

1.지난 학기 평가 및 반성

지난 학기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순서입니다. 각 부장께서 주체적으로 평가하시면 회원 모두가 각 부서에 대한 의견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①전체(이영석)

상반기 정기총회 때 결정한 우리의 구체적인 활동방향은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현대사와 고대사를 병행하여 학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반기 활동 중 한국전쟁은 자연스럽게 배제되었으며 우리 모두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한 학기에 한번 있는 정기총회 때, 결정한 사항을 어긴 것은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상반기에는 수업시간에 역사를 배우는 것과는 다르게, 어떠한 흥미있는 행사, 즉 4·19 마라톤, 5·18 사진전 등을 통해 회원 전체와 간디인 모두가 하나의 역사를 좀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는 굉장한 아이디어였고 그에 따른 효과도 신선했다. 또한, 국내 정세에 발맞춰, 이북 바로 알기 OX퀴즈와 통일꽃 붙이기로 간디인들에게 이북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으며 어느 정도의 통일의식도 심어 주었다. 이러한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②회장(이영석)

어떠한 사회단체나 공동체도 대표자가 있다. 그런데 그 대표자의 역할이 작을수록 그 단체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단위도 마찬가지이다. 진보한 국가일수록 작은 정부를 추

구하는 점이 이를 증명해준다. 단체의 구성원 모두가, 쉽게 말해 '알아서 잘'하도록 대표자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로 발전한 단체가 아니라면 구성원들이 '알아서 잘' 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대표자의 역할이다.

'역사사랑'은 지금까지 논한 발전의 기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나라- 에 미치지 못한다. 회장인 본인이 '알아서 잘'하도록 이끌어주지 못했으며 본인조차도 '알아서 잘'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연스레 동아리 내에서 선생님의 역할이 커진 것이다.

인간이란 동물이 어쩔 수 없는 것인지, 그러한 점은 인식하고 반성하고 또 뉘우치는 싸이클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도 큰 변화(발전)가 없었다.

이번 하반기 정기총회는 본회장의 마지막 정기총회이다. 본인은 지금 "이토록 시간이 빨리 지나갈 걸 알았다면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며 또다시 위에서 논한 싸이클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한 것처럼, 본인은 본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고3이란 감투를 내던지고 하반기 역사사랑 활동의 중심이 될 회지 제작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③부회장(정재원)

지난 한학기 부회장 직책을 맡아왔다. 회장이 없을 때 회장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직위지만 회장이 없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적도 없었고 다른 부장들처럼 특별히 맡은 일도 없어 한 일이 많지 않은 것 같다. 행사나 선전에 적극적인 준비는 하지 못했지만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다. 약간은 수동적인 자세로 활동했던 것 같다.

④총무부(이지선)

작년 하반기 평가와 많은 변화는 없는 것 같다. 회비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회원 혼자서는 아무래도 무리였던 것 같고 총무부에서도 아무런 대책없이 잘하자고만 했다. 그래서 대책을 한번 논의 해봤으면 한다. 회원 스스로의 적극성과 책임감도 부족했다. 동아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집행부일지 몰라도 적어도 동아리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모두여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든다. 항상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두들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동아리 내에서의 사고 차이도 한번쯤 다루어 봐야 할 문제였던 것 같다. 내부에서 중1과 고3사이의 사고차이가 너무 났던 것 같다. 그리고 개개인의 사고 역시 달랐던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것들을 서로 논하여 동아리 발전에 기하였으면 좋겠다.

선생님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막대하지만 조금씩 자발적인 성격을 지닌 동아리 활동이 보였던 것 같았다. 그러나 축전 때 역사사랑이 주최한 행사에서는 교사의 활동만 눈에 띄었던 것 같다.

작년보다는 성실성을 띤 모습들이 눈에 보였다. 그리고 준비과정에 있어서도 함께 하는 모습들이 아주 바람직했던 것 같다.

간디학교 내의 동아리 행사는 역사사랑이 주축이 되어 성공적으로 치뤄졌다. 모든 회원이 참가하였던 부분에 많은 의의를 두고 싶다.

⑤교육선전부(심은아)

지난 학기 활동방향은 답사위주가 아닌 행사위주로 많이 진행되었다. 4·19 마라톤을 비롯하여 5·18 문예대전, 축전 때엔 '통일꽃 붙이기'과 OX퀴즈, 그리고 통일 설문조사 등의 행사를 교육선전부와 주요인물들의 많은 협력으로 꿋꿋이 소화를 잘 해내었다. 좋은 추억들을 만든 것과 모든 간디인들과 함께 교류하는 모습은 정말 기쁘게 했다.

반면 한국전쟁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지만 충실하게 실천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올바른 토론문화'와 원활한 토의를 위한 자료수집을 못하게 되어 사과드린다. 하지만 선전하는 면에선 간디인들과 많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활발하게 진행 한 듯 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사랑의 제1기 교육선전부장을 끝마치는 총회를 통해 집행부와 담당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많이 미흡했지만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점도 있었고, 그런 점은 역사사랑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 '수고'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역사사랑이 더욱더 성장하길 바라고, 협동심으로 뭉친 당당한 역사사랑이 되자.

⑥답사부(박지훈)

답사부에서는 활동이 없었고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답사부에서 자체회의가 전혀 없었다. 모이려고 노력했건만 아이들이 모이지 않았다. 둘째, 답사갈 곳에 대한 자료부족으로 최보경 선생님에게 자료요청을 했으므로 우리가 답사갈 곳에 대해 찾는 일이 거의 없었다. 셋째, 답사부장의 책임회피로 강제로 답사부 회의를 할 수 없었고 답사부장의 게으름 때문에 조금이나마 있는 자료마저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고로 답사부장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 안건

①회장 및 집행부의 선출

회칙에 의거하여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됩니다. 회장을 경선으로 선출하며 회장이 집행부를 지목, 회원 모두가 찬성 또는 반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②하반기 활동방향

하반기에는 회지제작을 중점적인 활동으로 상반기와 같이 답사와 행사를 병행하자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된 편집부장께서 회지제작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③회칙 개정안

지난번 모임 때 드렸던 회칙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발표해 주십시오.



단성면 입석리에서 탁본하던 중에 다들 모였어요

하반기 정기총회를 마치며

역사사랑은 살아있다

김은혜(2기 역사사랑 답사부장, 고1)

이번 하반기 정기총회는 저번 상반기 정기총회 때보다 훨씬 편했다. 상반기 정기총회 때는 역사사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서 내 집이 아닌 곳에 가면 불편한 것처럼 불편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이번 하반기 정기총회는 많이 편했다. 조금씩 역사사랑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게 아닐까…

이런 회의를 통해서 계속 발전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일에 대한 반성과 평가없이 어떻게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총회는 중요한 것 같다. ^^ 자꾸 저번 상반기 정기총회 얘기를 하는데 이번 총회는 저번에 비해 훨씬 좋았던 것 같다. 저번엔 회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끝 무렵에 가선 참여도가 낮았는데 이번엔 별로 길지도 않고 적당했었다. 뭐든지 자꾸 해봐야 는다고 우리 역사사랑도 자꾸 회의를 해봄으로써 방법을 터득해 가는 것 같다. 솔직히 정기총회 한다고 할 땐 상반기 정기총회가 생각나면서 한숨만 나왔다. 이번엔 몇 시까지 하려나…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올까?' 하는 마음보다 '언제 끝나고 잘 수 있을까?' 하는 귀찮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니 회원들의 평가도 진지했고 자신의 게으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런 모습이 역사사랑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울러 그동안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나 혼자 편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부끄러웠다.

이번 총회에서 거론되어야 할 문제점들은 다 한 것 같다. 내가 말하고 싶었던 회비부분에 관해서도 거론되었고 회장과 집행부 선출도 이루어졌다. 다만 한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회원 모두의 활발한 참여이다. 고학년들은 열의를 가지고 자신들의 의견도 자연스럽게 말하고 그랬는데 그에 비해 나를 비롯한 저학년들은 참여는 했으나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많이 부족했다. 다음 총회 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모두가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역사사랑 이야기

역사사랑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성연이(2기 역사사랑 편집부장, 고2)

이 글은 2000년 한 해 역사사랑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정리하여 에피소드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역사사랑에서 준비하여 간디인 들에게 보여주었던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뒷이야기, 작은 사건들, 역사사랑 안에서의 소소한 이야기들과 함께 특출난 역사사랑 회원들의 소식 등이 실려 있습니다.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편집자주

역사사랑 이야기 하나, 짱구와 보경샘의 관계는?

4·19 혁명 정신 계승 마라톤 대회, 5·18 광주민중항쟁 정신 계승 문예대전, 1학기 기말잔치에 있었던 북녘동포 바로 알기 OX퀴즈 대회, 통일의식조사, 통일꽃 달기 행사에 있었던 역사사랑의 행사마다 상품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했었던 짱구, 그 이름도 위대한 왕짱구!! 4·19 꿀짱구, 5·18 꿀짱구, 통일왕짱구 등으로 이름을 날리며 모든 간디인의 행사참여도를 높여주는데 적지 않은 힘이 되어주었던 짱구는 도대체 어떤 사연으로 역사사랑의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올라오게 된 것일까? 왜 다른 많은 과자를 제치고 꿋꿋하게 짱구를 상품으로 고집했던 것일까?

여기서 짱구를 상품으로 유치한 최보경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했다.

연이 : 보경샘, 왜 하필 짱구예요?

보경샘 : (웃으면서) 아, 그거. 그건 뭐 짱구가 가장 양도 많고… 음…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공동체 정신! 넉넉함! 인간적인 넉넉함! 그런 게 아니겠나 싶다!

연이 : 진짜루?

보경샘 : (멋쩍게 웃으면서) 음… 뭐. 짱구 뭐. 짱구회사에서 음… 팔아주기로 뭐 그건 것 없다. 진짜다. 선생님은 그런 것 절대 아니다! 선생님은… 깨끗한 상거래를… 그것 알지? 깨끗한 상거래 그래 그거다. 음… 콜록콜록.

연이 : 나눠 먹을 수 있는 과자 많아요. 양 많기로는 **링도 있는데-_-

보경샘 : 그래도 짱구가… 짱구가 맛있잖아! **링은 질린다.. 짱구가 손톱에 끼워먹으면 얼마나 재미있는데. 멀리서 던져 가지고 받아먹고 그래도 맛있고… 선생님이 짱구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아나?

연이 : 샘, 짱구 상품으로 또 할 거예요? 다음행사에?

보경샘 : 응! 좋잖아~

역사사랑 이야기 둘, 역사사랑 T입기는 정말 힘들어~

이제 역사사랑인들은 남색바탕에 흰색글씨가 새겨져 있던 역사사랑T를 하나씩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것은 한 번에 얻어진 성과물이 아니다. 처음 티를 제작할 당시에는 흰색에 남색으로 역사사랑 로고가 박혀져 있었던 여름용 반팔T 였던 것이다. 참 예쁜 T였다.

그러나 이것을 입고 몇 번의 몸짓을 마치고 나니 역사사랑 로고가 번지기 시작했다. 당황한 회원들이 "어.. 어.. 이거 왜이래!" 하였고 집행부는 T문제로 회의를 하게 되었다. 우선은 제작사인 대구 '여럿이 함께' 에 문의를 해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한 번 빨아 입으면 깨끗해져요!"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 원래 그런 건가 보다 하면서 그 말을 믿고는 열심히 빨래를 해 보았으나 더 크게 번지기만 할 뿐이었다. 다시 한번의 연락 끝에 제작사가 회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무료로 다시 한번 T를 제작해 주기로 약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뿔사, 불행인지 다행인지 몇 벌의 T가 깨끗한 채로 번지지 않은 것이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T는 도저히 입을 수 없을 정도인데 몇 벌은 괜찮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스러웠다. 그런데 곤란한 표정으로 "어떡해요..?" 하는 회원들에게 이지선 회장과 최보경 선생님은 웃으면서 "…빨아… 빨면 번져… 다시 빨면 또 번질거야. 너희들이 대충 빠니까 그런 거야…^_^" 라고 일러주었다. 이런 방법으로 단 한 벌도 예외 없이 완벽하게 다 번져 버린 T들을 제작사에 보냈다. 제작사는 높이 쌓인 파란색으로 다 번지다 못해 물이 들어버린 T들을 보고는 군말 없이 다시 T를 제작해 주었다.

그런데 돌연 또 문제 발생! 우리는 이번에는 정말 잘 만들어야지 하는 맘으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디자인도 했다. 이렇게 주문한 T, 우리는 T가 오길 손꼽아 기다렸다. 그리고 왔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도안이 너무 작게 제작이 된 것이다. 덩치 큰 지훈오빠가 입으면 정말 이상하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

그런데 그것 뿐 만이 아니었다. 주문할 때 분명히 큰 치수 12벌, 그리고 작은 치수 6벌이었는데 반대로 제작된 것이다. 너무 어이가 없었다. 다시 연락. 제작사에서 큰 치수를 추가로 보내 주었다. 어휴~~

정말 역사사랑 T 입기 힘들었다. 하지만 우리 역사사랑은 이 T를 입고 멋있게 간디인들에게 몸짓을 보여 주었다.

역사사랑 이야기 셋. 최보경 선생님 진짜루 결혼하다.

바쁜 회지 일정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최보경선생님이 11월12일날 결혼을 하신다는 소식이었다. 당일 날 아침에 식장에서 뵌 보경샘은 거의 긴장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항상 생활한복만 고집하시다가 화려한 무늬의 턱시도를 입은 모습은 정말 생소하고 재밌었다. 식장에선 고1과 고2의 합창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고 역사사랑인들의 축하메시지가 듬뿍 담긴 편지를 회장 지선 언니가 낭독하기도 했다. 보경샘은 식전부터 긴장 같은 거 모르겠다고 큰 소리 치시더니 정작 식 중에는 웃지도 않았다. 신부와 함께 꼿꼿이 굳어 있는 모습에 아이들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결혼식 후에는 맛있는 갈비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경쌤이 담임으로 계신 고1아이들이 서빙을 담당했다. 보경샘 장가도 보내고 따뜻한 갈비탕도 먹으니 일석이조였다. 결혼식장을 떠나면서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신 보경샘의 얼굴이 떠올라 모두들 흐뭇했다.

연이 : 샘, 옥이언니 어디가 제일 예뻐요?
보경샘 : 예쁜데 별로 없는데…
연이 : 이거 회지에 실을 거예요.
보경샘 : 제일 이쁜데? 어- 마음이 예뻐. 사람은 마음이 예뻐야 된다! 미모란건 있제, 한 껍

데기 피부에 불과해… 껍질이 벗겨지면 다 똑같은 거야

연이 : 그래도 이쁜 건 있을 거 아니예요?

보경샘 : 그래도 굳이… 이쁘다고 하면… 별로 이쁜데 없는데…

연이 : 몰라요-_- 그냥 실어 버릴 거예요.

보경샘 : 안된다~ 그렇게 실으면 안돼-! 그냥, 조그만 얼굴이 예뻐, 얼굴자체가 아주 예뻐, 꼭 이런 말해야 되나? 부끄럽게…

연이 : 샘, 손은 언제 잡았어요?

보경샘 : 기억 안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_- 옥이 집에서 손잡았나? 그런 것 진짜 묻지 마라.

연이 : 옥이 언니가 보경샘보고 뭐라고 불러요?

보경샘 : 자기라 하더라^.^

역사사랑 이야기 넷, 정재원 인권상 수상하다!!

교육부장인 재원 오빠가 부산청소년 정보문화센타 주최로 열린 청소년 비젼 공모전에서 당당히 인권상을 수상했다. 재원 오빠가 쓴 글은 학생의 인권을 소재로 한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축하해요~

역사사랑 이야기 다섯, 정재원 또 뜨다!!

어느 날 우리는 놀라 자빠질 뻔했다. 정재원 그가 떴다. 한겨레 21에 그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온 것이다. 내용인 즉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 연합에서 주최한 두발 자유와 교육개혁을 위한 거리 홍보에서 참여 중 찍혀 버린 것이다. 역시 재원 오빠는 짱이야~~

역사사랑 이야기 여섯, 심은아 정재원 보다 더 뜨다!!

지난번 간디학교에 한국 언론재단에서 방문 했을 때, 심은아는 특유의 카리즈마로 언론인을 압도, 두 개의 신문사와 한 개의 방송국에 인터뷰를 당해 도합 3번의 언론을 탓다. 그녀는 기자 앞에서도 전혀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당당하게 주관을 밝혔다. 경향 신문에 실린 심은아의 인터뷰 기사는 다음과 같다. "복잡한 방정식이나 미적분을 모른다고 살아가는데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대학은 1~2년쯤 뒤 진학할 생각이고 사회학을 전공할 겁니다. 그 때 공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역사사랑 이야기 일곱, 역사사랑 전국 최우수 동아리 선정되다!!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주최한 '참교육 실천 사례 및 교육 자료 공모전' 에서 우리 역사사랑이 당당히 전국 최우수상을 타다니! 역사사랑에서는 이 소식을 대자보에 큼지막하게 적어서 간디인과 함께 공유했고 간디인들 역시 같이 기뻐해 주었다. 이런저런 좋고 나쁜 이야기도 많이 들어 왔었고 아직 1년 밖에 되지 않은 동아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상을 받게 된 것이 무척이나 놀라웠고 자랑스러웠다. 이 상을 받고 모든 회원들은 역사사랑을 더욱 자랑스러워하게 되었고 조금씩 지쳐 가던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다. 더불어서 앞으로 올 더 많은 역사사랑의 날을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다.

상 장

최우수상

소속 : 간디학교
이름 : 최보경 선생님

위 분은 전교조가 주최한 제1회 『참교육 실천 사례 및 교육 자료 공모전』「동아리 활동」 부문에서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00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 부 영

역사사랑 이야기 여덟, 인기 캡방 역사사랑!!

역사사랑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다. 역사사랑 새천년 회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관심이 크다. 보경샘 말씀으로는 전교조와 역사교사모임를 비롯한 여러 선생님께서 지난 1999년 회지 창간호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셨고 올 2000 새천년 회지가 나오면 꼭 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한다. 또한 일본에서 반전 반핵 운동을 하고 계신 사회단체와 교사들도 나눔의 집의 인연을 통해 우리 역사사랑을 아시고 계속된 연대와 교류를 원하고 계신다고 한다. 지난 여름 방학중에는 이들 일본 분들이 간디학교를 직접 찾아 오셔서 폭넓은 대화를 하셨다. 가실 때 보경 샘은 감사의 뜻으로 우리 역사사랑 회지를 드렸고 일본 분들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후 상황을 담은 대형 사진을 선물하셨다. 우리 역사사랑은 이번 기말 축전 때 반전 반핵 사진전을 열 생각이다.

역사사랑 이야기 아홉, 이영석 대안학교 특별 전형 떨어지다!!

역사사랑의 정신적 지주, 고3 영석이 오빠가 한신대학교의 대안학교 특별전형에서 떨어졌다. 좀 침체되었을 거라고 생각한 것과는 정 반대로 영석오빠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다. 자전거도 잘 타고 밥도 잘 먹고. 대학의 입학여부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영석오빠의 모습이 참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였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겨레신문사에서 한 인터뷰에서도 영석오빠는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에 빠져있었는데 지난 해 역사사랑 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암기만 하는 역사 공부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현대사를 배우면서 우리 사회의 숱한 모순과 민중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지난 5월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성지를 찾았었고, 경기 광주의 나눔의 집에서 정신대 할머니를 만나면서 제 음악에 담을 내용을 가다듬었어요. 수능 준비는 한 자도 안 했어요. 음악대학과 사회과학대 쪽에 원서를 넣어 보겠지만 떨어져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혼자서 공부해 갈 자신 있습니다." 수능에 목숨을 거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영석오빠의 당당한 모습 참 보기 좋았다. 우리의 영석오빠는 다시 한 번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영석오빠의 건투를 빕니다.

신입 회원 글

안녕하세요!

김슬기(2기 역사사랑 신문부원, 중1)

올 해 역사사랑에 가입하신 신입회원분들의 앞으로의 다짐과 가입할 때의 마음을 담은 글들입니다. 항상 처음 가졌던 마음처럼 앞으로 역사사랑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과 성숙하는 역사의식으로 많이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자 주

나는 올해 역사사랑의 회원이 된 중1 김슬기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으로 역사사랑에서 붙인 대자보를 봤는데, 역사사랑에서 신입 회원을 모집한다기에 망설이다가 보경쌤의 말씀도 듣고, 뜻있는 동아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슬, 정아와 같이 면접을 보러 갔다.

처음에는 다 같이 앉아서 보경쌤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한 명씩 면접을 보기 시작했다. 내 차례가 되어서 들어간 교실에는 반원을 그리면서 역사사랑 회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 반원의 중심에 빈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살벌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워낙 쉽게 동아리에 들었다가 무책임하게 동아리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면접을 아주 강하게 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가입한 역사사랑!

그 동안 힘들고 가끔씩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나는 역사사랑이 라는 동아리에 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신입회원 글

은혜의 첫 면접

김은혜(2기 역사사랑 답사부장, 고1)

역사사랑 면접 때가 생각난다. 학교에 입학할 때도 면접을 보지 않았던 터라 이번 면접은 머리에 털 나고 처음으로 하는 거였다. 역사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별로 없고 말재주도 없는데다가 처음으로 하는 면접이라 많이 떨렸었다. 뽑기는 5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8명인가? 그래서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 처음의 설렘과 각오가 언제까지나 계속 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주말에 가는 답사가 귀찮아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외출을 계획했던 주말에 답사가 걸려버리면 그것만큼 짜증나는 일도 없었다.(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역사사랑에 가입하고 나서 달라진 게 몇 개있다. 우리나라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생각하게 되었고 애정도 조금 생겼다. 그리고 방학 때 집에서 MBC 특별기획 '이제는 말할 수 있

다.'를 몇 번 봤는데 예전 같으면 김은혜가 이런 프로를 본다는 건 정말정말 잘 없는 일이었다. 관심이 생겼다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맞다. 관심이다.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갈 것도 지금은 눈길 한번 더 주고 귀를 좀더 기울인다.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역사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역사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전만큼 지루하고 따분하지도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관심이 계속 유지될 거라 생각한다. 하나둘 역사를 제대로 알아가면서 답답하고 화날 때가 많다. 억울한 사람들이 죽고 가족이 죄업이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우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또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그리고 학생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런 역사에 대해 화내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봐야겠다. 우리 모두가 "실천하는 청소년의 삶"이 되길 바란다.

신입회원 글

역사사랑에 가입하다!

성연이(2기 역사사랑 편집부장, 고1)

고1수련회에 갔을 때 담임샘이신 보경샘이 무지막지한 비디오들을 틀어주셨었다. 역사관, 세계관들이 하나도 정돈되지 않았던 상태라 그 현실이 '충격' 으로 다가왔고 나는 이른바 심각성을 느낀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사실에, 현실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나태한 역사관념에서 벗어나고자 역사사랑에 가입했다. 역사사랑이 거칠고 사상적인 동아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왜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지 설명해야 할 때 느꼈던 난감함은 아직도 다 해소되지 않았지만 점차 정돈되어 가는 역사의식을 느끼면서 뿌듯할 때가 더 많다. 해야할 일도 배워야 할 것도 많아서 버거울 때가 항상 이지만 그것보다야 많이 발전한 역사사랑에서의 나를 보며 만족하고 다행스럽게 여긴다.

신입회원 글

역사사랑이 좋아요!

최정아(2기 역사사랑 신문부원, 중1)

올해에 역사사랑 회원이 된 중1, 최정아이다. 역사사랑에는 부모님의 권유로 들어오게 되었다. 처음엔 역사라는 단어 때문에 혹시나 지루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면접 전날에는 들까 말까 계속 생각했었다. 하지만 역사사랑에 들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유관순, 안중근 같은 역사 말고도 아른 많은 역사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면접을 보았다. 면접 볼

때 그 살벌함을 잊을 수가 없다. 손에 식은땀까지 났었다.

지금은 역사사랑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 답사, 탁본, 여러 가지 행사들, 처음으로 고분주위에서 주운 토기 조각들, 몸짓… 역사사랑에 들어서 처음으로 접해 본 것이 많다. 주위에서 역사사랑이 뭐가 재미있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내 주 동아리인 역사사랑이 너무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역사사랑 활동을 할 것이다.

신입회원 글

역사사랑에 가입해서

염이슬(2기 역사사랑 신문부원, 중1)

나는 중1의 염이슬이다.

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여러 동아리들이 신입회원들을 뽑을 때 "역사사랑" 이란 동아리가 제일먼저 눈에 들어왔다.. 역사에 많은 관심은 없었지만 많은 역사를 배우고 알고자 이 동아리에 들기로 했다.

면접을 보았다. 두 번째였다. 참 떨렸다.

긴장을 너무 한 나머지 목소리도 떨렸다. 면접을 다 본 후에 좀 더 있다가 식당 앞에 대자보를 붙였다.

면접을 본 모두가 다 통과되었다.

하지만 아직 정식이 아니었다. 신문 붙이기를 해서 그걸 잘하면 정식 회원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했다. 그래서 정기통회를 거쳐 정식회원이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는 역사사랑 회원이 되어야겠다.

우리가 보는 비디오

비디오로 세상을 보자!!

성연이(2기 역사사랑 편집부장, 고1)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비디오 목록은 역사사랑 회원들이 동아리 시간에 보는 비디오들입니다. 이 비디오들은 역사사랑인들이 현실의 역사를 느끼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설명처럼 대부분의 것들이 공중파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최보정 선생님께서 손수 녹화하신 비디오들이고 그간 오해(?)가 있으셨던 분들께 충분한 이해를 드렸으면 합니다. 만약 필요하신 비디오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 편집자주

1. 레드 헌트 - 하늬영상
2. 5.18광주 민중 항쟁 - 한국 민족 예술인 총연합
3. 다큐멘터리 5.18 - 5.18 기념재단
4. 5.18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 MBC 정운영 100분 토론
5. 사라진 사람들 - MBC 특집 다큐멘터리
6. 백제 부흥군 2. - KBS 역사 스페셜
7. 백제 부흥군 1. - KBS 역사 스페셜
8. 충정 작전 그 후 20년 - MBC 스페셜 5.18 특집
9. 닫힌 교문을 열며 - 전교조
10. 대학 서열화, 무엇이 문제인가 - MBC 유시민 100분 토론
11. 역사 속으로의 여행 1. - 교육방송
12. 역사 속으로의 여행 2. - 교육방송
13. 역사 속으로의 여행 3. - 교육방송
14. 전쟁으로 부터의 해방 - KBS 20세기 해방시리즈
15. 청문회 실황 - 옷로비 사건 청문회 실황
16. 식민으로 부터의 해방 - KBS 20세기 해방시리즈
17. 트럭섬의 비밀 - SBS 8.15특집
18. 빈곤으로 부터의 해방 - KBS 20세기 해방시리즈
19. 남북 노동자 축구 대회 - 일요스페셜
20. 성으로부터의 해방 - KBS 20세기 해방시리즈
21. 벽초 홍명희 - MBC 스페셜
22. 독재로 부터의 해방 - KBS 20세기 해방시리즈
23. 서울대 신용하교수 대담 - KBS 특별 대담
24. 이데올로기로 부터의 해방 - KBS 20세기 해방시리즈
25. 반공방첩 50년 - 시사매거진 2580
26. 김정일 그는 누구인가? - SBS 남북 정상회담 특별기획
27. 온달전 - 이북영화
28. 안중근 이등박문쏘다. - 이북영화

29. 떠나는 자와 남는자(장기수). - MBC 스페셜
30. 돌아갈 수 없는 나의 조국(조선족 동포들) - 추적 60분
31. 환경은 없다(미군에 의한 생태 파괴) - 시사매거진 2580
32. 지리산의 눈물 - 진주 MBC 창사 30주년 기념
33. 족벌은 영원하다? - MBC PD수첩
34. 평양 리포트 - SBS 영상기행 평양2000 2부작.
35. 미국의 세균전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36. 장기수 선생님의 마지막 7일 - 시사매거진 2580
37. 전태일 분신 그 후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38. 민족통일 음악회 - MBC 특별 음악회
39. 안기부와 고문 - 추적 60분
40. 할아버지의 나라를 찾아서(조선족) - KBS 수요기획
41. 새만금, 그환상과 실상 - MBC PD수첩
42. 잊혀진 죽음이 말한다. - 건국 50년 특별기획 <대한민국>
43. 8.15 특집 다큐멘터리 - MBC PD수첩
44. 하정웅씨의 조국 사랑 - SBS 8.15 특집
45. 함께가자 우리 이길을 - 전교조 울산 지부
46. 동북 3성 55년의 회한 - KBS 네트워크 특별기획
47. 김일성 종합대학 - SBS 남북 정상회담 특별기획
48. 0.75평의 민주주의 - 건국 50주년 특별기획 아! 대한민국
49. 학생의 힘 - KBS 비전 21
50. 마이산의 비밀 - PSB 다큐 스페셜
51. 국가보안법 52년 - PD수첩
52. 이산가족 상봉 - MBC 스페셜
53. 평양 아이들의 서울 나드리 - KBS 일요스페셜
54. 지도층, 그들만의 세금내역서 - MBC PD수첩
55. 첨단전력 일본자위대 - 일요스페셜
56. 매향리 그후, 우리의 정부는 어디에 -추적 60분
57. 가슴으로 만난 북녘 땅, 북녘 사람들 - KBS 일요스페셜 북녘산하기행
58. 베트남 전쟁 2. - MBC 스페셜
59. 베트남 전쟁 1. - MBC 스페셜
60. 떠도는 자의 슬픔(이유진) - MBC 스페셜
61. 의료계의 문제점은? - PD수첩
62. 봄날 - MBC 5.18특별 연극
63. 평양 사람, 평양 생활 - MBC 남북정상회담 특별 기획
64.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유홍준) - MBC 남북 정상회담 특별 기획
65. 민주노동당의 도전 - 추적 60분
66. 조선인을 위한 일본인 "후세" - MBC 스페셜
67. 광개토 대왕 - KBS 역사 스페셜
68. 신문, 누구를 위한 언론자유인가? - KBS 개혁 리포트

69. 0.75평의 민주주의 2. - 건국 50 주년 특별 기획 아! 대한민국
70. 부서진 삶, 어디서 보상 받나(장기수, 양민학살, 삼청교육대) - KBS 취재파일
71. 16대 총선 낙천낙선운동 - PD수첩
72. 짐바브웨, 유혈사태 현장을 가다! - MBC PD수첩
73. 전쟁 그후 50년 다시 6월에 - 일요 스페셜
74. 우리의 조국은 하나입니다. - 추적 60분
75. 00사단 사라진 작전명령서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76. 골리앗과의 싸움 - 시사매거진 2580
77. 94년 한반도 전쟁위기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78. 간첩? 이수근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79. 우리조국 통일 염원과 6인 - 추적 60분
80. 남북교류의 선행자들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81. 고려말 왜구는 전예부대였다. - 역사스페셜
82. 노근리 사건의 진실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83. 쿠데타 정권과 친한파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84. 삼년산성 - KBS 역사스페셜
85. 분단의 사슬, 연좌제!!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86. 베트남전 한국군인 포로 의문사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87. SOFA협정의 허와 실 - MBC PD수첩
88. 평양 리포트. 1999 가을 - MBC 특집 다큐멘터리
89. 외면 당한 생존권 - 그것이 알고 싶다.
90. 박정희 시리즈 - KBS 다큐멘터리
91. 박정희 3탄 유신공화국 - KBS 다큐멘터리
92. 고려, 몽고 속극 전략 원인 규명을 위한 역사 청문회 1 - 통일염원 54년 고1
93. 고려, 몽고 속극 전략 원인 규명을 위한 역사 청문회 2 - 통일 염원 54년 고1
94. 반란의 괴수인가 민중의 지도자인가? 전봉준 역사재판 1 - 통일염원 55년 고2
95 반란의 괴수인가 민중의 지도자인가? 전봉준 역사재판 2 - 통일염원 55년 고2
96. 4.19혁명 정신계승 마라톤 대회 - 통일염원 55년 역사사랑
97. 모의 16대 국회의원 총선거 - 통일염원 55년 고2
98. 5.18 묘역 성지 순례 - 통일염원 55년 역사사랑
99. 명문대생의 부모 살해 사건 - 추적 60분
100. 광주민중항쟁 20주년 문예 대잔치,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 통일염원 55년 역사사랑
101. 서태지 컴백 공연 실황 - MBC 특집
102. 아빠생각 (소원이 소중이) - KBS 병원 24시
103.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04. 말콤 X - 일반 비디오
105. 대안학교를 찾아서 - KBS 취재파일
106. 민족일보와 조용수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07. 위험한 아이들 - 일반 비디오
108. 의뢰인 - 일반 비디오

109. 프라이멀 피어 - 일반 비디오
110. 볏집과 조선문화 - MBC 다큐멘터리
111. 통일염원 55년 북녘동포 바로 알기 - 역사사랑
112. 어느 재벌 회장의 화려한 재기(한라그룹) - MBC PD수첩
113. 독도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 MBC 유시민 100분 토론
114. 땅에 묻힌 스캔들, 정인숙 피살사건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15. 남북관계의 속도, 무엇이 문제인가? - MBC 유시민 100분 토론
116. 노숙자, 그 끝은 어디인가? - KBS 취재파일
117. 고문, 끝나지 않은 전쟁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18. 금기의 시대, 건전가요와 금지곡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19. 두만강 사람들 - 일요스페셜



간디친구들이 영상기록 5·18을 관심있게 보고 있는 모습.

역사사랑 회칙

전문

본회는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과 올바른 역사인식의 토대 위에 참된 역사를 지향하며, 모범적인 학생 자치 활동으로 간디학교의 당당한 주인으로 거듭난다.

1장 총칙

1조(명칭) 본회는 달리는 청춘, 실천하는 청소년의 삶 역사사랑이라 한다.

2조(목적) 본회는 왜곡되고 숨겨진 민족사의 복원을 통해 참 역사의 나아갈 방향성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3조(활동) 본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올바른 토론문화를 형성한다.
   단, 공개토론을 원칙으로 하되, 매 토론 시 토론의 내용이나 형식은 전 회원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에서 결정하며 모임은 1주 1회로 한다.
2. 원활한 토의, 토론을 위해 풍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3. 모임에서 토론할 내용을 모든 간디인과 공유하기 위해 대자보 선전, 설문지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
4. 살아 숨쉬는 역사인식을 위해 현장 답사를 실시한다.
   단, 답사 장소와 일정은 전 회원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답사활동의 구체적 방안

(1)자료 및 편집(답사부와 교육 선전부)

처음에 답사부와 교육선전부를 중심으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여, 자료집을 제작한다.

(2)토의 및 문제 인식(전회원)

답사부와 교육 선전부가 제작한 자료집을 공부하며 답사의 목적을 토의하며 답사지에 따라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 것인지 논의한다.

(3)답사

회원 모두가 활발히 참여해서 얻고 가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얻는다.

(4)정리 및 소감

답사후에는 소감문을 제출하며 토론시간을 마련해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5. 역사사랑 회지 '역사사랑'을 발간한다.
   단, 발간은 한 학기에 한번으로 한다
6.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다른 동아리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7. 회원간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모꼬지를 갈 수 있도록 한다.
단, 필요에 따라 회원의 논의를 거쳐 장소와 일정을 결정한다.

2장 회원

4조(자격)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간디학교 학우로 한다.

5조(가입절차) 본 회원의 가입은 역사사랑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 후 가입을 허가한다.

6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피 선거권을 가진다.
3. 본회의 회칙과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4.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7조(징계) 징계의 종류는 상황 발생 시에 전 회원이 모여 결정하도록 한다.

3장 조직

8조(구성) 본회는 총회, 회장, 집행부, 지도교사로 구성된다.

9조(총회)

1.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정기총회는 매 학기 1회로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기총회는 3월과 9월중에 실시한다.
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ㄱ. 회칙 제정 및 개정
    ㄴ. 활동 계획 및 승인
    ㄷ. 회장 및 집행부 선출 및 탄핵
    ㄹ. 예산 및 결산 승인
    ㅁ. 집행부에서 상정된 안건처리
    ㅂ. 회원의 탄핵
4.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고 전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조(정부회장)

1. 본회는 정부회장 각 1인을 둔다.
2. 회장은 역사사랑을 대표하며 총회와 집행부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회장 궐위 시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정부회장의 탄핵은 전 회원의 과반수로 발의하며 총회에서 전 회원의 2/3찬성으로 탄핵한다.

11조(집행부)

1. 총무부, 교육선전부, 편집부, 답사부를 둔다.
단, 필요한 경우 총회를 통해 부서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ㄱ. 총무부는 역사사랑의 전 사업에 있어 회계 및 실무를 담당하며 총무부

장 아래 총무차장을 둘 수 있다.

ㄴ. 교육선전부는 역사사랑의 정기모임 준비와 자료의 수집과 배포 대자보 선전 및 설문지 조사를 책임진다. 교육선전부장 아래 교육차장을 둘 수 있다.

ㄷ. 편집부는 회지 발간과 정기모임의 보고서 작성, 답사 자료를 책임진다. 편집부장 아래 편집차장을 둘 수 있다.

ㄹ. 답사부는 현장 답사를 책임지며 답사부장 아래 답사차장을 둘 수 있다.

12조(지도교사)

1. 본회는 지도교사를 둘 수 있다.
2. 지도교사는 본회의 회원이다.

4장 선거

13조(선거)

1. 회장은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경선으로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해 회장이 하며 집행부가 선거관리위원이 된다.
3. 집행부는 전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출한다.

5장 재정

1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1. 회비는 매달 3천원으로 한다.
2. 필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한다.

단, 본회의 목적에 준한다.

1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 개최 후부터 차기 정기 총회 전까지로 한다.

16조(자금관리) 본회의 재정은 총무부에서 관리하며 회원에 매월 마지막 정기모임에서 보고한다.

17조(이월) 매년 결산의 잉여금은 다음 해 예산으로 이월한다.

18조(결산공고) 정기총회 시 결산을 공고한다.

부칙

1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 당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3조(개정) 본 회칙은 1999년 3월 24일 상반기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개정되었다.

1장 3조, 2장 7조, 3장 10조가 개정됨.

역사사랑 광고

역사사랑을 후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실된 역사알기를 목표하는 간디학교의 동아리, 역사사랑입니다.
저희 역사사랑에서는 그간 많은 행사와 동아리T등을 맞추는 이유로 그 동안 모아두었던 자금들이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사랑의 일년 사업중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회지출판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사랑 회지에는 회원들의 예쁜추억과 함께 간디학교의 여러 행사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역사사랑, 나아가 간디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후원금 1만원 이상
후원자 혜택 : 역사사랑 회지 2000을 보내드리고 평생 후원인으로 모십니다. 댁까지 안전하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널리 홍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농협 815160-52-025901 최보경
연락처 017-530-2015(핸드폰), 055-973-1049(학교)
e-mail tongiljoguk@hanmail.net

친하게 지내봅시다!

♂최보경 선생님 : 1974년 3월 17일 (음력)
♀김슬기(중학교 1학년) : 1987년 8월 21일
♀최정아(중학교 1학년) : 1987년 7월 16일
♀염이슬(중학교 1학년) : 1987년 12월 12일
♂황성하(중학교 2학년) : 1986년 10월 5일
♂지종현(중학교 2학년) : 1986년 10월 26일
♂이한빈(중학교 2학년) : 1986년 12월 18일
♂임수근(중학교 3학년) : 1986년 1월 23일
♀서청란(중학교 3학년) : 1986년 1월 29일
♀성연이(고등학교 1학년) : 1984년 9월 21일
♀김은혜(고등학교 1학년) : 1984년 9월 24일
♂박지훈(고등학교 2학년) : 1984년 1월 18일
♂정재원(고등학교 2학년) : 1983년 6월 5일
♀이지선(고등학교 2학년) : 1983년 6월 14일
♀심은아(고등학교 2학년) : 1982년 12월 10일
♂이영석(고등학교 2학년) : 1982년 11월 17일